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

제 출 문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1. 29

| 연구수행기관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연구진 엄경남 서울여자대학교 바롬인성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재경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원

문정희 강남다함께키움센터 센터장

| 연구지원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 연구협력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더딤

이 보고서는 연구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2. 연구방법	11
3. 선행연구 고찰	14
3-1. 느린학습자 연구동향	14
3-2. 느린학습자의 정의와 특징	16
3-3. 느린학습자의 교육	19
3-4. 느린학습자의 자립	21
3-5. 느린학습자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제안	22
4. 느린학습자 이해당사자의 정책 요구 조사 결과	24
4-1. 설문조사 결과	24
4-2. 개별인터뷰 결과	84
4-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93
5. 느린학습자 관련법 및 활동 조사 결과	110
5-1. 국내 사례	110
5-2. 해외 사례	137
6. 정책 제안	142
참고문헌	158
부록	161

표 목 록

〈표 1〉 연구수행 절차	11
〈표 2〉 문헌고찰	12
〈표 3〉 설문조사	12
〈표 4〉 개별 인터뷰	12
〈표 5〉 포커스그룹 인터뷰	12
〈표 6〉 전문가 자문	13
〈표 7〉 느린학습자 연구동향	14
〈표 8〉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특징	18
〈표 9〉 느린학습자 학생이 학교 단위 학습 부진 교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73
〈표 10〉 느린학습자의 학습 향상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록해주세요.....	74

그림 목 록

〈그림 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24
〈그림 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25
〈그림 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생애주기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25
〈그림 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느린학습자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셨습니까?	26
〈그림 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6
〈그림 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경계선지능 범주에 해당하십니까?	27
〈그림 7〉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특수교육대상자입니까?	27
〈그림 8〉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장애등록을 하셨습니까?	28
〈그림 9〉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애등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28
〈그림 1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애등록 유형은 무엇입니까?	29
〈그림 1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29
〈그림 1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30
〈그림 1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시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30
〈그림 1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1
〈그림 1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겪은 불편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1
〈그림 1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유아교육 기관을 다녔습니까?	32
〈그림 17〉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주되게 다니거나 다녔던 유아교육 기관은 어떤 형태입니까?	32
〈그림 18〉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으로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33
〈그림 19〉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가 느린학습자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33
〈그림 2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겪은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4
〈그림 2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초등)	34
〈그림 2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중등)	35

〈그림 2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고등)	35
〈그림 2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36
〈그림 2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36
〈그림 2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전학 등을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37
〈그림 27〉 전학이나 학교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37
〈그림 28〉 위와 같은 결정을 실행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38
〈그림 29〉 기존학교 유지를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8
〈그림 30〉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39
〈그림 31〉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서비스별 필요 여부	39
〈그림 32〉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	40
〈그림 33〉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0
〈그림 34〉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지원 조직을 설립한다면 회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41
〈그림 35〉 귀하의 자녀는 미취학 및 학령기 발달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가?	41
〈그림 36〉 발달치료를 진행하셨다면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가?	42
〈그림 37〉 발달치료를 평균 주 몇 회를 이용하셨습니다가?	42
〈그림 38〉 발달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되셨습니까?	43
〈그림 39〉 발달치료의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셨습니다가?	43
〈그림 40〉 발달치료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무엇입니까?	44
〈그림 41〉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
〈그림 42〉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
〈그림 43〉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필요 여부	45
〈그림 44〉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여부	46
〈그림 45〉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기	46
〈그림 46〉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학교단위 학습부진)	47
〈그림 47〉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학교 단위 학습부진)	47
〈그림 48〉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학교 단위 두드림센터)	48
〈그림 49〉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학교 단위 두드림센터)	48
〈그림 50〉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시도교육청 학습 종합클리닉)	49
〈그림 51〉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시도교육청 학습 종합클리닉)	49
〈그림 52〉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내용	50
〈그림 53〉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 불편과 어려움	50
〈그림 54〉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비용 이유	51
〈그림 55〉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개선 사항	51
〈그림 56〉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시도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52
〈그림 57〉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고려했거나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2
〈그림 58〉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53
〈그림 59〉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53
〈그림 60〉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이용 종류	54
〈그림 61〉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회기	54

〈그림 62〉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평균 비용	55
〈그림 63〉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55
〈그림 64〉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이용 종류	56
〈그림 65〉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주 평균 이용 회기	56
〈그림 66〉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평균 비용	57
〈그림 67〉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57
〈그림 68〉 성인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58
〈그림 69〉 귀하의 가정에서 느린학습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58
〈그림 7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	59
〈그림 7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말)	59
〈그림 72〉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현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60
〈그림 7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60
〈그림 74〉 느린학습자 자녀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1
〈그림 75〉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61
〈그림 76〉 느린학습자 자녀 외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62
〈그림 77〉 귀하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누구와 주로 상담하십니까?	62
〈그림 78〉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63
〈그림 79〉 귀하는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63
〈그림 80〉 귀하께서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받은 직장 생활에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64
〈그림 81〉 귀하의 자녀가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64
〈그림 8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동반이 어려워 모임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65
〈그림 83〉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정도	65
〈그림 84〉 응답자 거주 지역	66
〈그림 85〉 응답자 성별	66
〈그림 86〉 응답자 연령대	67
〈그림 87〉 응답자와 느린학습자 당사자와의 관계	67
〈그림 88〉 응답자 학교 급별	69
〈그림 89〉 응답자 근무 지역	69
〈그림 90〉 응답자 연령	70
〈그림 9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70
〈그림 92〉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1
〈그림 93〉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정서 행동 특성 중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1
〈그림 94〉 본인의 학급 또는 수업을 들어가는 반 학생 중 본 설문에서 정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다면 그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2
〈그림 95〉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도에 대해 교원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72
〈그림 9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도에 대한 교원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73
〈그림 97〉 선생님께서 보실 때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76

〈그림 98〉 선생님께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을 교육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학생 지도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76
〈그림 99〉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7
〈그림 100〉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7
〈그림 10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 단위 학습부진 교실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8
〈그림 102〉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8
〈그림 103〉 다음 중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기회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예시입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항 5개를 선택해 주세요	79
〈그림 104〉 느린학습자는 교사의 지도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79
〈그림 105〉 느린학습자 지도는 교사의 책임이므로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80
〈그림 106〉 느린학습자 지도는 교사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수교육적 지원과 같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80
〈그림 107〉 느린학습자 발생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81
〈그림 108〉 느린학습자 판별은 일제고사(진단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81
〈그림 109〉 느린학습자 판별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평가에 의해 가능하다	82
〈그림 110〉 느린학습자 판별은 인성, 가정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판별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82
〈그림 111〉 느린학습자에 대한 대책은 학교 외에 다른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	83
〈그림 112〉 현재 학교 교육에서 '느린학습지도'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83

1. 연구배경 및 목적

“학교에서 내내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요.”

“평생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인지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성이 부족한 이들은 많은 수가 학창시절부터 학교에서 유령 인간 취급을 받으며 학교폭력, 따돌림, 학교부적응 등 무시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를 안은 상태로 성인이 되면서 내면의 분노가 범죄로 표출되거나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 사회의 주변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1SD에서 -2SD에 속하며 IQ가 70~85 사이에 해당하는, 13.5% 정도의 인구분포를 보이는 이들은 바로 ‘경계선지능을 가진 느린학습자’(이하 느린학습자)¹⁾ 들이다(강옥려, 2016).

느린학습자들의 고통은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 자녀가 경계선 판정을 받는 순간부터 부모들의 고통과 가정불화가 시작된다.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회에서 그 모든 것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가족이다. 문제는 계속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찾아간 병원과 센터에 각종 치료비 명목으로 나가는 것이 매달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고, 이러한 막대한 치료 비용을 쓰지만 뚜렷이 나아지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 부모를 더 막막하게 한다. 그나마 가정에서조차 방치되는 느린학습자의 경우는 더욱 위험에 내몰리게 된다. 마음의 병이 쌓인 느린학습자 당사자나 부모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극단적인 생각이나 선택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재하다. 느린학습자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거나 갈등을 겪으며 사회의 관심에서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비로소 이루어졌으며, 주로 치료나 교육 분야에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변관석·신진숙, 2017). 이는 공교육에서의 관심 부족으로 학부모들이 개인적인 치료에 가장 먼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개인적인 치료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학계와 현장에서의 관심이 절실하다.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경우, 퇴소 후 일어나는 사회부적응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1) 느린학습자라는 용어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배움이 느린 학생’이라는 학습부진학생을 일컫는 용어와의 혼동이 있어, 본 연구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IQ 70~85 사이에 해당하는 인구를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로 명명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정책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시설아동에 대한 자립 관련 연구와 대안적인 실천이 시도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출청소년 쉼터에 느린학습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생활시설 이용 아동의 37%가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80% 이상이 경계선지능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다른 아동과 살아가는 데 어려움, 자립준비나 퇴소 이후의 사후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2019). 이에 대해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을 보고한 연구에서 서비스 효과로 아동의 문제행동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적응도가 개선되었으며, 협력성, 공감능력, 자기조절능력 등 사회성 기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퇴소를 앞두는 아동의 자립기술 점수에서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음을 보고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인력개발원, 2017).

일부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나 혹은 적극적인 부모를 가진 느린학습자의 경우 그나마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그 외 많은 느린학습자들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든 어떤 곳에 살든 느린학습자들이 성장하여 스스로 설 수 있는 교육 및 자립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수의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부적응한 상태로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일찍부터 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국가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박찬선·장세희, 2018).

그동안 개념조차 통용되지 않던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느린학습자 개인과 가족, 주변사람들이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지만 그동안 일반 가정의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공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느린학습자들에게 가장 주요한 이슈인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자립'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의 수탁을 받아 느린학습자지원 워킹그룹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첫째, 느린학습자와 가족의 심층육구 파악, 둘째, 느린학습자의 학교생활 실태와 교사 인식수준 파악, 셋째, 느린학습자를 위한 정책사례 분석, 넷째, 느린학습자를 위한 향후 정책대안 탐색이 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일차로 느린학습자 관련 문헌 및 기사, 관련 법과 정책을 분석하였고, 느린학습자 청년 당사자, 학부모, 교사, 전문가 대상 양적·질적 조사를 실시해 이들이 느끼는 느린학습자의 실태와 요구 사항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으며, 추후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확대되는 데 본 연구가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연구방법

연구방법으로 먼저 그동안 진행돼왔던 느린학습자 관련 연구나 활동들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두 번째, 느린학습자 학부모, 초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실태 및 요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느린학습자의 요구를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느린학습자 당사자 청년 10명의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넷째, 학령기와 청년기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각 한 그룹씩 총 9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느린학습자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이에 대한 대안을 둔 교사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 교사 5명 대상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다섯 차례의 과정을 거쳐 연구자들이 느린학습자를 위한 기초적인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검증받기 위해 5명의 전문가를 초대해 자문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연구참여자 모집이 민감한 연구라는 특성상 본인의 자녀가 느린학습자임을 드러내며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느린학습자 자녀가 있음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부모 등의 상황이나 의견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밝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경우 관련 정책에 대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져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는 부모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수행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연구수행 절차

연구절차		연구참여자(조사내용)	연구일정
문헌검토		학술지, 정책보고서, 신문기사, 방송, 기관 홍보자료, 결과보고 등	2019년 6~11월
설문조사	학부모	느린학습자 부모커뮤니티 가입 학부모 대상 대면 및 이메일 조사로 254명 응답 중 부실 응답을 제외한 167명 분석	6~7월
	교사	느린학습자 교육 경험이 있는 초중고 교사 대상 온라인 조사로 109명 응답 중 부실 응답을 제외한 107명 분석	
개별 인터뷰		20대 초중반의 남녀 느린학습자 10명	9월
포커스 그룹 인터뷰	학령기 학부모	거주지나 자녀 학교가 동북4구에 있으면서 유/초/중/고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5명	9월
	청년기 학부모	거주지가 서울이면서 청년기 이상 연령 자녀의 학부모 4명	
	초중고 교사	동북4구에 위치한 초중고교에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린학습자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 6명	
중간보고		조사결과 분석 및 논의	10월
전문가 인터뷰		특수교육, 학습부진지도, 교육복지 등 공교육 관련 전문가, 느린학습자 대안학교,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 전문가 5명	11월
결과보고서		정책 수립 제안	11월

〈표 2〉 문헌고찰

기간	2019년 6~11월
검토 자료	느린학습자 관련 학술지, 정책보고서, 신문기사, 방송, 기관 홍보자료, 기관 사업결과보고 등

〈표 3〉 설문조사

학 부 모	기간	2019년 6월 20일 ~ 7월 20일
	대상	느린학습자 당사자 부모 총 167명 (남성 11명, 여성 156명)
	조사내용	기본특성, 진단, 보육 및 교육에서의 어려움, 교사인식, 발달치료, 교육에 필요한 정책, 기초학습 관련 교육제도 이용현황, 특수교육 이용현황, 치료 및 복지서비스 욕구, 가족의 어려움 등
	조사방법	대면 설문 및 이메일 조사, 느린학습자지원 워킹그룹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부모커뮤니티 협조 요청, 다음 카페 사랑하는 거북이에 설문조사 신청 접수 후 이메일 수신
	분석방법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석 실시
교 사	기간	2019년 7월 1일 ~ 7월 20일
	대상	초중고등학교 교사 107명 (초등 44명, 중등 34명, 고등 29명)
	조사내용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학교생활 중 어려움,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서비스 및 정책 등
	조사방법	네이버 온라인 설문폼 활용, 느린학습자 서비스 참여로 교육복지센터 등과 교류하고 있는 학교에 설문을 요청해 온라인 설문창을 통해 배포
	분석 방법	네이버 설문 통계로 빈도분석 실시
조사주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느린학습자지원 워킹그룹

〈표 4〉 개별 인터뷰

기간	2019년 9월
대상	20대 초중반 남녀 느린학습자 10명 고용형태는 모두 무직, 비정규직(아르바이트 및 장애고용 포함)
주요질문	일을 비롯한 일상생활, 독립, 연애, 결혼에 대한 생각 등
분석방법	인터뷰 자료를 코딩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주나 주제로 묶어 나타내는 내용분석 실시

〈표 5〉 포커스그룹 인터뷰

학 부 모	일시	[학령기 학부모] 2019년 9월 18일 오후 7~10시				
		[청년기 학부모] 2019년 9월 19일 오후 7~10시				
	참석자	[학령기 학부모] 거주지가 동북4구이거나 동북4구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유, 초, 중, 고교 학령기 자녀가 있는 학부모 5명				
		구분	거주지	자녀 성별	자녀 학년(나이)	자녀 소속
		A	구로구	남, 여	4, 7세	유치원
		B	성북구	여	초등 5학년	일반 학교 특수교육
		C	성북구	여	중등 3학년	일반 학교 특수교육
		D	노원구	남	고등 1학년	위탁형 대안학교
		E	중랑구	남	초등 6학년	일반 학교

교사		[청년기 학부모] 거주지가 동북4구이면서 청년기 이상 연령의 자녀를 둔 학부모 4명				
		구분	거주지	자녀 성별	자녀 학년(나이)	자녀 소속
		F	성북구	남	24세	전문대 졸
		G	파주	남	25세	대안학교 졸 고등 검정고시
		H	구로구	여	21세	대학 2학년
		I	노원구	남	20세	위탁형 대안학교
	장소	느린학습자마을배움터				
	주요질문	•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과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교육(학교생활, 학업 등) 관련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자립(진로, 직업 등) 관련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 • 기타 의견				
	일시	2019년 9월 28일 오전 10~13시				
	참석자	동북4구에 위치한 초중고교에 5년 이상 근무하면서 느린학습자 지도경험이 있는 교사 6명				
	구분	성별	연령	소속		
	a	여	30대	초등		
	b	여	40대	남중		
	c	남	50대	남녀공학 일반고		
	d	남	40대	경계선지능 위탁형 대안학교		
	e	여	40대	교육지원청 장학사		
	f	여	50대	남녀공학 특성화고		
	장소	느린학습자마을배움터				
	주요질문	• 느린학습자 학생을 지도하면서 가장 염려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 어려움의 극복이나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현재의 제도나 정책, 사건, 노력 등과 어떠한 정책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지 의견 • 느린학습자 학생의 학습권 보장, 학업능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학교나 교육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 • 느린학습자 학생의 자립을 위해 학창시절 동안 발달단계별(학교급별)로 가장 주요하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는 것				
	분석방법	인터뷰 자료를 코딩하고, 이를 광범위한 범주나 주제로 묶어 나타내는 내용분석 실시				

〈표 6〉 전문가 자문

일시	2019년 11월 17일 오후 17~19시			
참석자	공교육체계에서 특수교육, 기초학습지원, 교육복지사업 등을 10년 이상 담당한 학교 관계자, 느린학습자 대상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자 5명			
	구분	성별	연령	소속
	가	여	40대	OO교육지원청 장학사,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과 학습부진, 교육복지사업 약 20년 담당
	나	남	60대	현 OO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문단, 전 OO교육지원청 교육장, 전 OO초등학교 교장
	다	남	50대	대안학교 교장, 전 OO교육복지센터 센터장
	라	남	40대	경계선지능 위탁형 대안학교 교감, DTS행복들고나 사무국장
	마	여	40대	서울여성가족재단 공적돌봄협력팀 차장
주요질문	• 연구진이 제시하는 ‘느린학습자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 제안’에 대한 의견 • 제안 내용 외에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보호와 자립을 위해 추가되었으면 하는 정책 의견			
분석방법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내용 관련 부분에 본 인터뷰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거나 추가 기술			

3. 선행연구 고찰

3-1. 느린학습자 연구동향

경계선지능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변관석·신진숙(2017)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느린학습자 관련 연구가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9편,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11편, 2011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출판된 논문이 20편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되어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총 10편의 관련 논문이 출판되었다. 경계선지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학문 영역을 비교해보면, 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16편이었으며, 이 중에서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9편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6편, 의학 분야에서 2편의 논문이 출판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27편의 연구가 언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의 치료 관련 학문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교육학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연구의 50% 이상이 각종 치료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경계선지능이 가진 범주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일반 교육과 특수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에서의 관심이 부족하였으며, 이로 인해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의 양육자들이 각종 치료를 통한 중재에 가장 먼저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되는 견해가 있다(변관석·신진숙, 2017).

2010년대에는 느린학습자 관련 연구들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특히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느린학습자 지원법이 통과되었다고 보도되었던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학술논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특히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느린학습자 학부모, 교사의 인식과 요구, 선별도구 개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느린학습자 국내 연구동향, 느린학습자 교육이나 정책 제언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표 7〉 느린학습자 연구동향

분류	제목	저자	연도	발행	연구목적
인식 경험	경계선급 지능 중학생의 학교생활 경험 및 교육 지원 요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	주은미 최승숙	2018	한국학습 장애학회	경계선급 지능 중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들의 학교생활을 살펴보고 교육 지원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
	경계선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김고은 김혜리	2018	한국가족 복지학	경계선지능 중고등학생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 경험이 어떠한지 그 경험의 본질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자 심층면접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임희진 구자경	2019	독서치료 연구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그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지 이해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김진아	2017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선별 및 진단, 교육을 실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이러한 교사인식을 바탕으로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안
선별 도구 개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박현숙	2018	성균관대 박사학위 논문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최근에 사용된 바 있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가 경계선 지적 기능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타당도를 검증하고, 이 체크리스트가 국내 초등학교생들의 '상대적으로 경미한 지적 결함'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신뢰할 수 있게 변별해내고 있는지를 확인
	학령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및 읽기 능력	김주영	2018	학습자중심 교과교육학회	학령기 경계선 지적 기능(BIF) 아동의 언어 및 읽기 능력이 평균 지능 아동과 비교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판별해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
	느린학습자 조기 진단을 위한 CRA 기반 수감각 검사도구 개발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장성욱	2018	특수교육학 연구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하여 CRA 기반 수감각 검사도구를 개발하는 목적.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감각 검사 실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중재	하정숙	2017	한국연구재단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느린 학습자를 선별하여 수와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학 학습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함
	매트운동프로그램이 경계선지능아의 협응능력 및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송지환 김중형	2017	한국체육교육학회지	경계선지능아를 대상으로 매트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운동기능체력의 향상과 정서행동 발달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함으로써 매트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읽기 중재의 효과	하정숙	2018	특수교육학 연구	동화를 활용한 읽기 중재가 읽기능력이 부족한 경계선지능아동의 음운인식, 단어인식, 읽기 유창성 향상에 효과적인지를 파악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위한 언어기반 인지강화 기능성 게임 구현	류수린 외	2018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인지훈련프로그램으로 '언어기반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해당 콘텐츠를 활용한 기능성 게임화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보이고자 하는 목적
	FIF-B(EM)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정대영 임성미 하창환	2018	이화여대 특수교육 연구소	FIF-B(EM)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파악
	일상생활중심 대화식 저널쓰기가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학생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미정 박경란	2019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일상생활중심 대화식 저널쓰기가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학생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연구 동향 분석	경계선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변관석 신진숙	2017	특수아동 교육연구 19권1호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계속될 관련 분야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경계선 지적 기능과 관련된 국내문헌을 체계적으로 고찰
교육 정책 제언	경계선지능 아동의 교육 : 과제와 해결 방안	강옥려	2016	한국초등교육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개념 및 정의, 특성 파악, 이들의 교육과 지원을 위한 과제 및 해결방안 모색
	경계선지능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발전을 위한 소고	심정민	2016	영상문화 제 29호	경계선지능 문화예술교육의 효과 파악, 정책과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 제시
	Education for All을 대비한 특수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소고	정훈영	2016	장애인 고등 교육 연구 2권 2호	'Education for All'의 시대적 사조에 따른 특수교육의 변화 방향에 대해 모색. 경계선지능 학생, 다문화가정 장애 학생, 정서·행동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의 변화 고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의 학술연구들은 느린학습자 현재의 상태나 문제, 교육프로그램

램, 교육변화를 위한 제언 등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지만 아직 느린학습자의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인 수준에서의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느린학습자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국가는 어떠한 안전망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교육 체계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3-2. 느린학습자의 정의와 특징

1)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의 정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들은 ‘경계선급 정신지체(borderline mental retardation)’, ‘느린 학습자(slow learner)’, ‘저성취 아동(low achievers)’, ‘애매한 아동(gray area kids)’, ‘유령 아동(shadow children)’, ‘경도 인지적 손상(mild cognitive impairment)’, ‘일반적인 학습장애(general learning disabilities)’ 등으로 불렸다(강옥려, 2016). 최근 연구들에서는 주로 경계선급 지능 혹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이하 BIF)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Slow learner, 또는 경계선지능)란 학습장애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지적 장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을 의미한다. 미국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IV)에서는 ‘BIF’로 분류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지능검사 점수가 40% 이하, 평균을 중심으로 표준편차 -1SD과 -2SD 사이인 IQ 70~85 사이에 속하는 자들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분포를 토대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는 IQ 70~79 사이의 지능을 나타내는 경우를 경계선 지적 수준이라고 해석하기도 한다(K-WISC III 지침서, p.187; 강옥려, 2016).

느린학습자는 일반 인구의 약 12~14%로 추정된다. 한 학급에 평균 3명, 전국적으로 8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며, 학업능력이 하위 8% 수준으로 학습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강옥려, 2016). 느린학습자는 이처럼 큰 집단이지만 학습장애나 정신지체는 아니며 ADHD(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와는 다른 독특한 인지와 정서, 행동, 사회성 발달을 보인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또래관계, 규칙준수의 어려움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박찬선·장세희, 2018). 주로 늦되는 아이, 답답한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눈치 없는 아이 등으로 불렸으며, 교육계에서는 학습지진, 학습부진, 기초학습부진, 기본학습부진, 학습장애, 저성취 등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들은 학교에서는 경도정신지체의 상위범주에 있지만 실제로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느린학습자에 대한 주변 인식도 부족하다. 느린학습자들은 학습부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학습 및 또래관계, 규칙의 준수 등과 같은 적응의 어려움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다. 느린학습자들은 특별한 지도와 배려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해 적절한 도

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박찬선·장세희, 2018).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느린학습자들은 특수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적 개입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특수교육과 일반교육 사이에서 소외되어 있는 느린학습자들의 인지적 능력이 지적 장애 학생보다는 높지만 제한적이며, 언어능력을 포함한 일상생활 기술, 학교적응, 학업 등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개입과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이기정, 2016; 김진아, 2017).

2) 느린학습자의 특징

느린학습자들은 학령기 초기부터 대인관계를 비롯해 교육적, 사회적 문제들과 마주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17). 제한된 인지능력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또한 주의가 산만하며, 정보습득 및 활용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과 일부 튀는 행동으로 또래 아동들에게 소외를 느끼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늘 위축되어 있는 등 느린학습자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EBS 심층취재: 경계선지능, 2014; 강옥려, 2016). 따라서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아동과 다르게 느껴지는 느린학습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박찬선, 장세희, 2018; 박현숙, 2018).

첫째, 인지적 특징이다. 느린학습자 아동들은 주의력이 부족하다. 특히 교사의 일반적인 교육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한 번에 30분 이상 집중하기 어렵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제나 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아동과 비슷할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주의집중을 오래 하지 못한다. 따라서 느린학습자가 잘 지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짧고 잦은 수업이 필요하다. 특히 기억 능력이 일반 아동에 비해 부족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주의가 산만하여 주의집중이 어렵다. 또한 조금이라도 복잡한 과제가 주어지면 쉽게 지루해 하고 의욕을 상실하며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느린학습자들은 복잡해 보이는 과제는 기피하려 하고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더 산만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느린학습자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노력이나 개입이 없이 방치되었을 경우 인지기능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으며, 지적 장애 수준의 지능으로까지 하락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둘째, 정서적·사회적 특징이다. 느린학습자의 아동은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의존적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으므로 자존감 및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EBS 심층취재(2014) 조사 결과, 경계선지능을 가진 중학생의 종합심리 결과 대인관계에서 큰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영역에서 예민함을 보인다거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공감하는 능력도 부족하여 실제로 타인들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학교생활에서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단체생활에 피해를 주기 쉽다. 따라서 느린학습자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요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단연 사회성으로 꼽히고 있다. 순하거나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조금이라도 복잡하거나 어려운 상호작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협동심이 부족하다. 특히 상황파악 및 대처기술이 부족하여 또래 관계에 갈등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

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느린학습자들의 사회적 특성은 지적 장애에 비해 눈에 띄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 아동들에 비해 사회성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지체된 능력들이 누적되면 더욱 큰 사회적 결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필요하다(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박찬선·장세희(2018)는 느린학습자의 생애주기별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였다.

〈표 8〉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특징

영유아기의 특성	① 던지기, 잡기, 점프, 걷기, 뛰기 등의 대근육 운동기술에서 어색함을 보인다. 단추 채우기, 지퍼 잠그기, 필기구 잡기, 가위질, 풀칠 등의 소근육 운동기술이 서투르다. ② 음성학적 인식, 변별, 청각적 차례 및 혼합 포함과 같은 청각 처리에 어려움을 보인다. 예를 들어, 교사나 부모가 부르고 지시를 하면 한 번에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여 멍하게 있거나 엉뚱한 행동을 한다. ③ 시각변별, 기억,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로 인해 정확하게 네모, 세모 등의 도형을 따라 그리는 데 어려움을 보이고, 미술활동을 할 때도 도레에 비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게 표현한다. ④ 타인의 언어이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 혹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보인다. ⑤ 부주의하여 과제에 집중하기 어렵고 쉽게 산만해지며 한 가지를 끝까지 지속하거나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한다. 주의력과 집중력에 기복이 있다.
학령기의 특성	① 지시를 되풀이해서 말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한다. ② 청각 집중력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 긴 이야기를 듣는데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집중을 못해 이야기가 자주 끊어져서), 짧은 이야기에만 집중력을 보인다. ③ 수업시간에 빨리 착석하지 못하고 수업 준비를 재빠르게 하지 못한다. ④ 시각-공간 조직에 어려움이 나타나며, 자르거나 색칠하기 같은 정교한 활동이 서투르다. ⑤ 책을 읽을 때 단어나 줄을 빠뜨리거나 위치를 잊어버리고, 단어를 빼놓고 읽는 경우가 많다. ⑥ 쉽게 지치고 산만해진다.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하지 못한다. ⑦ 자신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억지를 부리고 떼쓰는 모습을 보인다. 다른 사람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 ⑧ 단체나 가족 활동에서 관계상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도레 간 타협하기, 협력하기,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등이 어렵다. ⑨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기억하지 못해 정보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⑩ 다른 아이들을 방해한다. ⑪ 친구나 어른과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다른 사람과 관계 맺기를 어려워한다. ⑫ 도레에 비해 미성숙하고 제한된 어휘를 사용하며, 심지어 자기 생각을 표현할 때 친숙한 단어도 잘 구사하지 못한다. ⑬ 발음이 부정확하고, 자기 생각을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 ⑭ 말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부탁하기, 주문하기, 의견 말하기, 질문하기 등을 어려워한다. ⑮ 단어와 문장을 왜곡한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⑯ 기본 읽기, 쓰기, 셈하기 성취 수준이 저조하다. 교과서 읽기, 받아쓰기, 연산 등에 있어서 도레보다 성취가 낮아 보충학습이 필요하다. ⑰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 ⑱ 도레에게 인기가 없다. ⑲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나타난다.
청소년기의 특성	① 반복된 학업실패로 인지적 무능감과 부정적 자기효능감 등 자아개념이 가장 문제가 된다. ②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성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좌절하는 아동이 많고, 집중력이나 충동성의 문제가 동반될 시 인터넷이나 게임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③ 이 시기에는 우울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가슴이나 어깨가 아프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눈이 잘 안 보이는 등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으로 병원을 수시로 다니게 되나 병원 진료 시에는 크게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 꾀병 부리는 아이로 낙인찍히기도 한다. ④ 가끔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갈망을 보이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면 망상, 환청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성인기의 특성	① 성인기에 접어들게 되면 직업과 사회적 부응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된다. ② 느린학습자들은 청소년기에 학업과정을 안정적으로 성취하지 못하여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이후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③ 주변에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면 타인에 대한 분노와 공격성이 표출될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2차적 부응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	---

▶ 출처 : 박찬선·장세희(2018) 내용을 발췌하여 재정리 pp. 49-58

3-3. 느린학습자의 교육

1) 교육서비스의 사각지대

느린학습자들은 그 또래 수준에 맞는 학습을 수행하기 어렵다. 특히 느린학습자는 자신의 학급 또는 그 아래 학년의 학급에서도 학습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적절한 상황판단 및 대처능력이 매우 취약하여, 따돌림의 주 대상이 되기도 한다(김진아, 2017). 느린학습자들은 지적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애매모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복지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방치되고 있다. 장애진단을 받은 또래 친구들은 특수교육을 받고 있고, 학교폭력 문제가 있거나 우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도 있고 문제 해결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학급에서는 교사 일 인당 학생 수가 많아 교사가 아이들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김진아, 2017). 따라서 느린학습자를 ‘일반 아동과 지적 장애 아동 사이에 존재하지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위험군’으로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과 특별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느린학습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아이로 찍히고 위축되면서 수업시간에도 발표를 못 하고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학부모들은 여러 가지 교육과 치료, 예체능 등 느린학습자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지만 부모와 아이 모두 지친 상태로 시간을 보내게 되며 고등학교 시기부터는 본격적인 진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하지만 누적된 상처로 은둔형 외톨이처럼 집에만 있게 되는 사례도 빈번하다(노컷뉴스, 2019. 01. 28일자 기사).

2) 교육 시스템의 부재

초중등교육법 제 28조에 국가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학자들은 느린학습자지원법과 같은 경계선 지적기능 관련법과 제도가 입안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다. 실태조사는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시간적, 재정적인 문제들이 뒤따른다. 그러나 이를 초기에 선별하여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초기의 문제 증상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선별과 진단에 소요되는 과정이 효율적

이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강옥려, 2016; 박현숙, 2018).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 공식적인 진단이 제도권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선별 도구의 부족과 더불어 대부분의 경계선급 지능 아동과 부모들은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진단을 꺼려 한다는 제약이 있다(권정민, 2014). 이를 위해서는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선별진단 도구 제공과 지도자료 제공이 필요하며, 낙인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을 인정하고 성장을 돕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취 및 또래 관계에서의 부적응이 심화되므로 조기 선별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진아, 2017).

학습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도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등 법제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시 느린학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느린학습자들의 개별 혹은 소집단 지도 시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이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일반교사들이 본인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데 역부족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느린학습자들의 지도와 지원이 책임감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옥려, 2016). 많은 수의 느린학습자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일찍부터 이들이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오히려 국가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면서도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박찬선, 장세희, 2018).

3)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수준

느린학습자를 어린 시절 조기에 발견하여 그 아동의 특성에 맞게 치료하고 교육하면 어느 정도는 인지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느린학습자들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EBS 심층취재(2014)에서는 서울 시내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경계선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48.3%가 경계선지능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 10명 중 1명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여 교사들의 인식개선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연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교사 양성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교육은 찾아보기 어렵다. 교직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은 2과목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아동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특수교육 전공에서도 느린학습자에 대해 통일된 용어조차 없었다(EBS 특집방송 ‘느린학습자를 아십니까’, 2014).

이 외에도 김진아(2017)의 질적연구에 의하면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애매모호하여 방치되고 있는 아동,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동, 두루뭉술하면서 낮은 지적 기능과 양호한 적응 기능의 아동, 사회성이 부족한 아동 등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연구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교사의 인식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바, 교사들의 인식 개선, 교사 연수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배려를 높여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4. 느린학습자의 자립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동자립지원단에서 2013년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계선지능 아동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아동자립지원단, 2013)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총 221개 기관 중 180개 기관(81.4%)의 종사자들은 경계선지능으로 진단받았거나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참여 기관의 전체 보호아동수 8,371명 가운데 1,310명(15.6%)이 경계선지능으로 진단을 받거나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연구에서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동이 다른 아동과 함께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45%였다.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조사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양육과 생활지도에 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자립준비나 퇴소 이후의 사후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보건복지부, 2017).

성인이 된 느린학습자들은 지능의 특성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바리스타, 제과제빵, 자동차 정비 보조 등 단순노무직 등에 한정되어 취업하지만 그마저도 장기간 근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집에 은둔하거나 어렵게 직업을 구했다 하더라도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면서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느린학습자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적응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는 시간제 일을 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판매직과 주방 보조직을 맡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3개월 후 그만두는 경향이 많았다(EBS 심층취재, 2014).

느린학습자와 유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나 느린학습자들은 고용에서조차 소외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직접 설립해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전용 체험형 훈련기관을 설치하여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는 기관도 설립되었다.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만들어 기업에서 의류를 제공하고 각 지점의 점장들을 파견해 발달장애인들에게 매장 정리, 계산, 판매 등의 직무훈련을 실시한다. 훈련 후에는 점장들이 직접 장애인들을 발탁해 채용하기도 한다. 이른바 훈련에서 채용까지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매일경제 2019. 04. 16 보도자료). 앞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느린학습자 역시 청소년 및 청년기에 실제적인 직업교육을 시작하고, 학교 졸업 이후 취업에 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이 절실하다.

느린학습자 A 사례) 유치원 교사인 김○○은 경계선지능 판정을 받았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경제적 어려움이 더해져 초등학교 때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됨. 낮은 지능과 어눌한 말과 행동 탓에 학창시절에 늘 놀림거리가 되었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끝에 유아교사 및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해 나갔고 어느덧 취업까지 성공해 낮은 지능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출처 : EBS(2014). '특집방송, 느린학습자를 아십니까?'에서 주요 내용 발췌 및 정리

이 사례와 같이 느린학습자들도 천천히,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충분히 직업교육이 가능하다. 이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자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언어적 이해 및 기본 상식을 훈련하게 하고, 알아야 하는 단어와 상식에 대해 이야기 하고 적는 연습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여러 번 되묻지 않도록 주의 깊게 듣고 기억하는 등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교사, 또래들에게 귀찮게 물어본다는 피드백을 받으면 더이상 묻지 않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단어들을 순서대로 불러주고 따라서 읽거나 외우는 연습 등을 함께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박찬선·장세희, 2018). 이외에도 성인이 된 느린학습자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고충도 제기되고 있다. 느린학습자라고 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군에 입대 후 부적응 문제 등을 토로하거나 관심병사로 분류되고 있다.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될 경우 고참과 동료들로부터 왕따, 무시를 당하게 되어 자살충동, 우울증으로 인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EBS 심충취재, 2014).

느린학습자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 이들의 성장과 자립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느린학습자들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될지 아니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지는 단순히 개인의 몫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사회적 노력, 그리고 정책적 지원들이 병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3-5. 느린학습자 교육 및 자립을 위한 제안

강옥려(2016)는 느린학습자를 공식적으로 진단하여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진단체제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수조사가 실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느린학습자가 적잖은 숫자라는 것을 알리고, 이들의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켜서 사회적 문제로 접근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학습할 권리 차원에서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법을 제정, 정규 교육과정에 개별이나 소집단 지도 등의 시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이들의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교육부는 물론 시·도교육청, 학교 차원에서 각각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느린학습자 지도와 지원이 책임감 있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성별로 차별화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경계선지능, 단순부진, 난독증 등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사양성 과정에 대한 의견도 덧붙이고 있는데 느린학습자를 포함한 다양한 요구를 지닌 학습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 자질 함양을 위해 특수교육 이외에 별도의 강좌를 개설하여 모든 예비 교사들이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느린학습자와 관련된 교육실습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일반 아동과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이들을 위해 새로운 특별지원교육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학교급별 초, 중, 고는 물론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교육 측면에서는 전에 배웠던 자료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자료를 일관성 있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일반화를 위해서 새로운 정보 혹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실행하는지 충분히 연습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배울 기회를 더 제공하고, 적절한 속도를 유지해야 하며 더불어 직업교육,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직업교육으로 이들의 소질, 적성, 강점들을 파악하고 요구를 조정하여 미리 직업교육을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자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면 느린학습자 본인의 자립이 가능해져 본인은 물론 그 가족, 사회 모두 더불어 행복한 삶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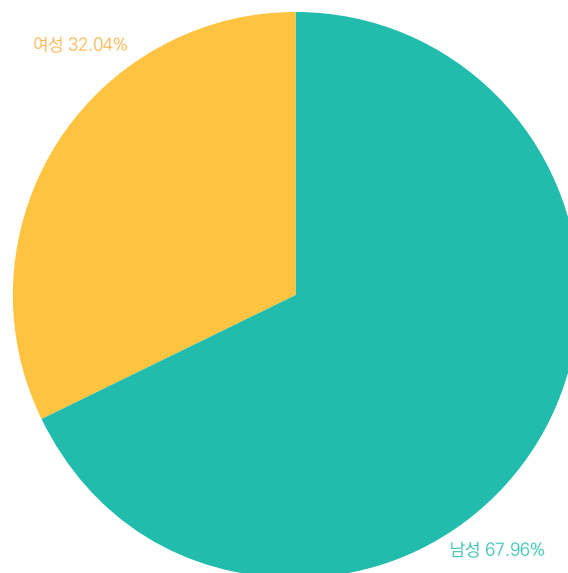
4. 느린학습자 이해당사자의 정책 요구 조사 결과

4-1.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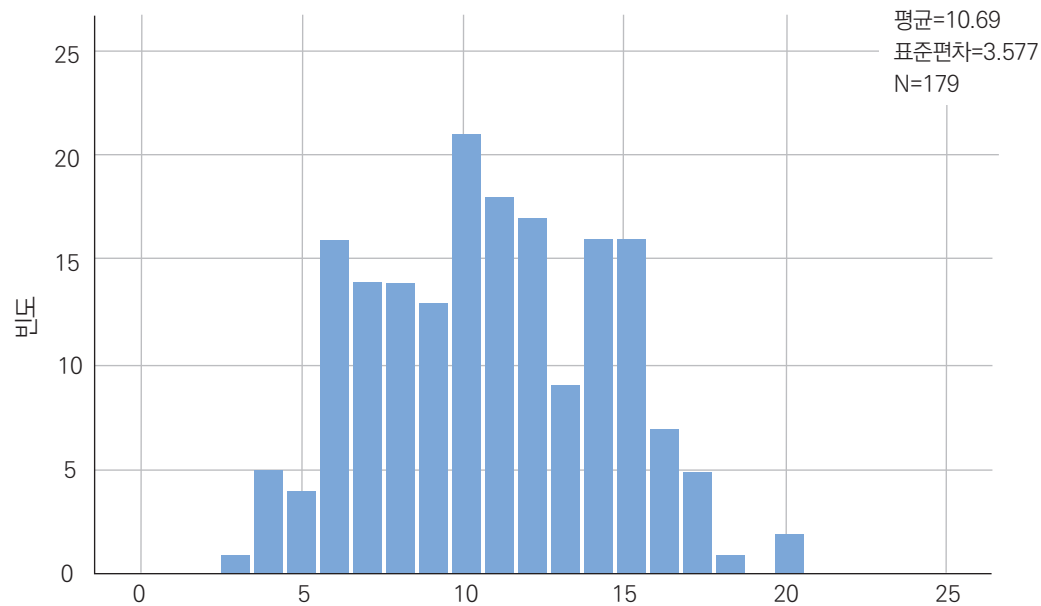
- 조사대상
 -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
- 응답자 특성
 - 남성 11명, 여성 156명, 총 167명이 설문에 참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그림 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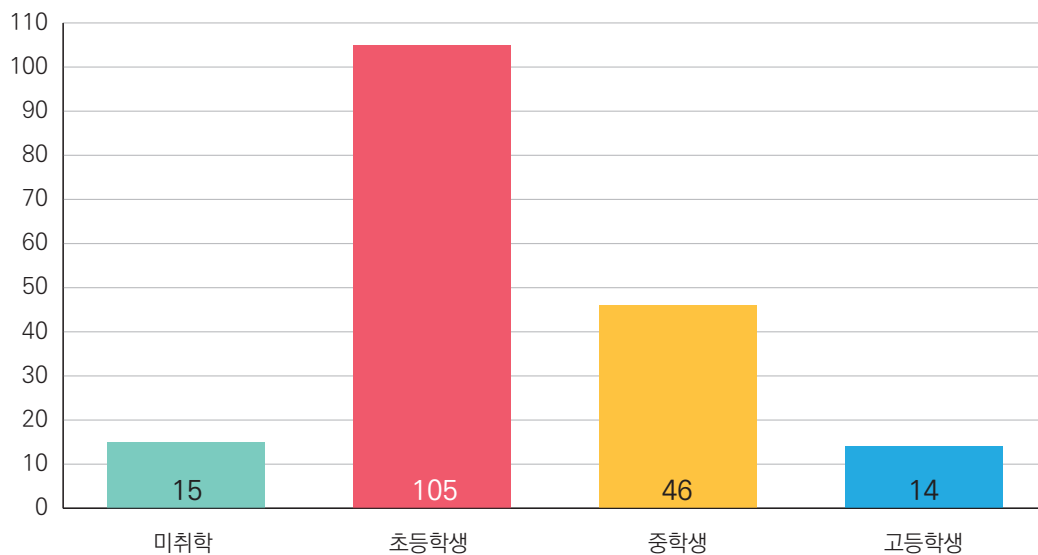
응답자의 느린학습자 자녀 성별 분포는 남성이 123명, 여성이 58명임.

〈그림 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만으로 몇 살입니까?



응답자의 느린학습자 자녀 연령은 만 3세에서 만 20세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10.69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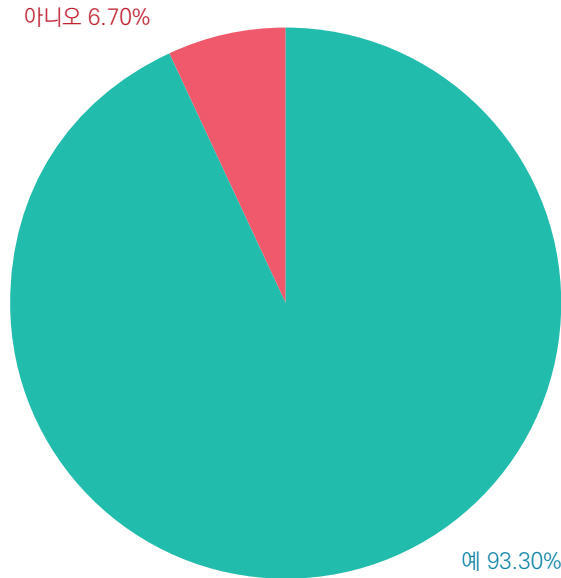
〈그림 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생애주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응답자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미취학 15명, 초등학생 105명, 중학생 46명, 고등학생 14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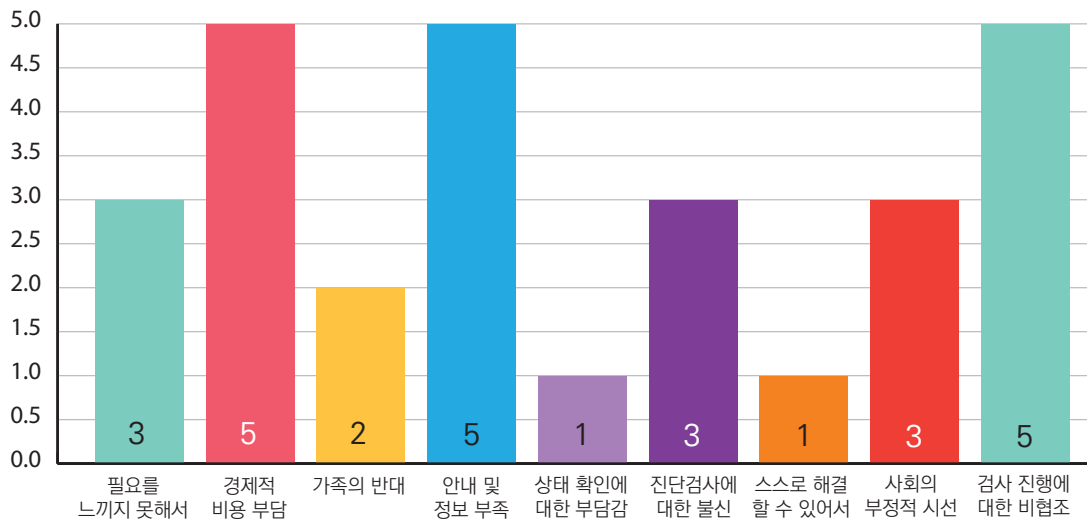
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응답이 많았음.

〈그림 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느린학습자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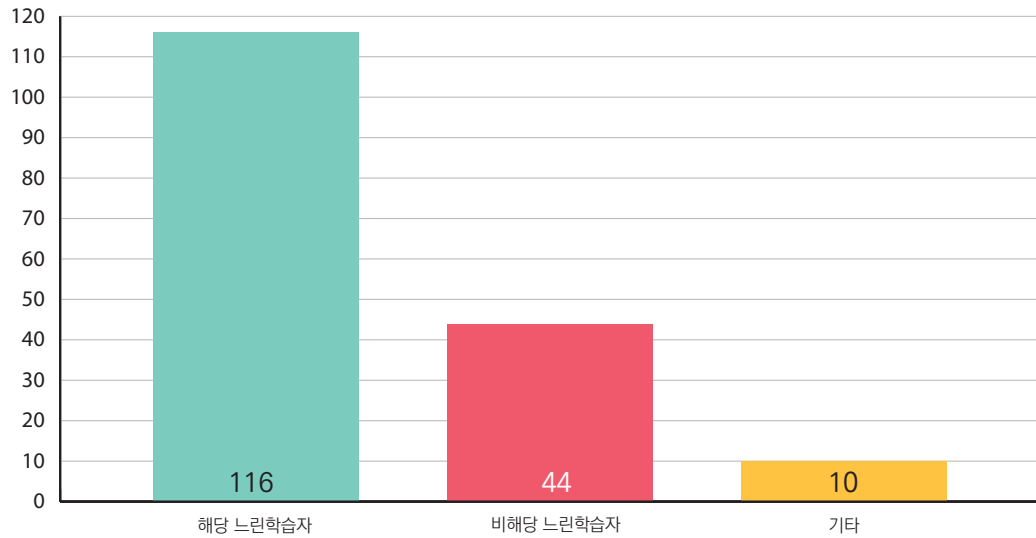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은 자녀는 167명, 그렇지 않은 자녀는 12명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느린학습자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경제적 비용 부담, 안내 및 정보 부족, 검사 진행에 대한 자녀의 비협조(5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진단검사에 대한 불신, 사회의 부정적 시선(3명)이 다음으로 많았음.

〈그림 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경계선지능 범주에 해당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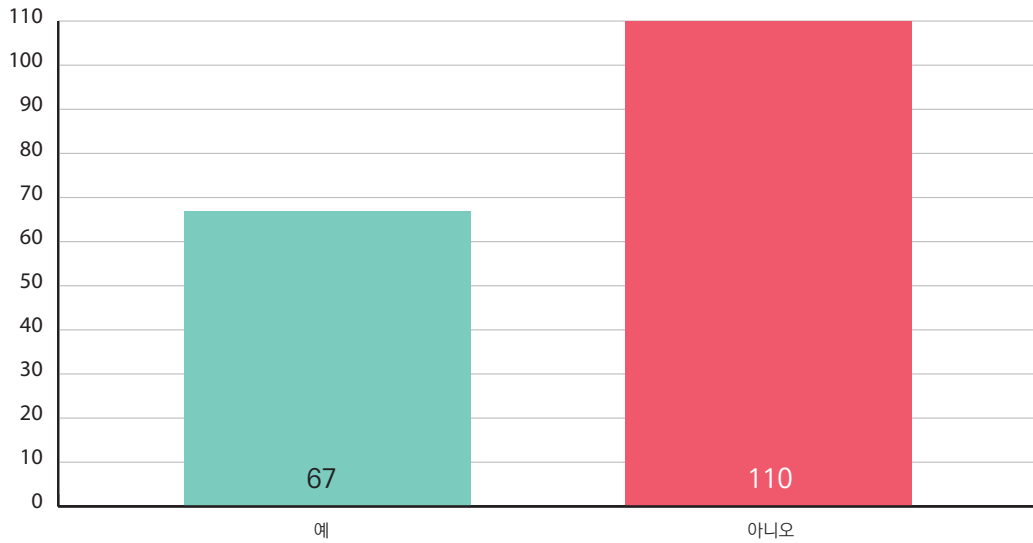
경계선지능 범주에 해당하는 자녀가 116명, 그렇지 않은 자녀가 44명으로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비해당과 기타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느린학습자를 단순히 경계선지능에 한정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됨. 지능지수는 느린학습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음.

〈그림 7〉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특수교육대상자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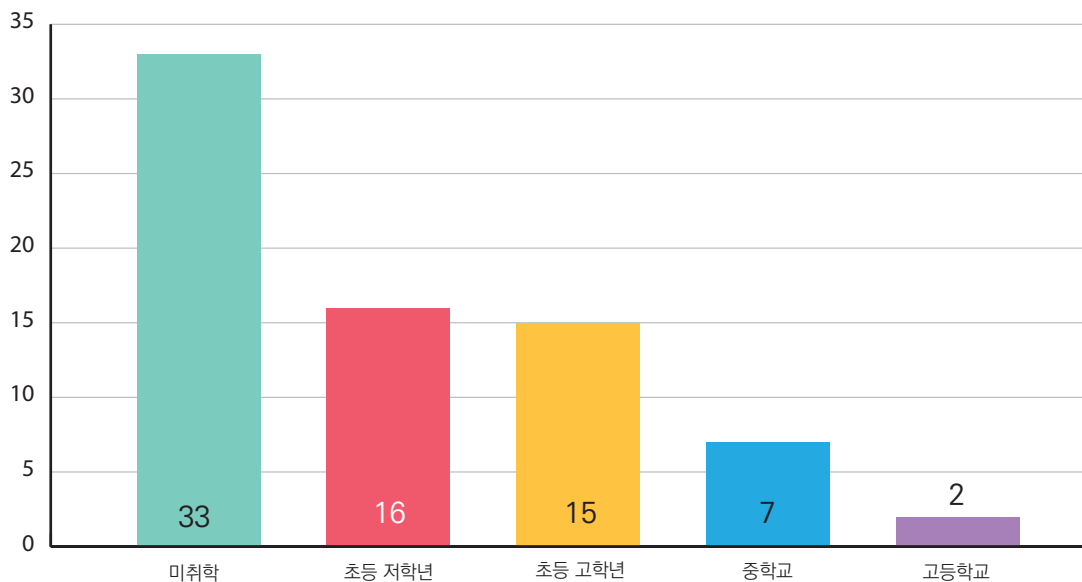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95명, 그렇지 않은 자녀가 85명으로 확인됨.

〈그림 8〉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장애등록을 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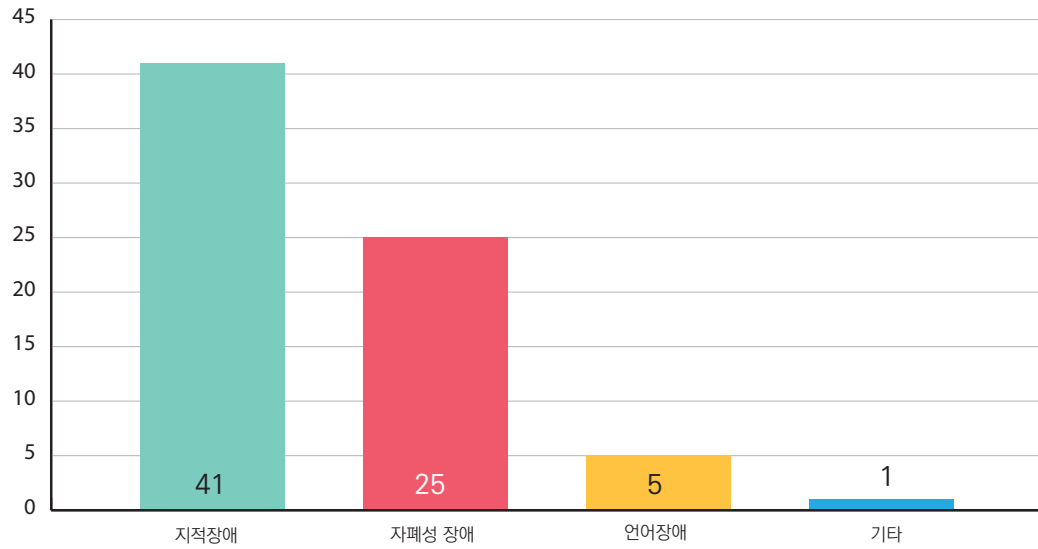
장애등록을 한 자녀가 67명, 그렇지 않은 자녀가 110명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이는 응답자 자녀의 대부분이 아직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군대와 취업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수록 장애등록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남.

〈그림 9〉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애등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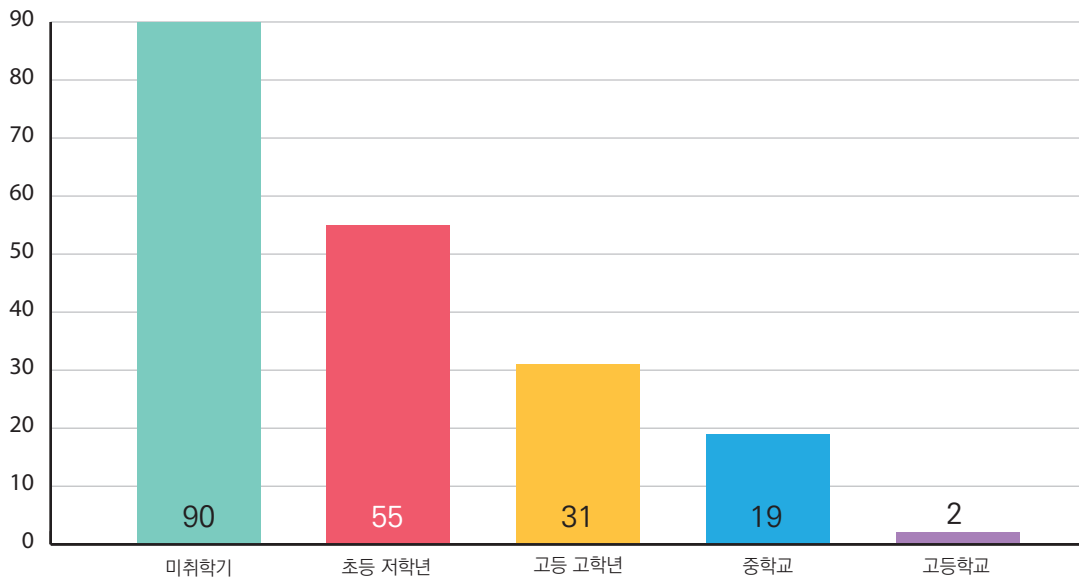
장애등록 시기는 미취학 33명, 초등 저학년 16명, 초등 고학년 15명, 중학교 7명, 고등학교 2명으로 대체로 진단검사를 받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애등록 유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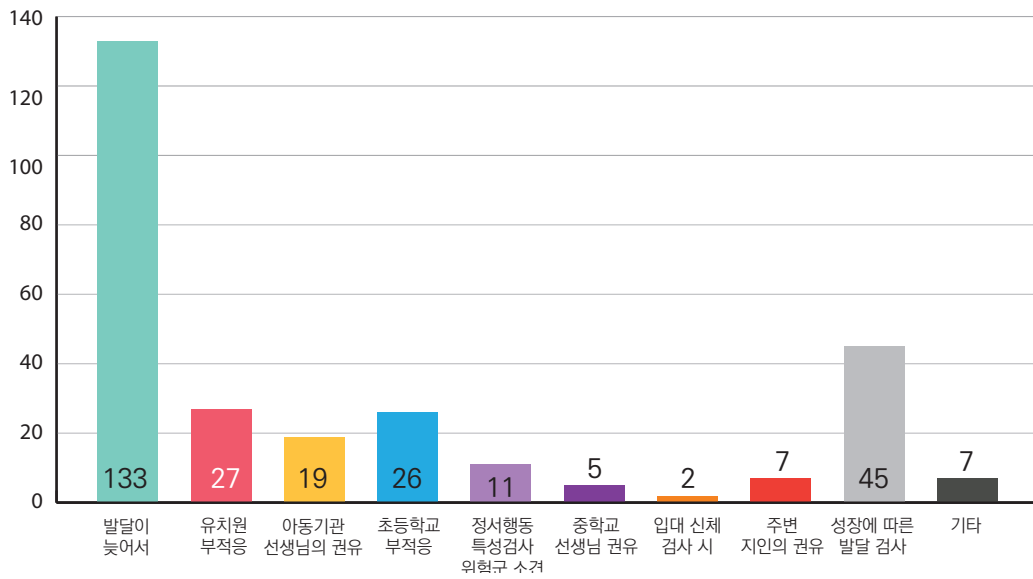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애등록 유형은 지적 장애 41명, 자폐성 장애 25명, 언어장애 5명으로 지적 장애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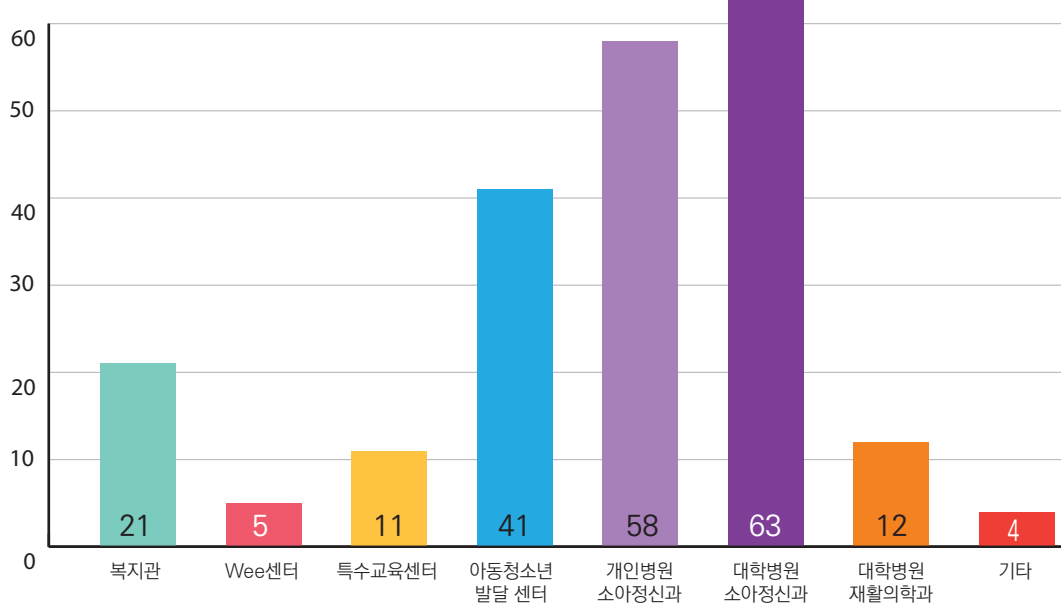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의 진단검사 시기는 미취학기 90명, 초등 저학년 55명, 초등 고학년 31명, 중학생 19명, 고등학생 2명으로 주로 미취학 혹은 초등학교 시기에 진단검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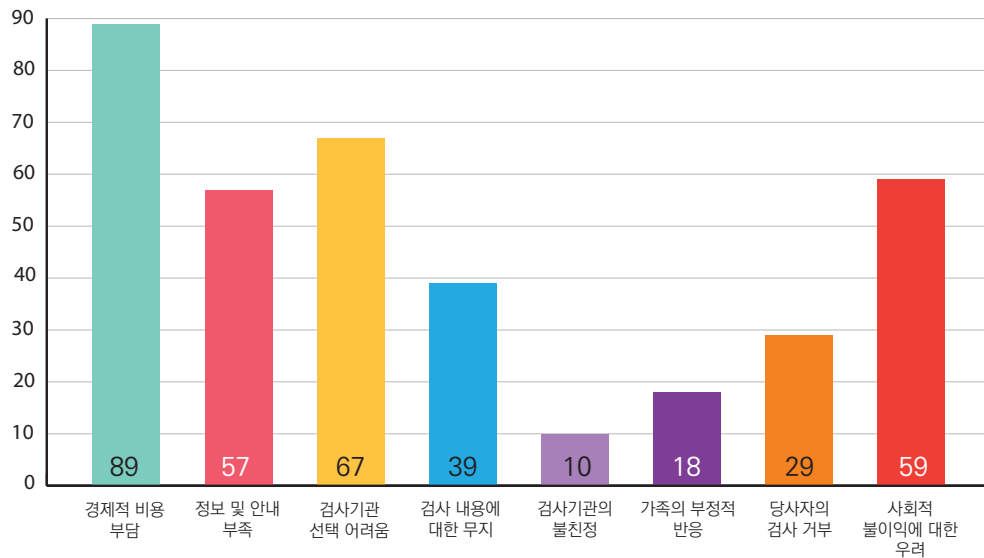
진단검사를 받은 이유로는 발달이 늦어서(133명)가 가장 많았고, 성장에 따른 발달검사(45명)이 다음으로 높았다. 유치원이나(27명) 초등학교(26명) 부적응 혹은 아동기관 선생님의 권유(19명) 또한 높게 나타남.

〈그림 1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시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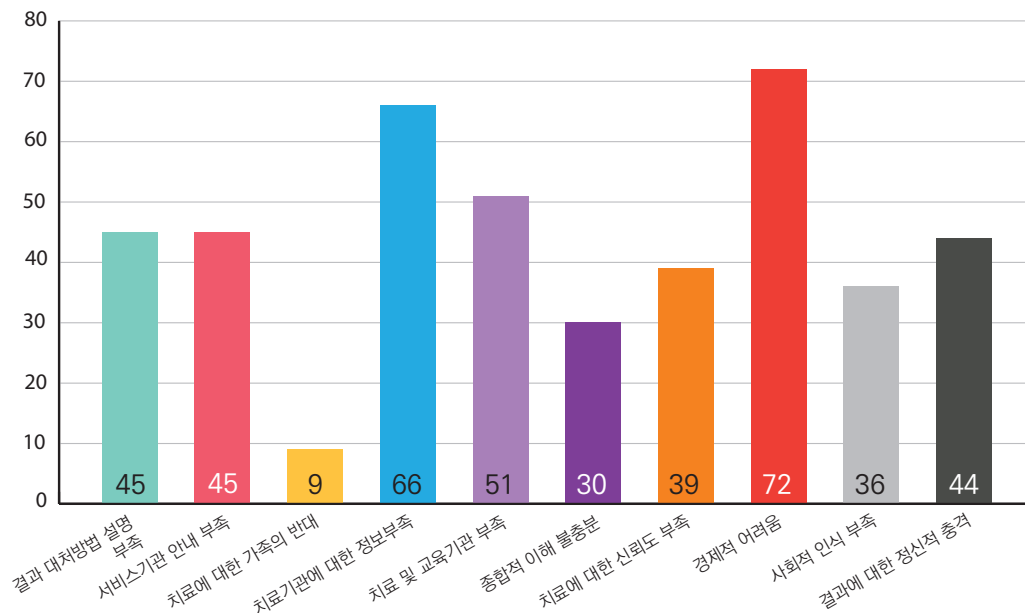
진단검사를 시행한 장소는 대학병원 소아정신과(63명), 개인병원 소아정신과(58명), 아동청소년발달센터(41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복지관(21명)이나 대학병원 재활의학과(12명), 특수교육센터(11명)라는 응답도 확인됨.

〈그림 1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겪은 불편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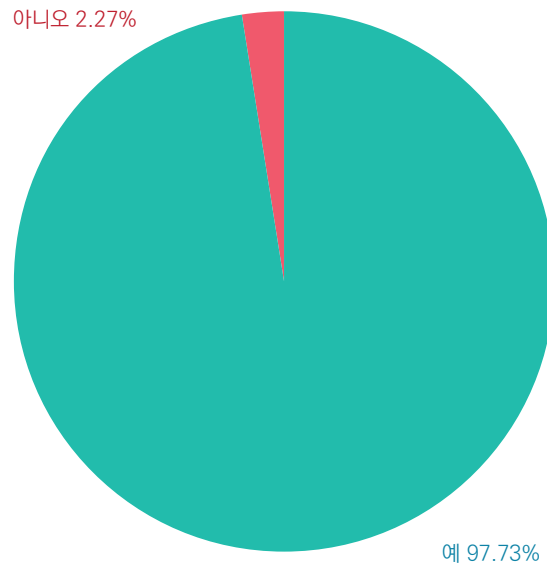
진단검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경제적 비용 문제(89명)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검사기관 선택의 어려움(67)이나 정보 및 안내 부족(57명),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59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느린학습자 부모의 검사 내용에 대한 무지(39명)와 느린학습자 당사자의 검사 거부(29명) 또한 검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1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진단 검사를 받은 후 겪은 불편과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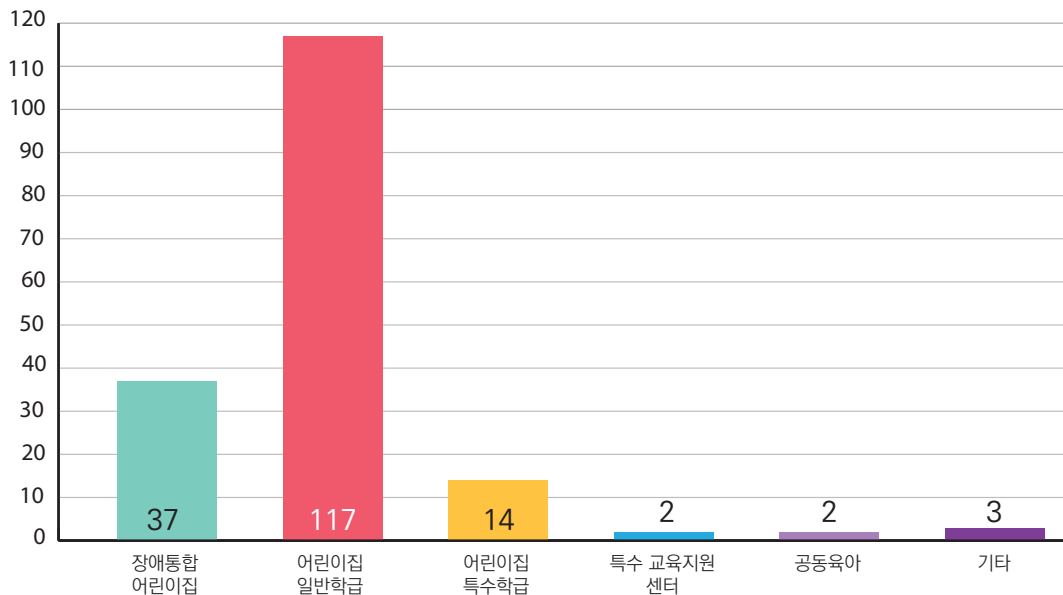
진단검사를 받은 후의 불편함으로는 경제적 어려움(72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치료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66명)과 치료 및 교육기관 부족(51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검사 이후의 대처에 대한 설명 부족(45명)과 서비스기관 안내 부족(45명)과 더불어 검사 결과에 대한 충격(44명) 또한 어려움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1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는 유아교육 기관을 다녔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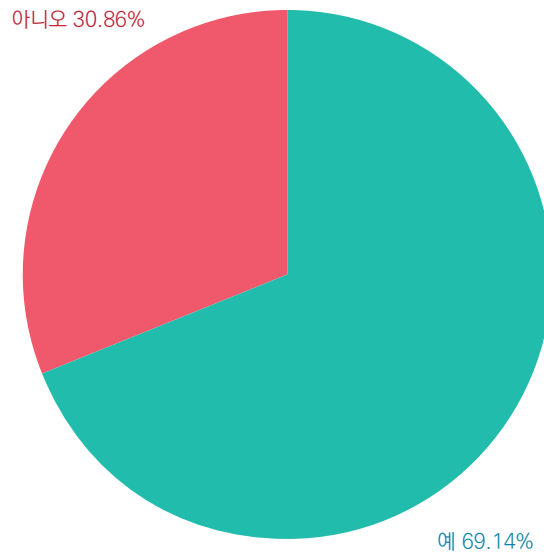
유아교육 기관을 다닌 느린학습자 자녀는 172명, 그렇지 않은 자녀는 4명으로 대부분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유아교육 기관을 다닌 것으로 확인됨.

〈그림 17〉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주되게 다니거나 다녔던 유아교육 기관은 어떤 형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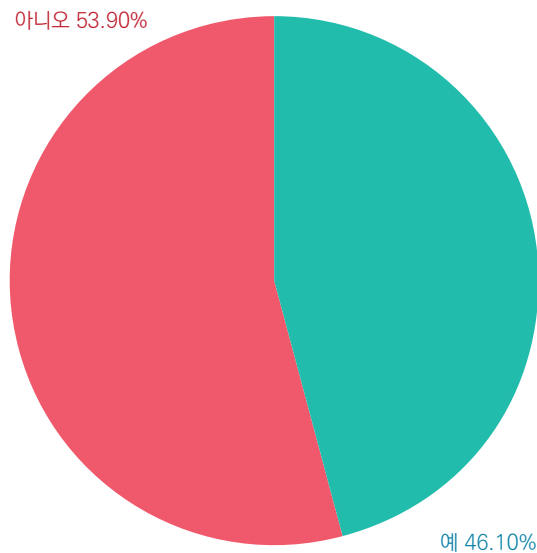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니거나 다녔던 유아교육 기관은 어린이집 일반학급이라는 응답이 1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37명, 어린이집 특수학급이 14명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8〉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으로부터 조언이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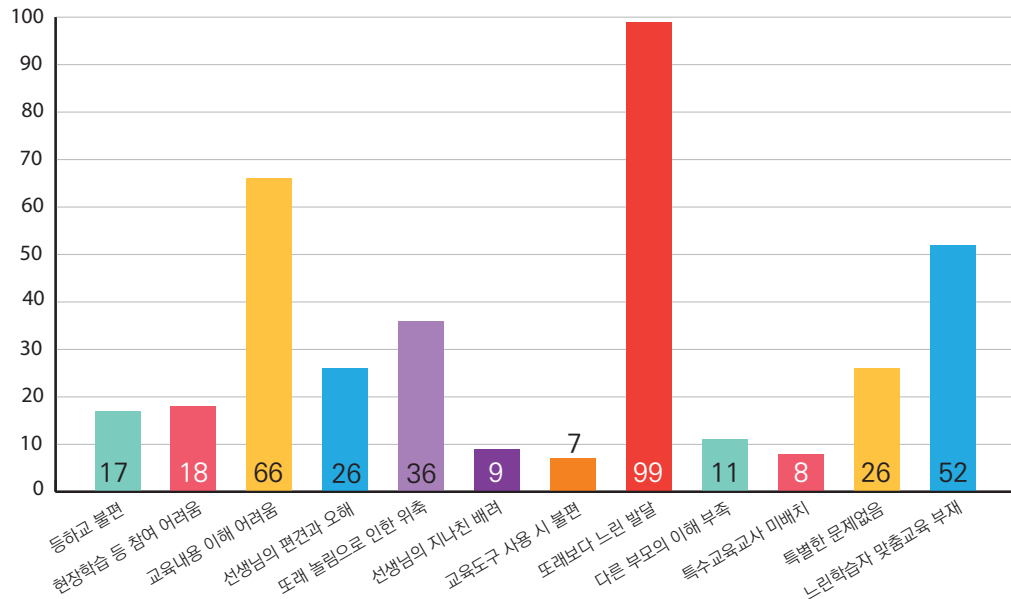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 기관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는 응답은 121명,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54명으로 조언을 받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19〉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가 느린학습자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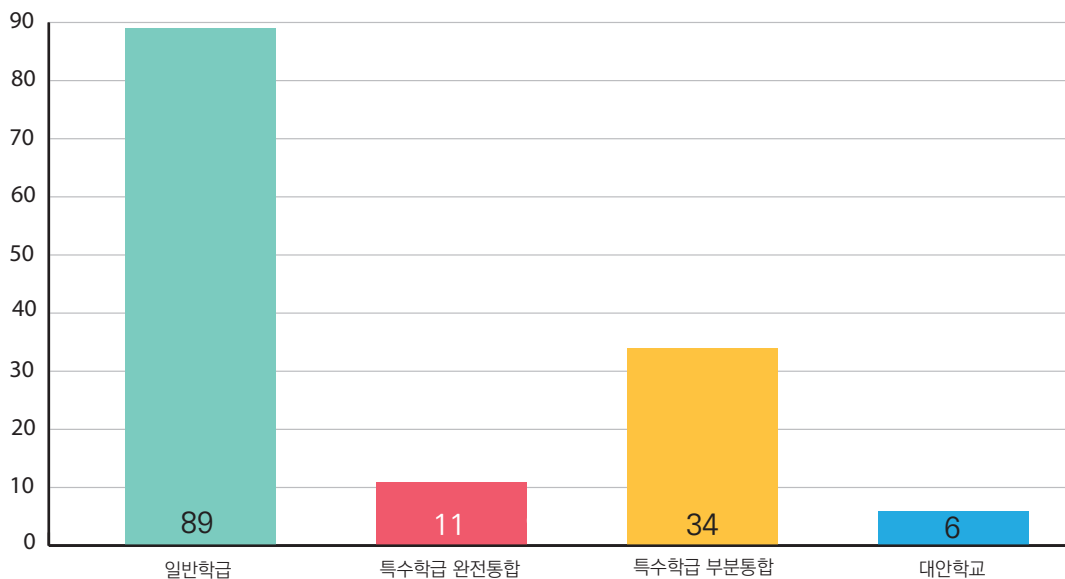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느린학습자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 같았다는 응답은 71명, 그렇지 않았다는 응답은 83명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겪은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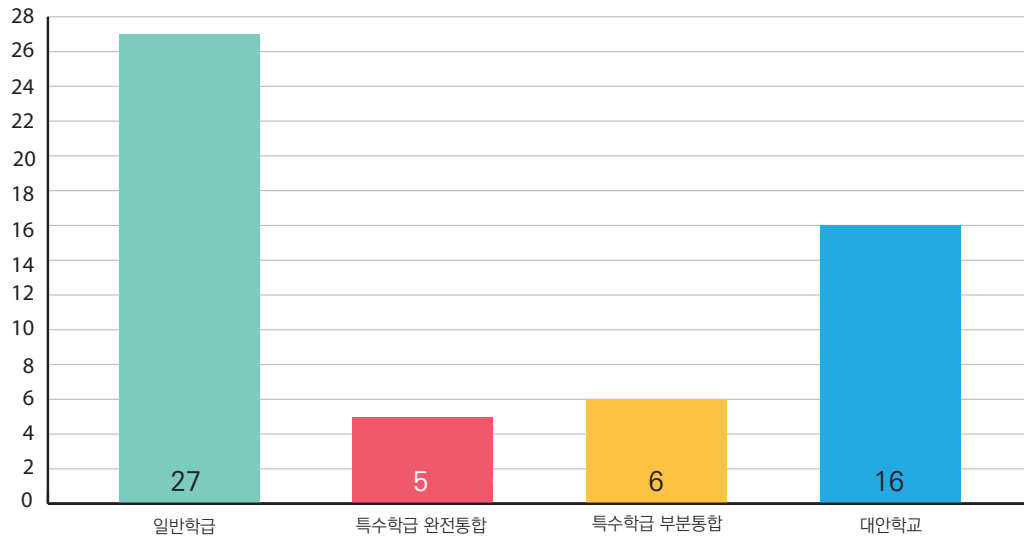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유아교육 기관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또래보다 느린 발달(99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육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66명), 느린학습자 맞춤교육이 없다는 점(52명) 또한 어려움으로 지적되었음. 또래 놀림으로 인한 위축(36명)과 선생님의 편견과 오해(26명)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남.

〈그림 2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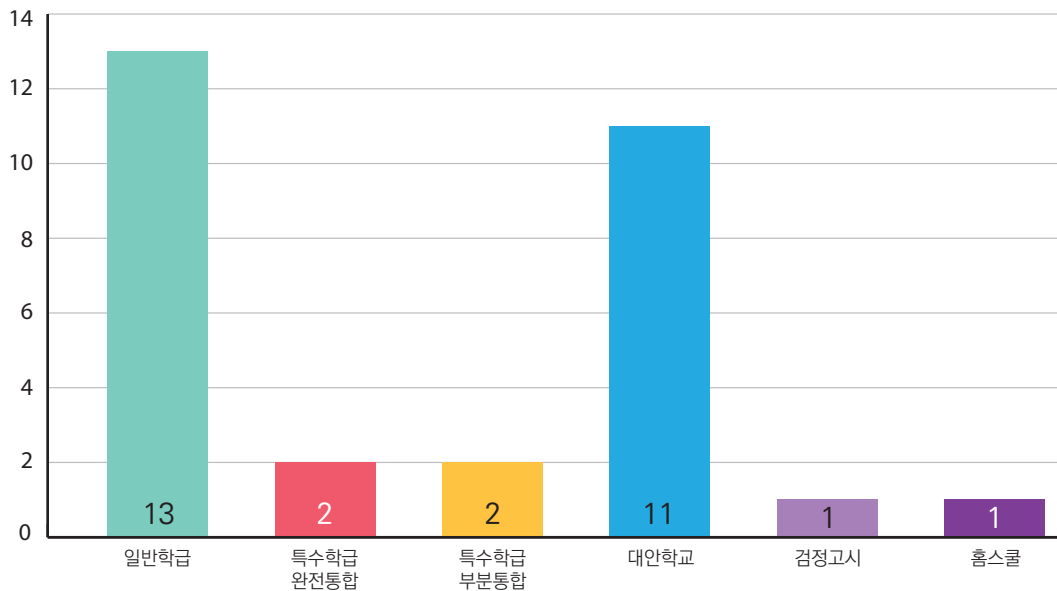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학급 형태는 일반학급(89명) > 특수학급 부분통합(34명) > 특수학급 완전통합(11명) > 대안학교(6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중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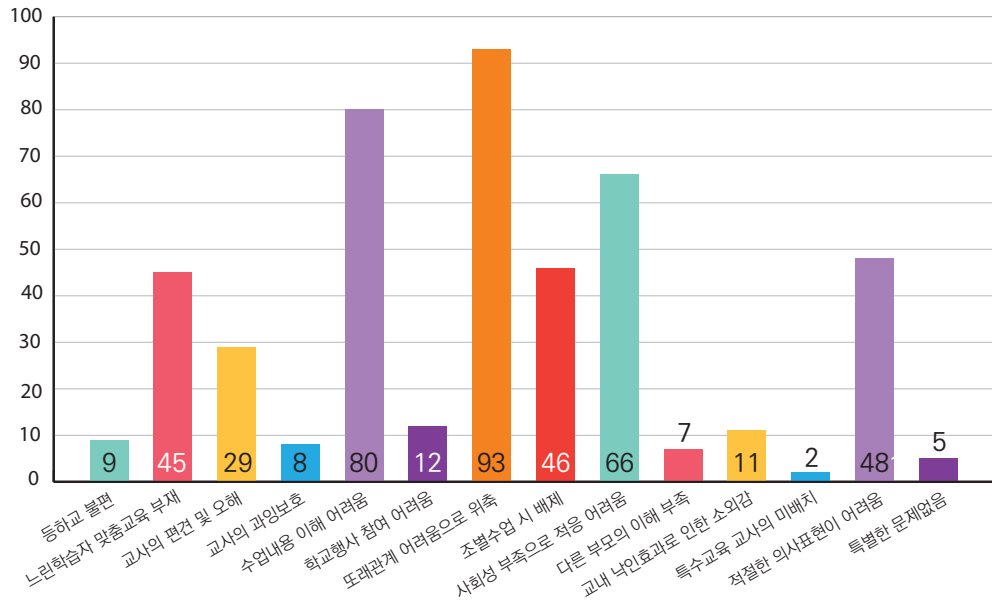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중학교 학급 형태는 일반학급(27명) > 대안학교(16명) > 특수학급 부분통합(6명) > 특수학급 완전통합(5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2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학교는 어떤 형태입니까?(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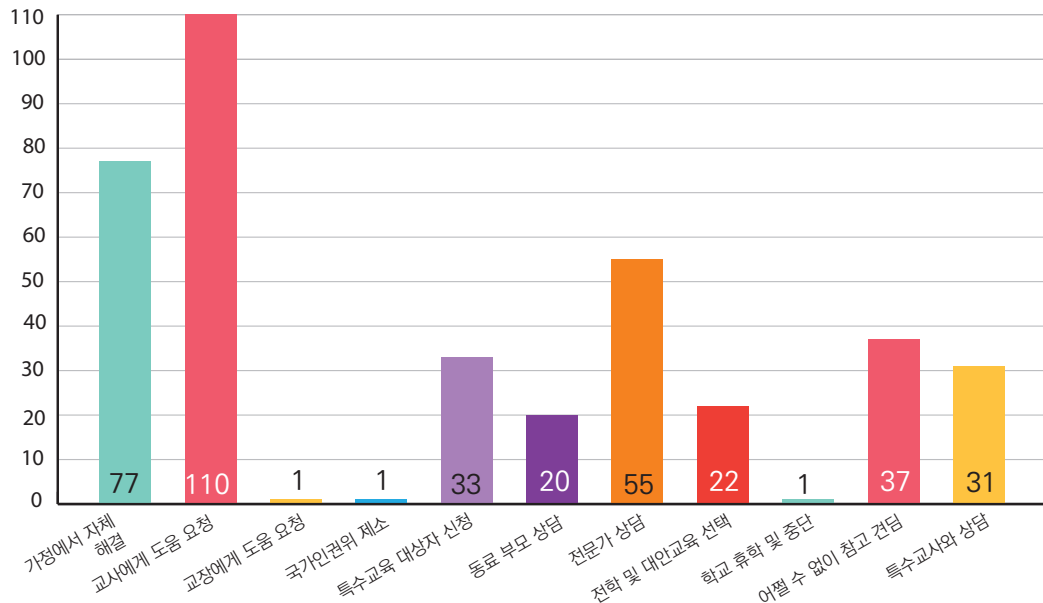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급 형태는 일반학급(13명) > 대안학교(11명) > 특수학급 완전통합, 특수학급 부분통합(2명) > 검정고시, 홈스쿨(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24〉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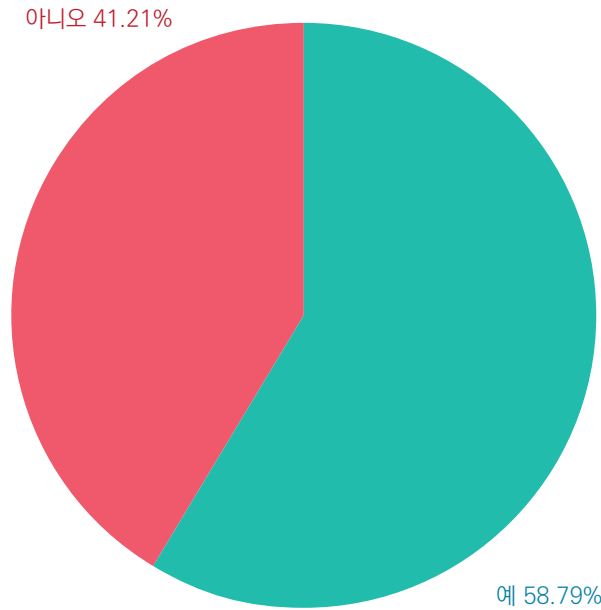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또래관계 어려움으로 인한 위축(9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수업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80명) 사회성 부족으로 적응이 어렵다는 점(66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25〉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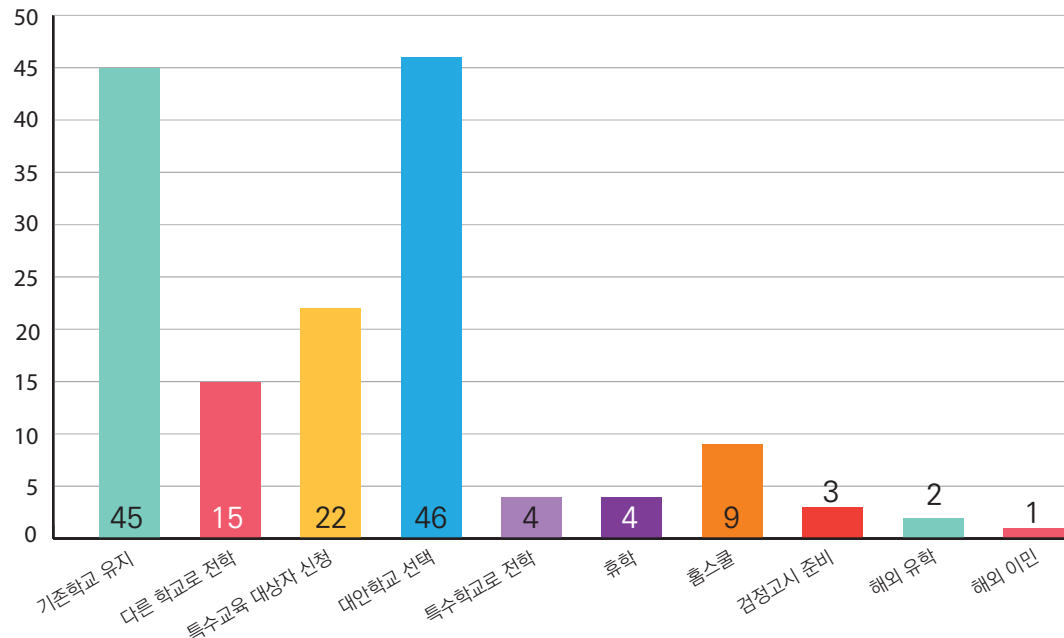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110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해결(77명)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해결(55명)한다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참고 견딘다는 응답(37명) 또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6〉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전학 등을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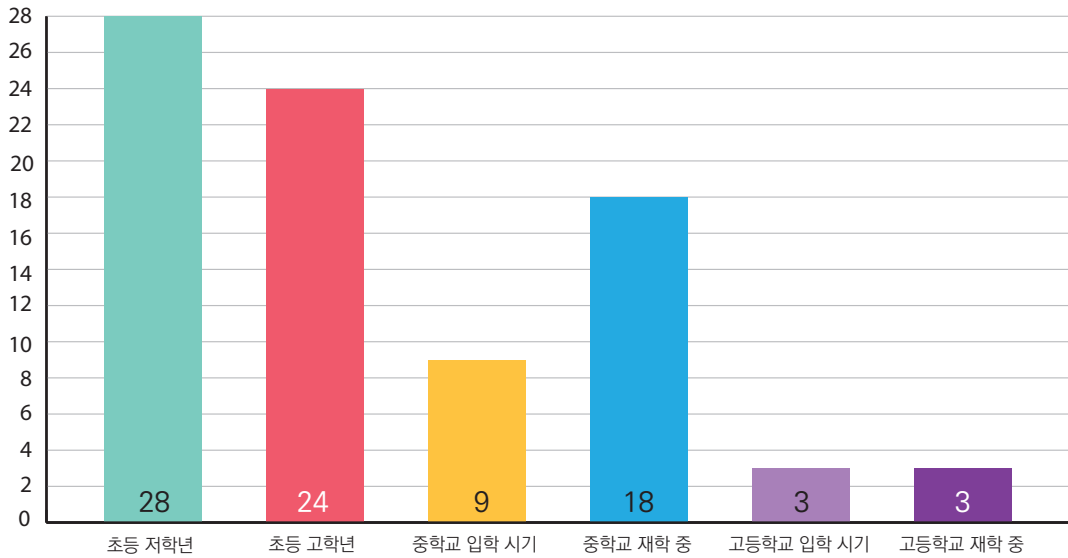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 전학을 고려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97명, 고려한 적 없다는 응답이 68명으로 전학을 고려한 느린학습자 부모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7〉 전학이나 학교 중도 포기 등을 고려하며 어떤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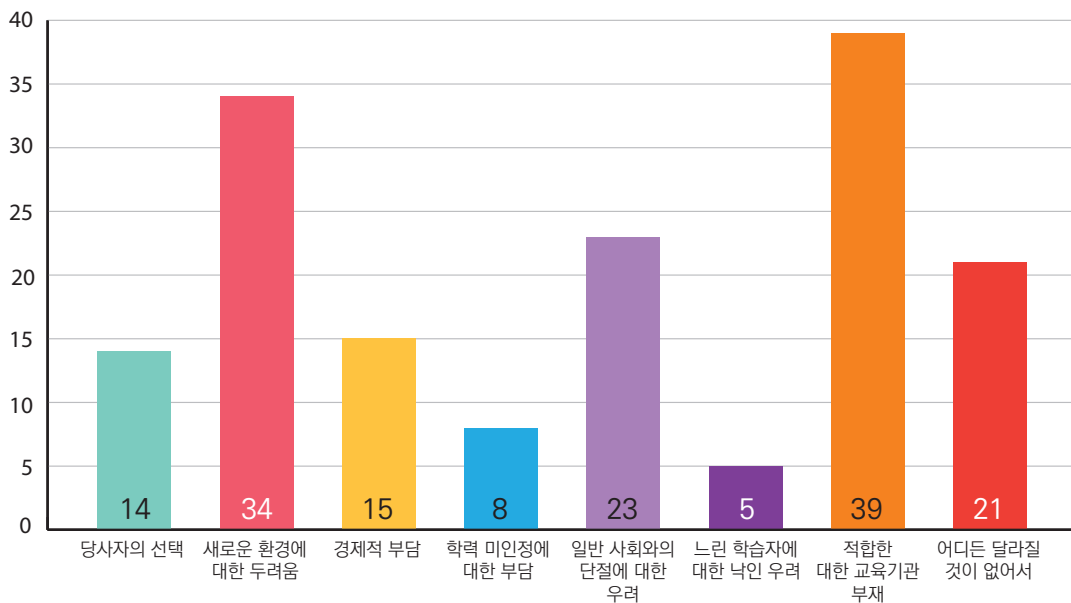
전학이나 학교 중도 포기를 고려하며 내린 결정으로는 대안학교 선택(46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존학교 유지(45명) 또한 높게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를 신청(22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15명)가 다음으로 많았음.

〈그림 28〉 위와 같은 결정을 실행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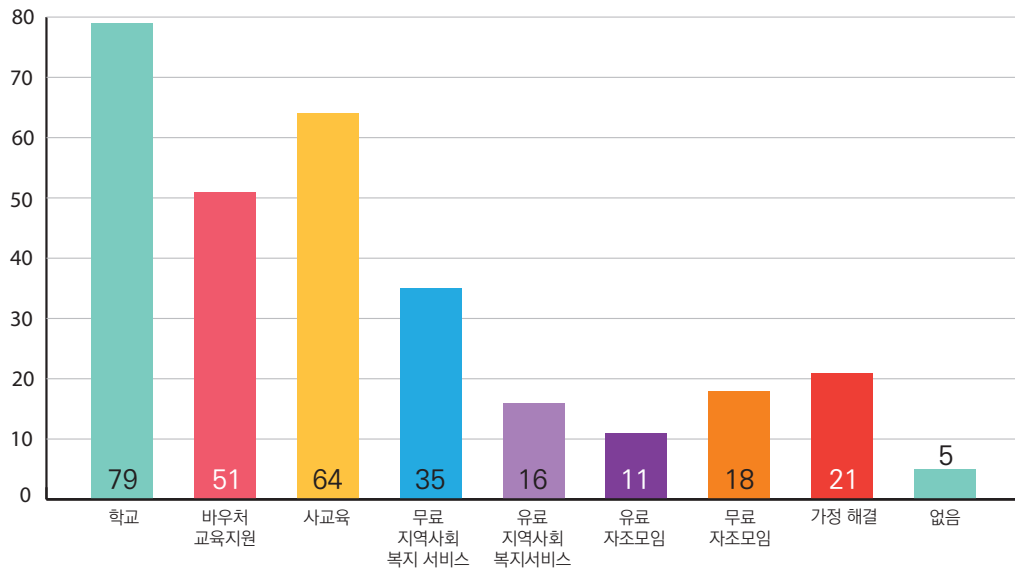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의 전학 혹은 학교 중도 포기 등을 결정한 시기는 초등 저학년(28명) > 초등 고학년(24명) > 중학교 재학 중(18명) > 중학교 입학 시기(9명) > 고등학교 입학 시기, 고등학교 재학 중(3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29〉 기존학교 유지를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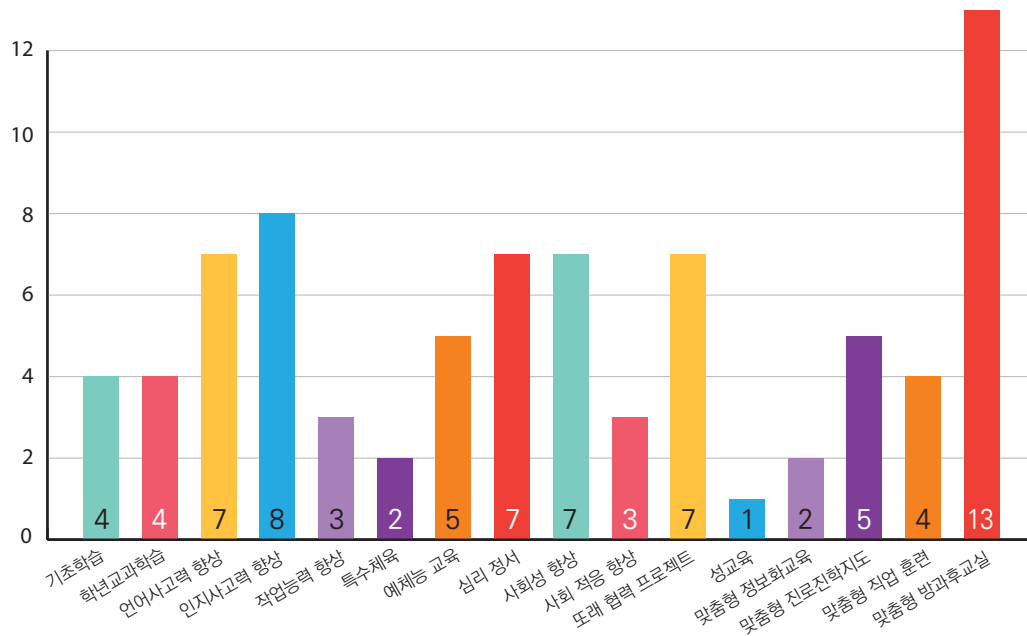
기존 학교 유지를 결정한 이유로는 적합한 대안교육기관이 없다(39명)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34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일반 사회와의 단절에 대한 우려(23명)와 어디든 달라질 것이 없을 것 같다(21명)는 냉소적인 반응 또한 확인됨.

〈그림 30〉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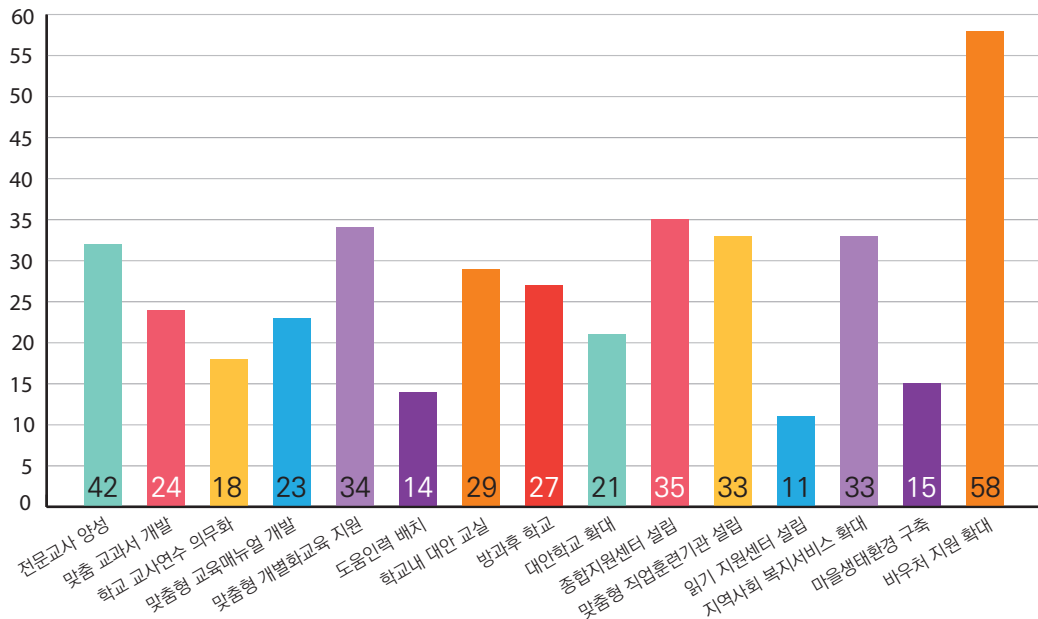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로는 학교(79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교육(64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바우처 교육지원(51명)과 무료 지역사회복지서비스(35명)에 대한 필요도 확인됨.

〈그림 31〉 느린학습자 교육지원서비스별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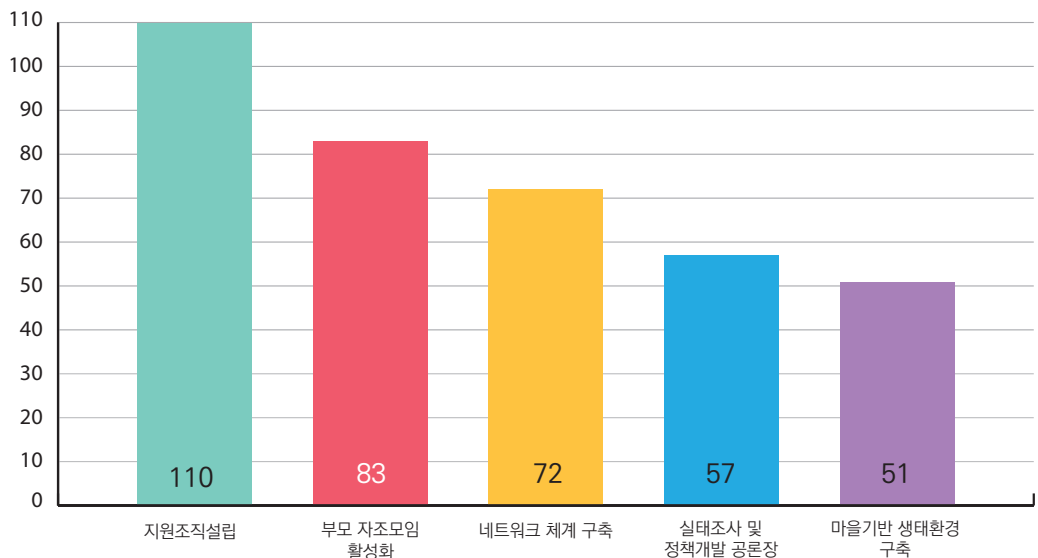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서비스로는 맞춤형 방과 후 교실(1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이외에도 인지교육(8명) 및 언어교육(7명), 또래관계 및 사회성 향상(7명) 등에 대한 필요가 확인됨.

〈그림 32〉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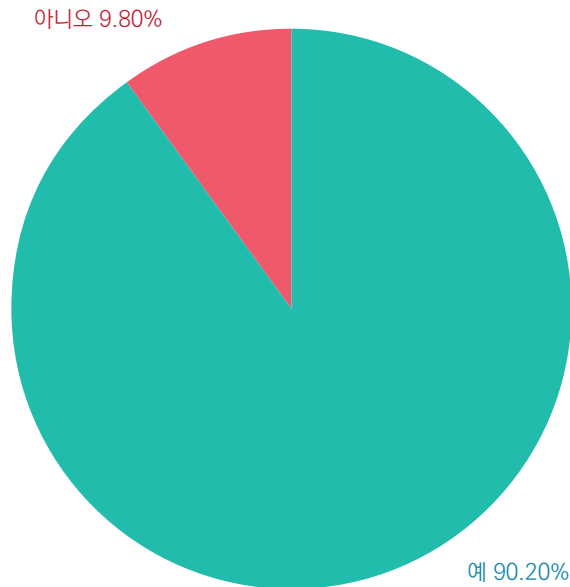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제도 정책으로는 바우처 지원 및 확대(58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전문교사 양성(42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종합 지원센터 설립(35명)과 맞춤형 교육 지원(34명), 맞춤형 직업훈련기관(33명), 지역사회 복지서비스(33명)에 대한 필요 또한 확인됨.

〈그림 33〉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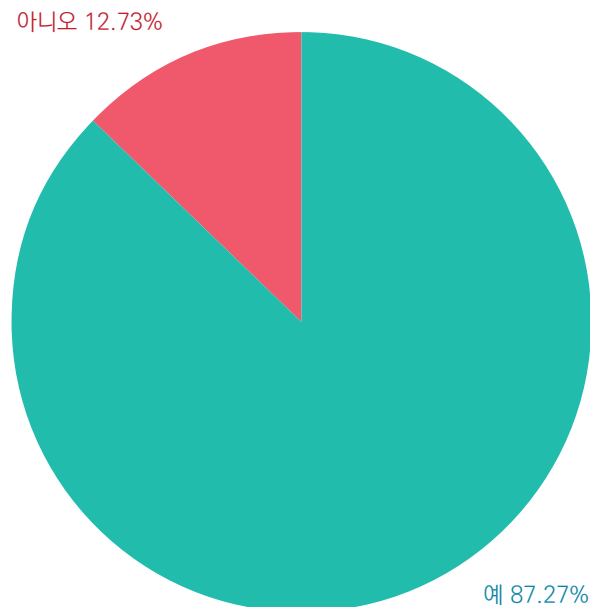
느린학습자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문항에는 지원 조직 설립(110명) > 부모 자조모임 활성화(83명) > 네트워크 체계 구축(72명) >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공론장(57명) > 마을 기반 생태환경 구축(51명) 순으로 응답이 나타남.

〈그림 34〉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지원 조직을 설립한다면 회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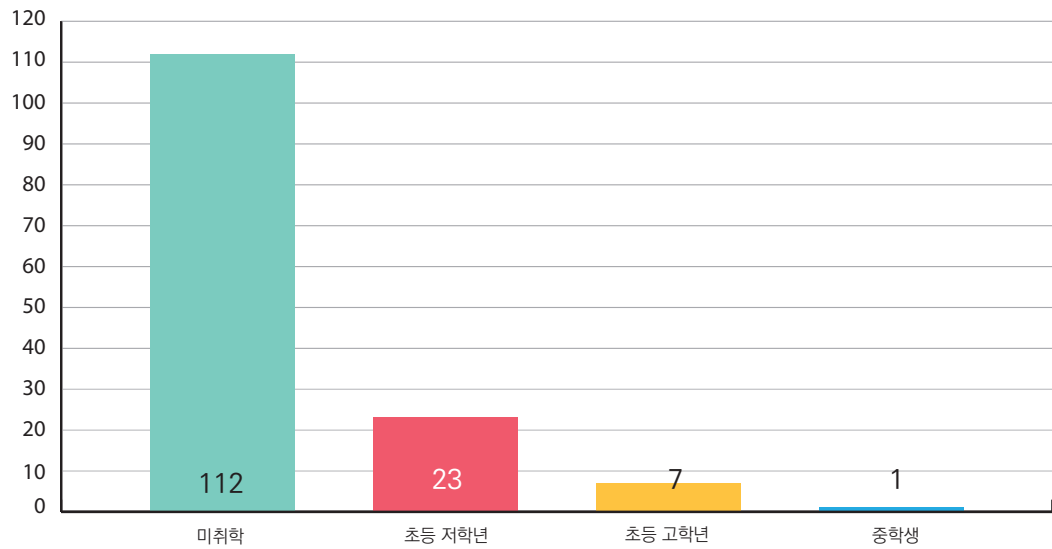
제도 및 정책 마련을 위해 지원 조직을 설립한다면 회원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38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5명으로 대부분이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5〉 귀하의 자녀는 미취학 및 학령기 발달치료를 진행하셨습니다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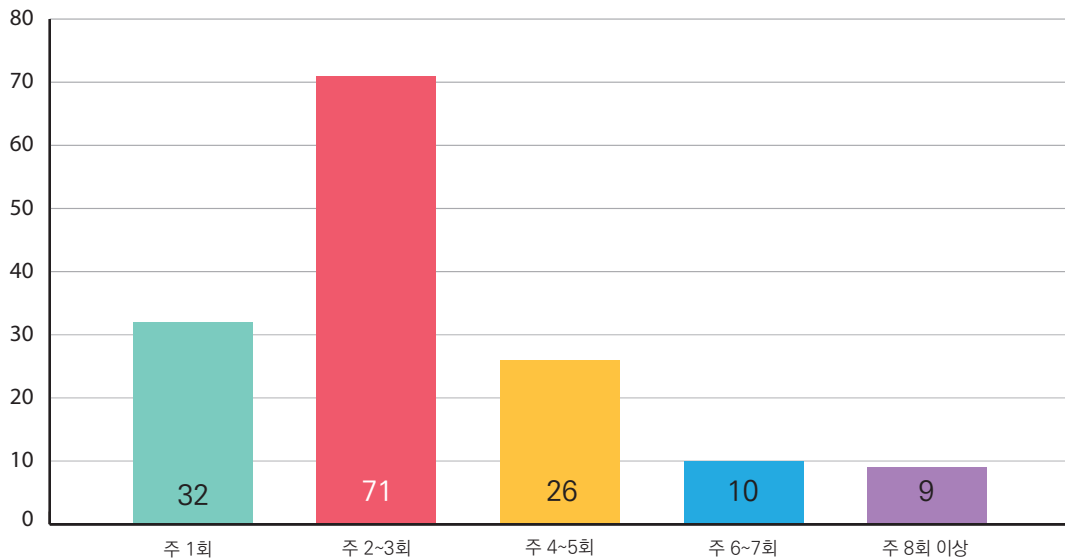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가 미취학 및 학령기 발달치료를 진행했다는 응답은 144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1명으로 대부분이 발달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36〉 발달치료를 진행하셨다면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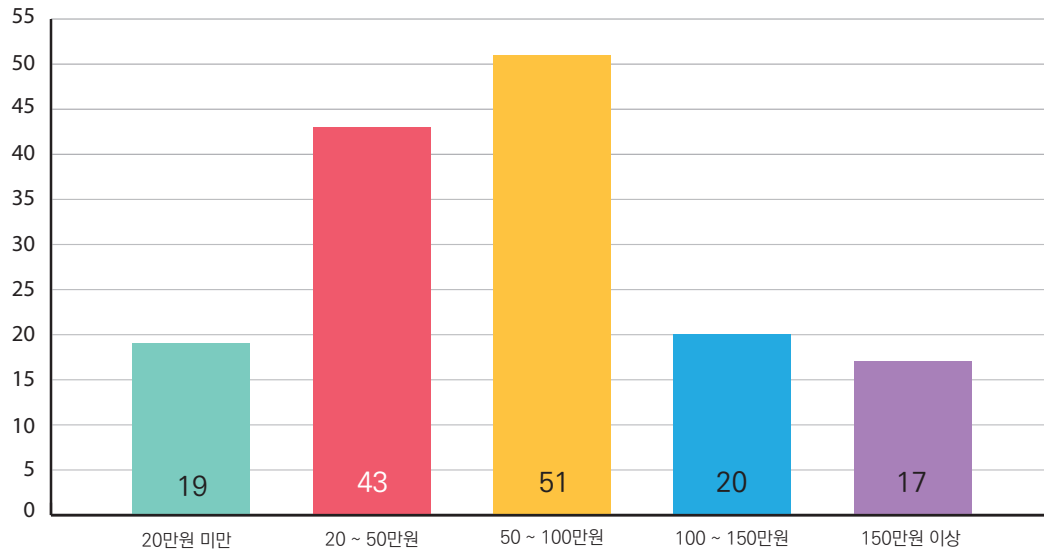
발달치료를 진행한 시기는 미취학(112명) > 초등 저학년(23명) > 초등 고학년(7명) > 중학생(1명) 순으로 대부분 미취학 및 초등학교 시기에 시작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37〉 발달치료를 평균 주 몇 회를 이용하셨습니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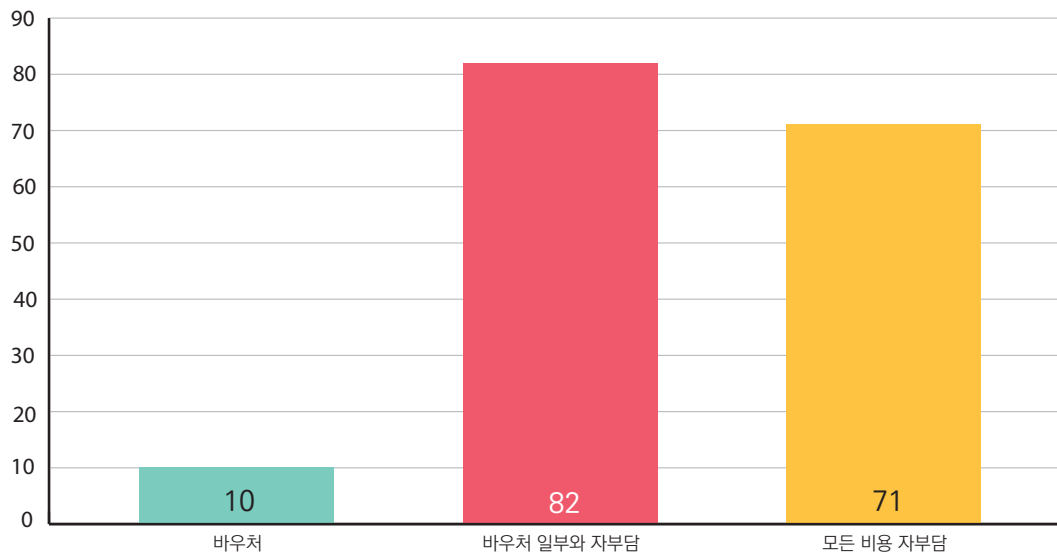
발달치료 이용 횟수는 주 2~3회(71명) > 주 1회(32명) > 주 4~5회(26명) > 주 6~7회(10명) > 주 8회 이상(9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38〉 발달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한 달 평균 얼마나 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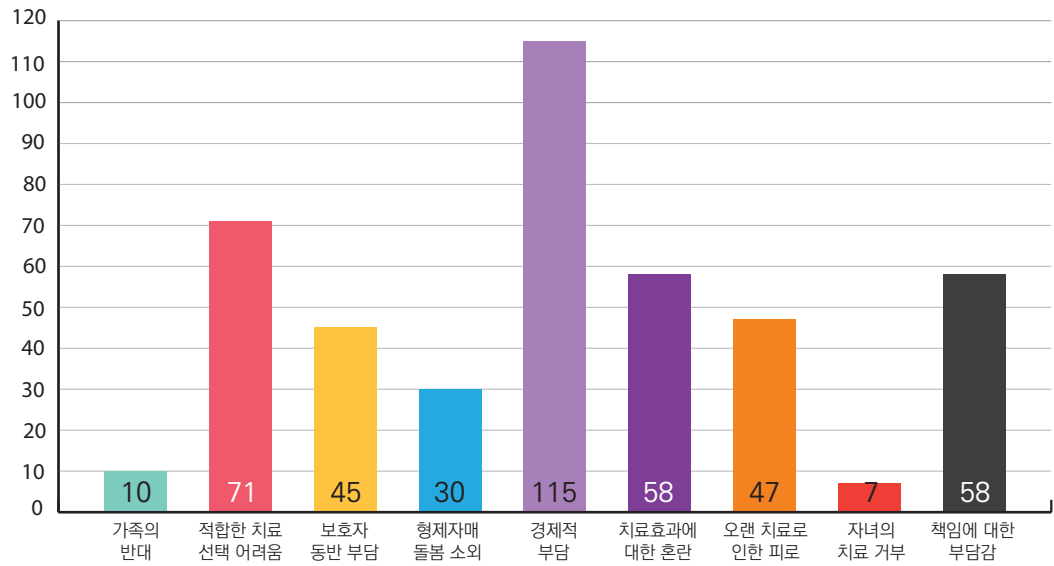
발달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50~100만 원(51명) > 20~50만 원(43명) > 100~150만 원(20명) > 20만 원 미만(19명) > 150만 원 이상(17명) 순으로 나타남. 평균 비용은 약 73.3만 원임.

〈그림 39〉 발달치료의 경제적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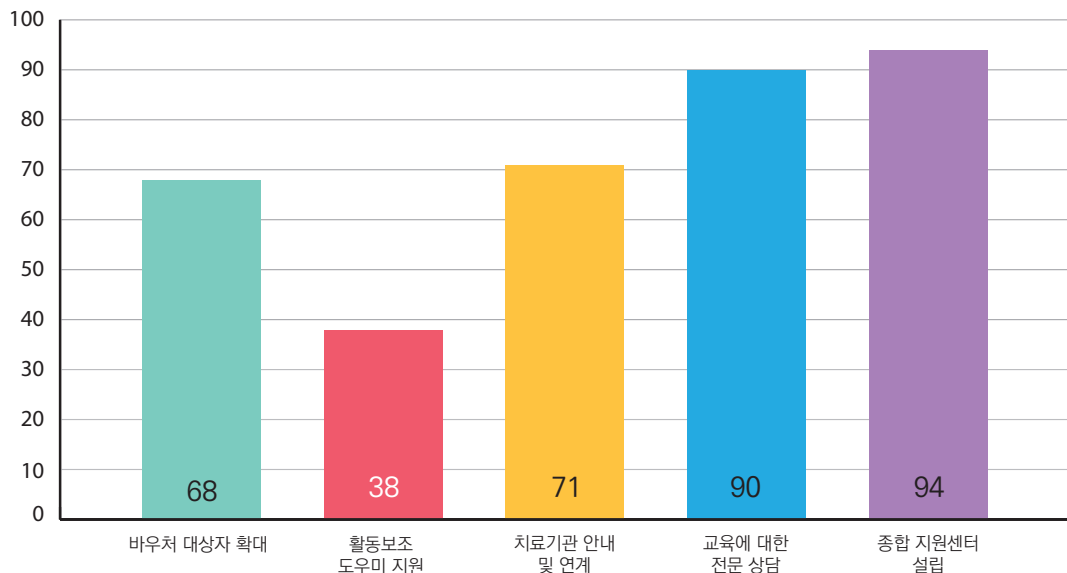
발달치료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바우처 일부와 자부담(82명)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모든 비용을 자부담(71명)으로 해결했다는 응답으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전액을 바우처(10명)로 충당한 경우는 적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40〉 발달치료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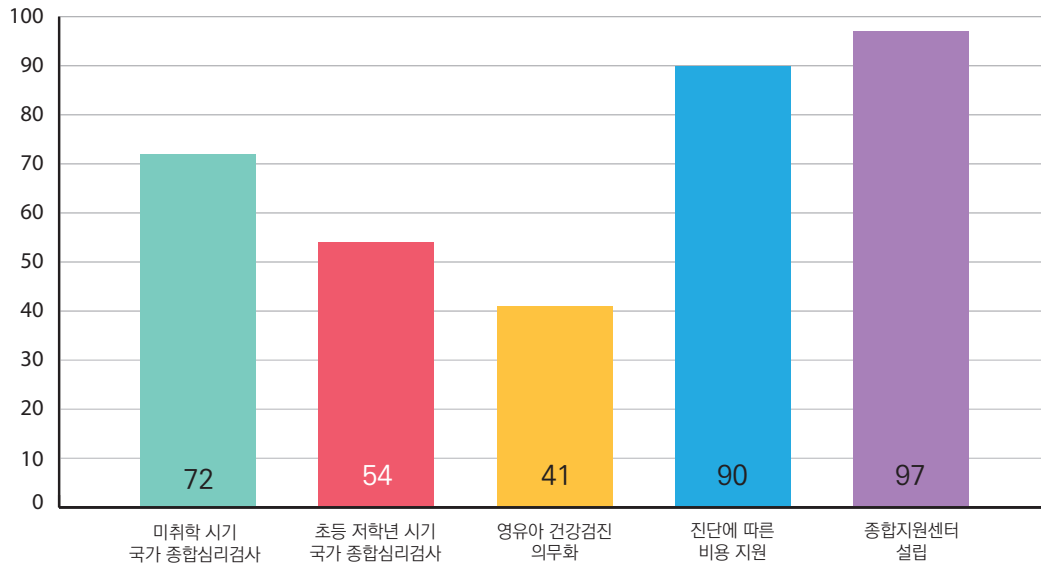
발달치료를 진행하면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부담(115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적합한 치료 선택 어려움(71명)이라는 응답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치료 효과에 대한 혼란(58명)과 책임감에 대한 부담(58명), 오랜 치료로 따른 피로(47명)와 치료마다 부모가 동반해야 하는 것(45명) 또한 어려움으로 지적됨.

〈그림 41〉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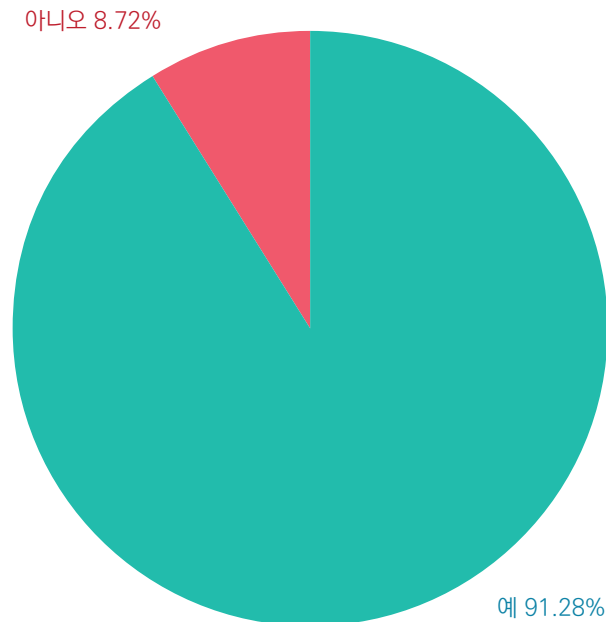
발달치료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 지원센터 설립(94명) > 교육에 대한 전문상담(90명) > 치료 기관 안내 및 연계(71명) > 바우처 대상자 확대(68명) >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38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2〉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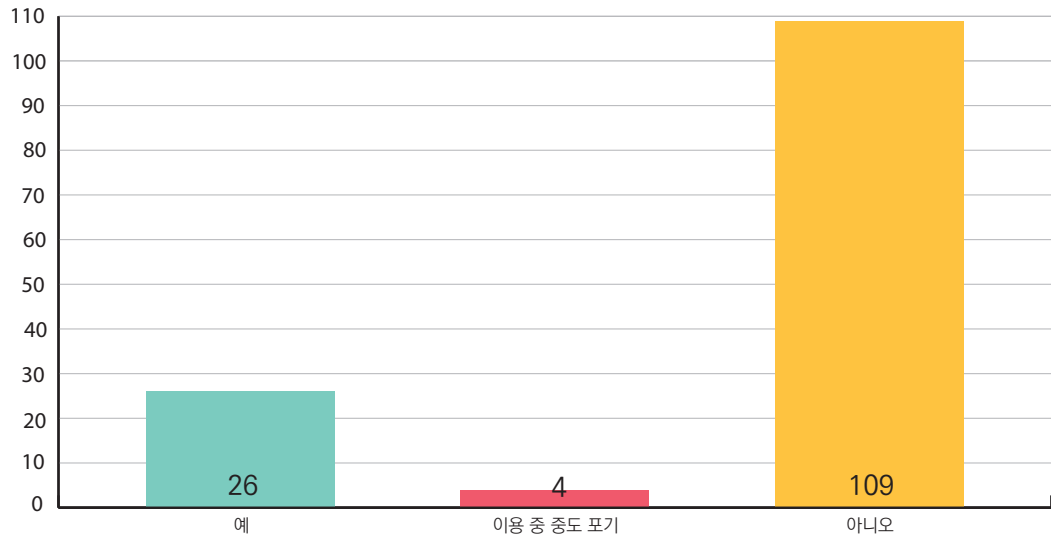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초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지원센터 설립(97명) > 진단에 따른 비용 지원(90명) > 미취학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72명) > 초등 저학년 시기 국가 종합심리검사(54명) > 영유아건강검진 의무화(41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3〉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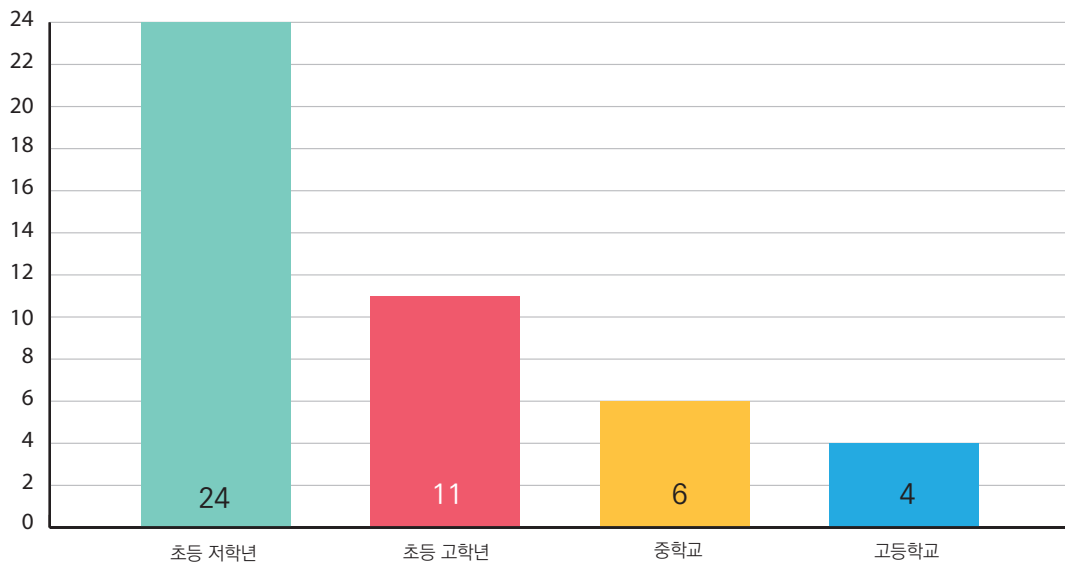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136명,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3명으로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4〉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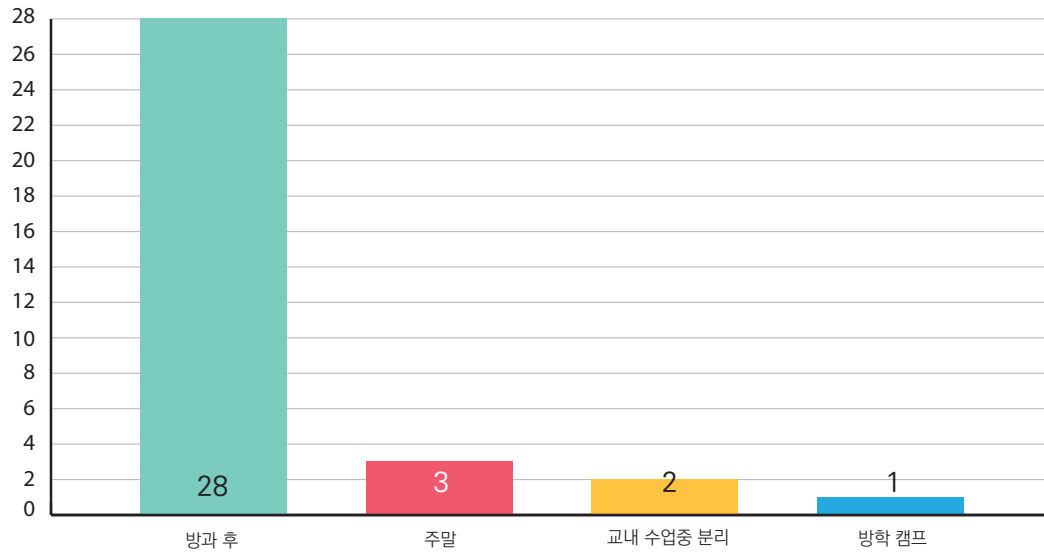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를 이용해보았다는 응답은 26명,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109명으로 대부분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45〉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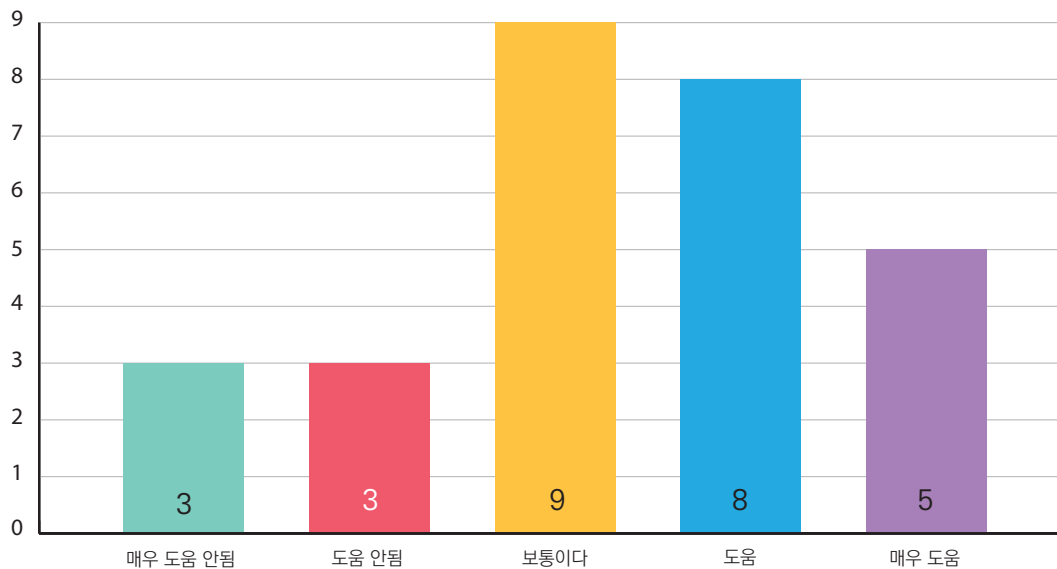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기는 초등 저학년(24명) > 초등 고학년(11명) > 중학교(6명) > 고등학교(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학교단위 학습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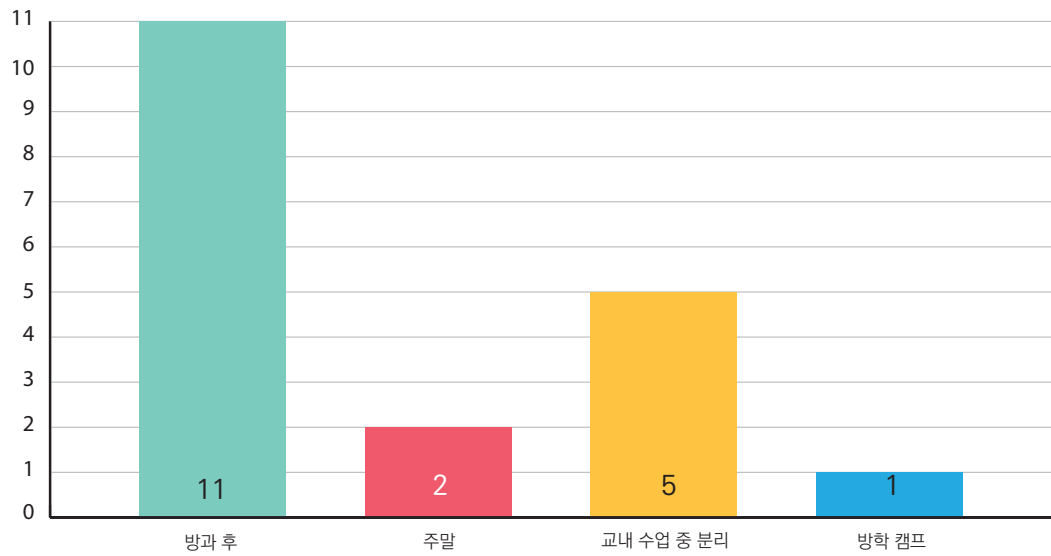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는 대부분 방과 후(28명)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47〉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학교 단위 학습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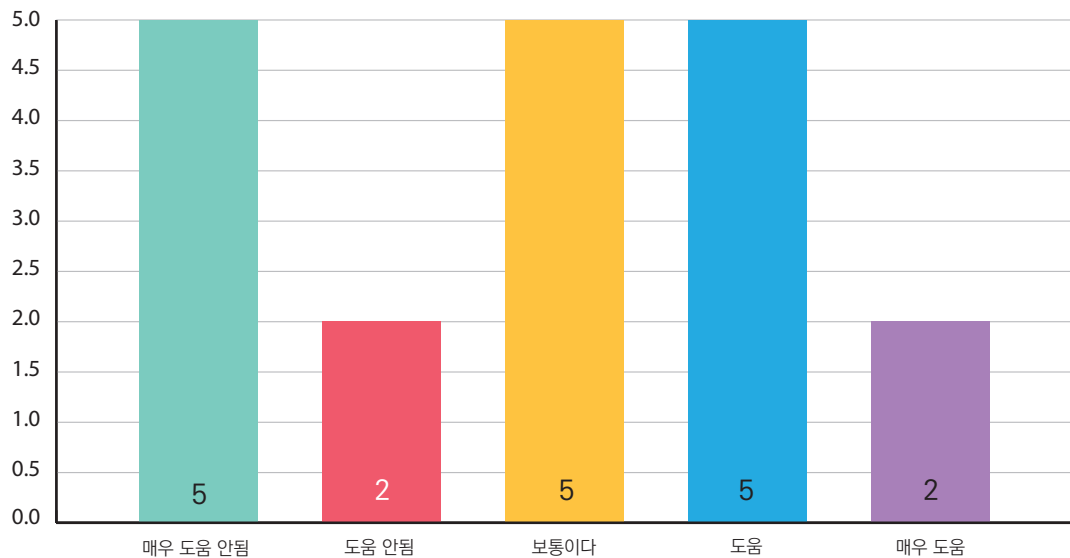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3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명으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만족도 평균은 3.32점임.

〈그림 48〉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학교 단위 두드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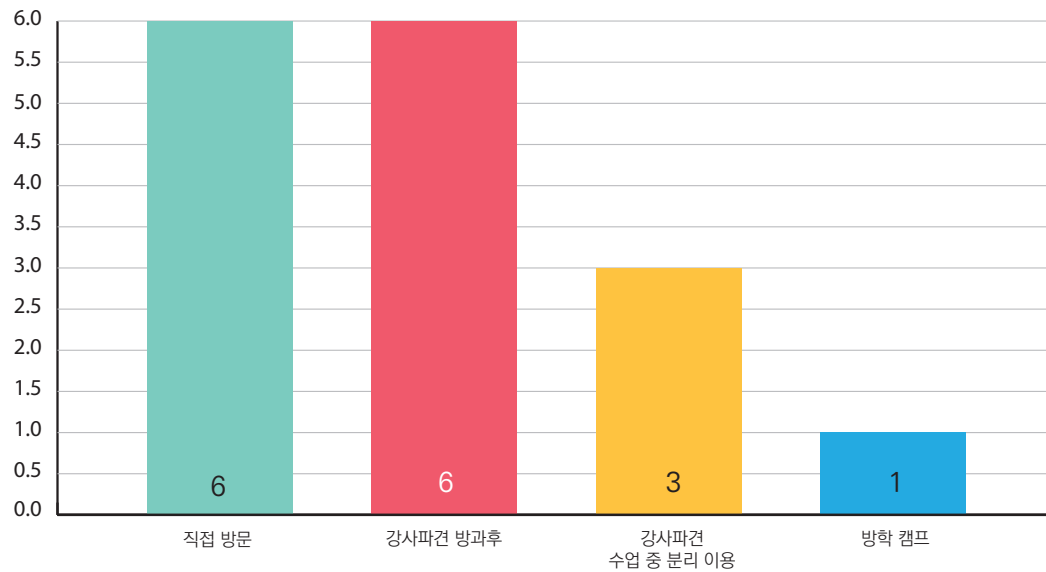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는 방과 후(11명)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교내 수업 중 분리(5명)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49〉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학교 단위 두드림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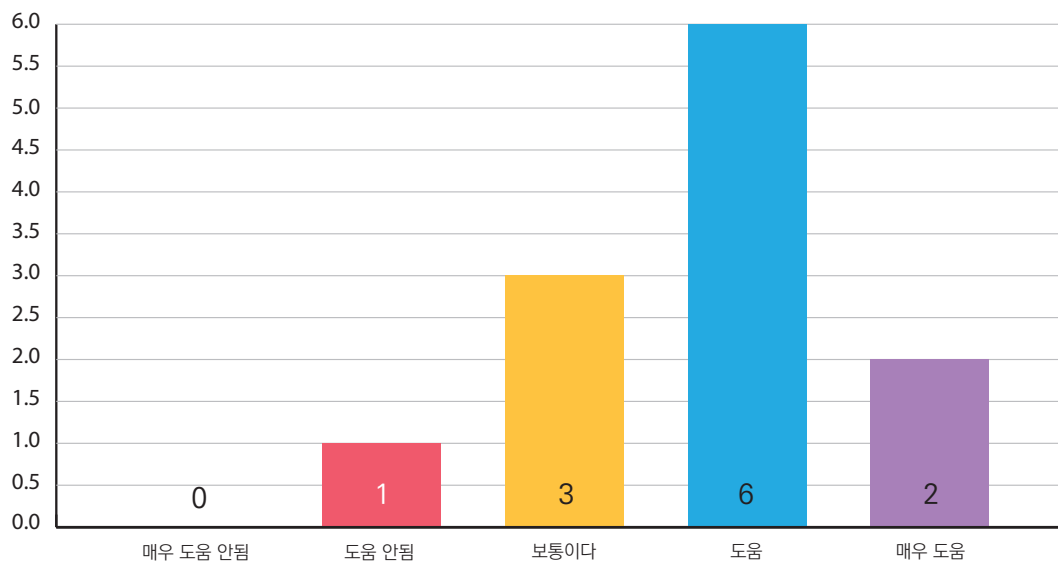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두 7명이지만, 매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명으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만족도 평균은 2.84점임.

〈그림 50〉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 (시도교육청 학습 종합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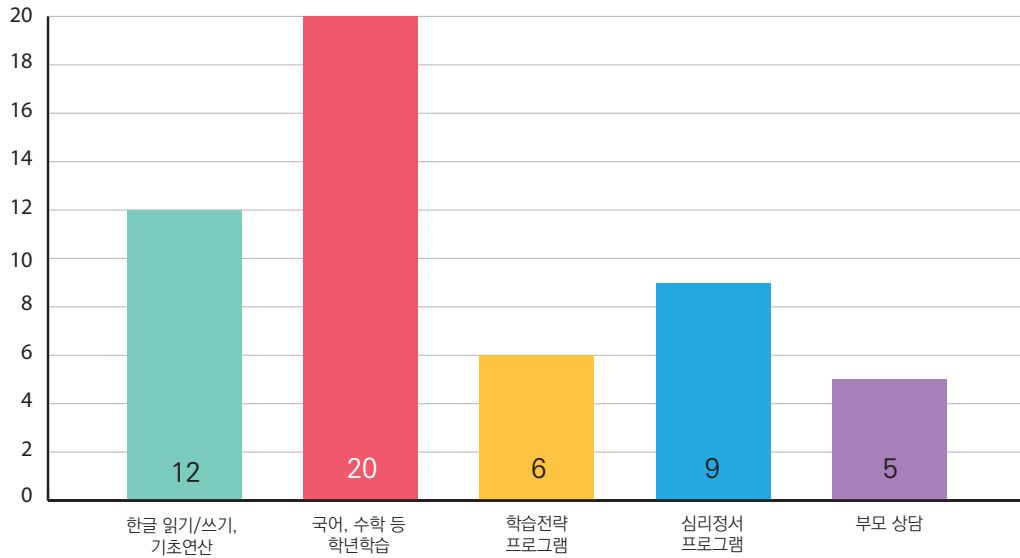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형태는 직접 방문, 강사파견 방과후(6명)이 가장 많았고, 강사파견 수업 중 분리 이용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1〉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 (시도교육청 학습 종합클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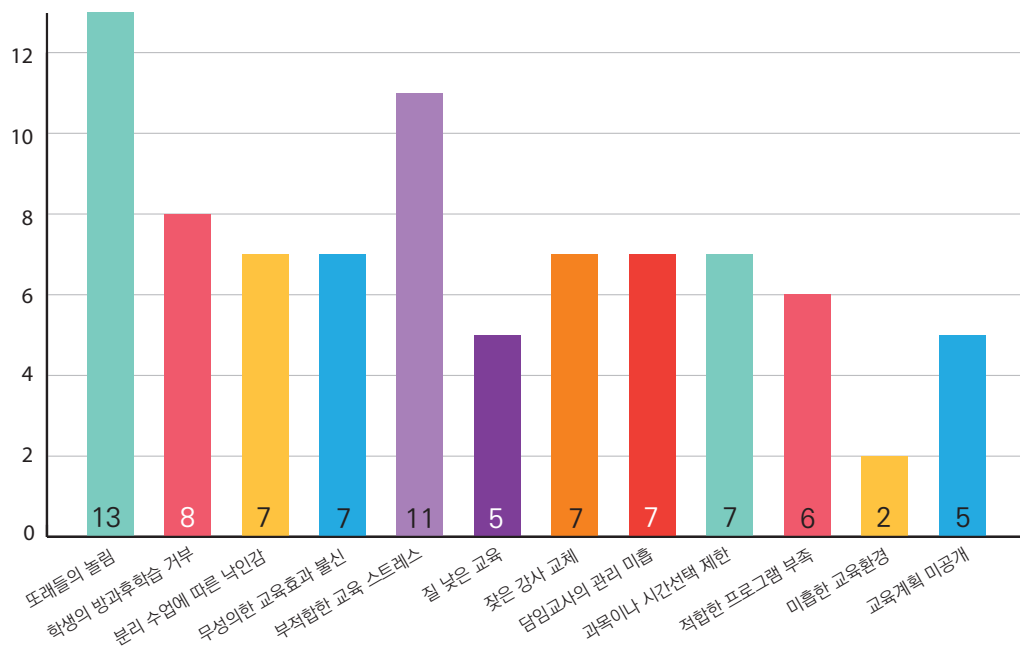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만족도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명,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1명으로 대체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됨. 평균 만족도는 3.75점임.

〈그림 52〉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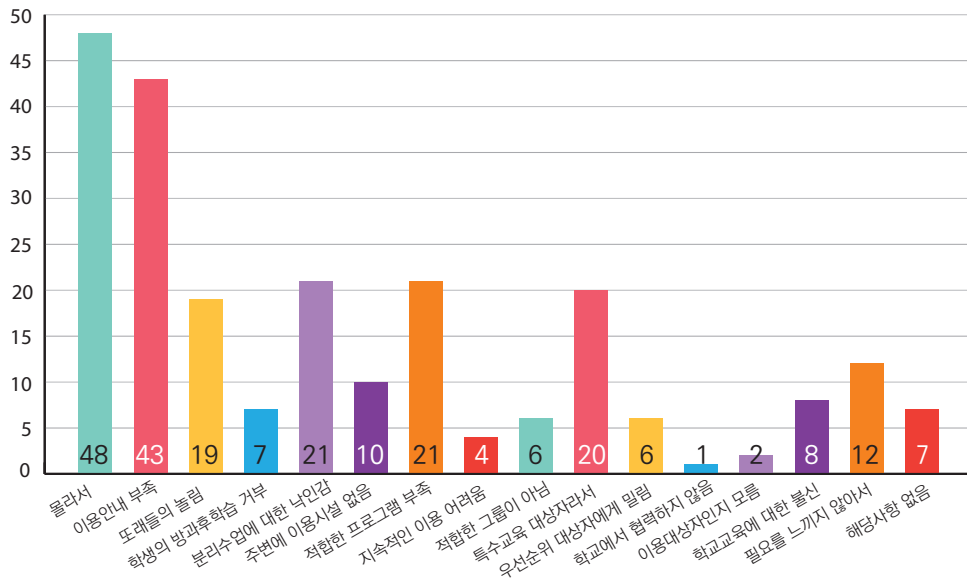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내용은 국어, 수학 등 학년학습(20명) > 읽기/쓰기 및 기초연산(12명) > 심리정서프로그램(9명) > 학습전략프로그램(6명) > 부모상담(5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53〉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 불편과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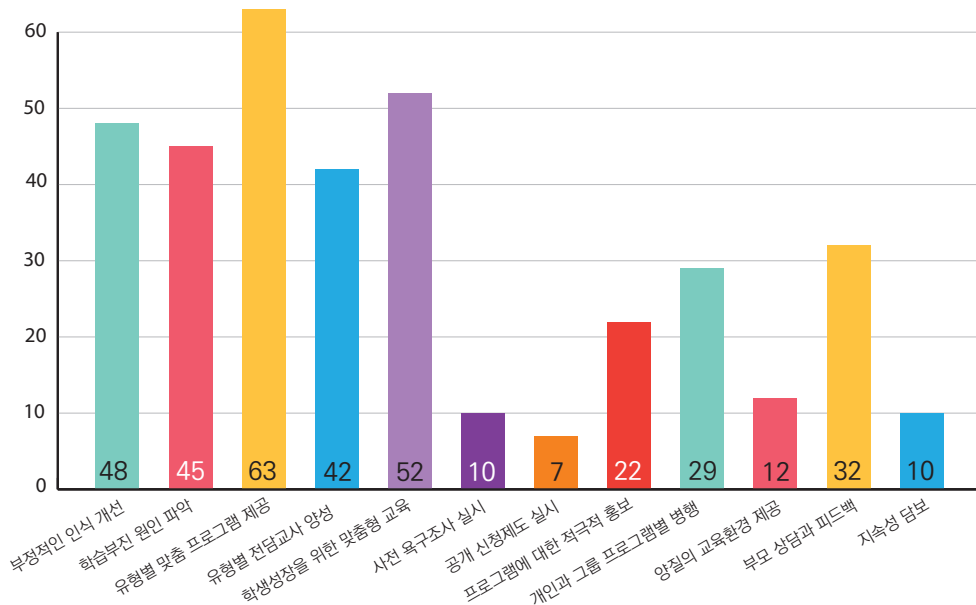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이용 시 불편과 어려움으로는 또래들의 놀림(13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적합한 교육 스트레스(11명)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이외에도 교육 환경이나 교육 방식에서의 부적절함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그림 54〉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 비이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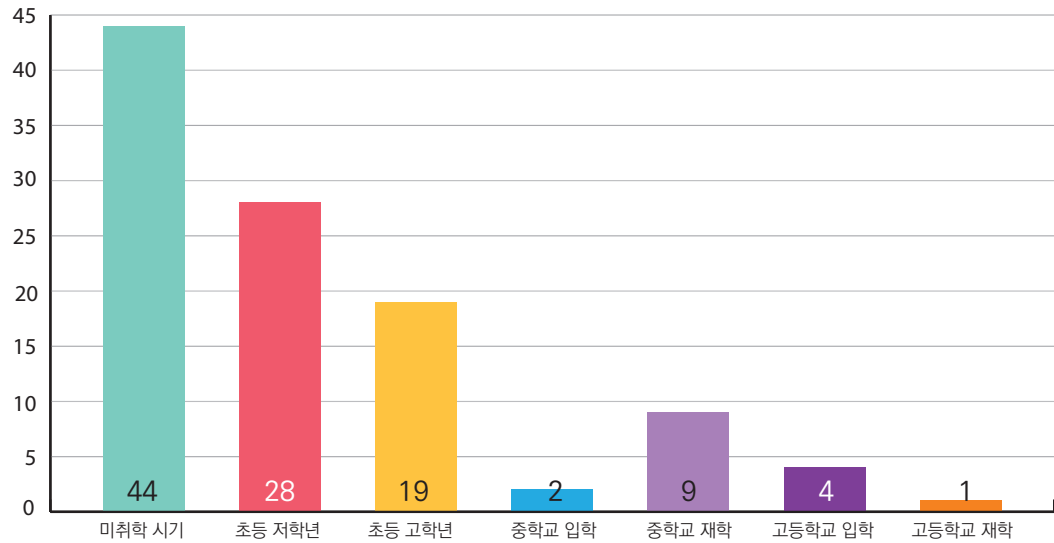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육제도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응답(48명)이 가장 많았고, 이용 안내가 부족하다(43명)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분리 수업에 대한 낙인감(21명),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21명) 혹은 또래들의 놀림이 두려워서(19명) 받지 않은 경우도 확인되었음.

〈그림 55〉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개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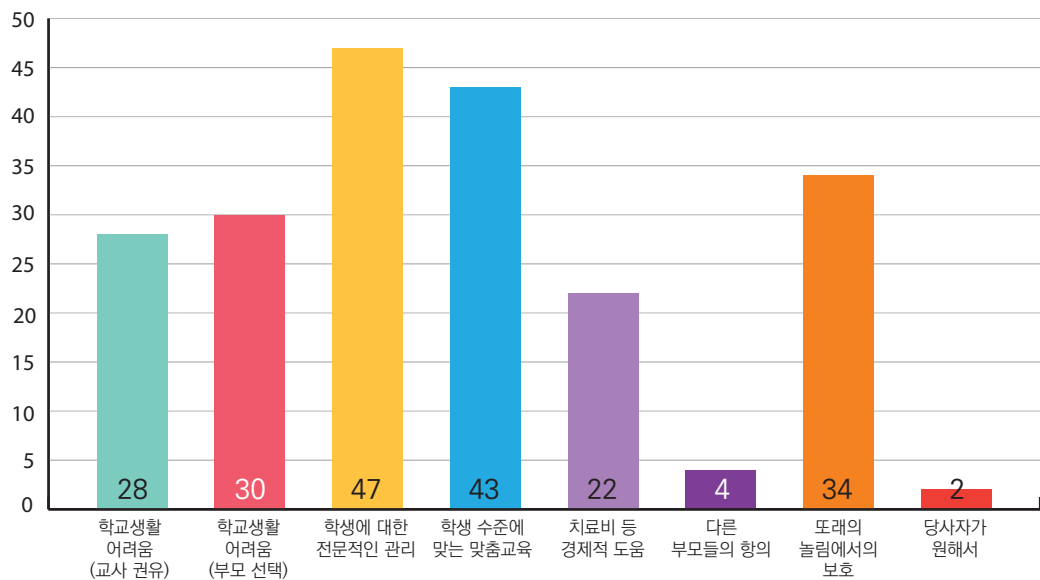
기초학습부진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제도의 실효성 마련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는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63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생성장을 위한 맞춤형 교육(52명), 부정적인 인식 개선(48명), 학습부진 원인 파악(45명), 유형별 전담교사 양성(42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56〉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시도하신 시기는 언제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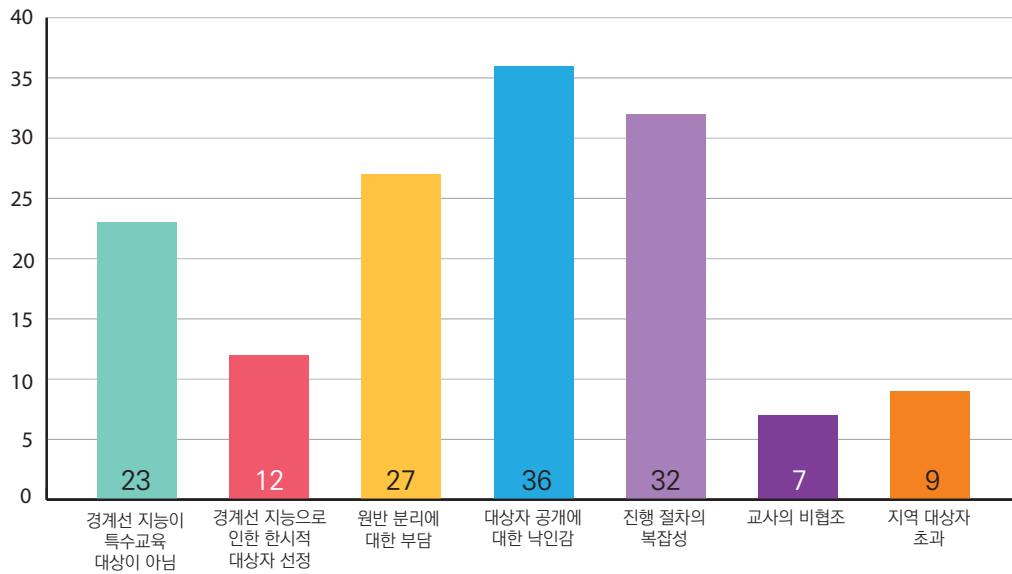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시도한 시기는 미취학 시기(44명) > 초등 저학년(28명) > 초등 고학년(19명) > 중학교 재학(9명) > 고등학교 입학(4명) > 중학교 입학(2명) > 고등학교 입학(1명) 순으로 나타남. 대부분 미취학, 초등학교 시기에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됨.

〈그림 57〉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고려했거나 시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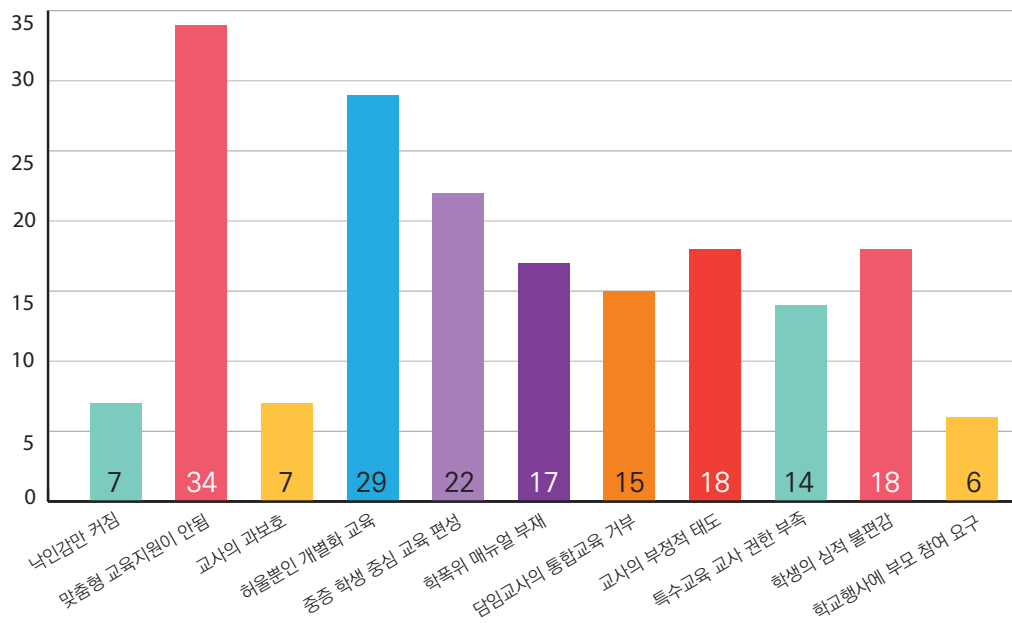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 신청을 고려했거나 시도한 이유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47명)가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43명)이라는 응답 또한 높게 나타남. 또래의 놀림에서의 보호(34명)와 학교생활의 어려움 해결(30, 28명) 또한 중요한 이유인 것으로 확인됨.

〈그림 58〉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불편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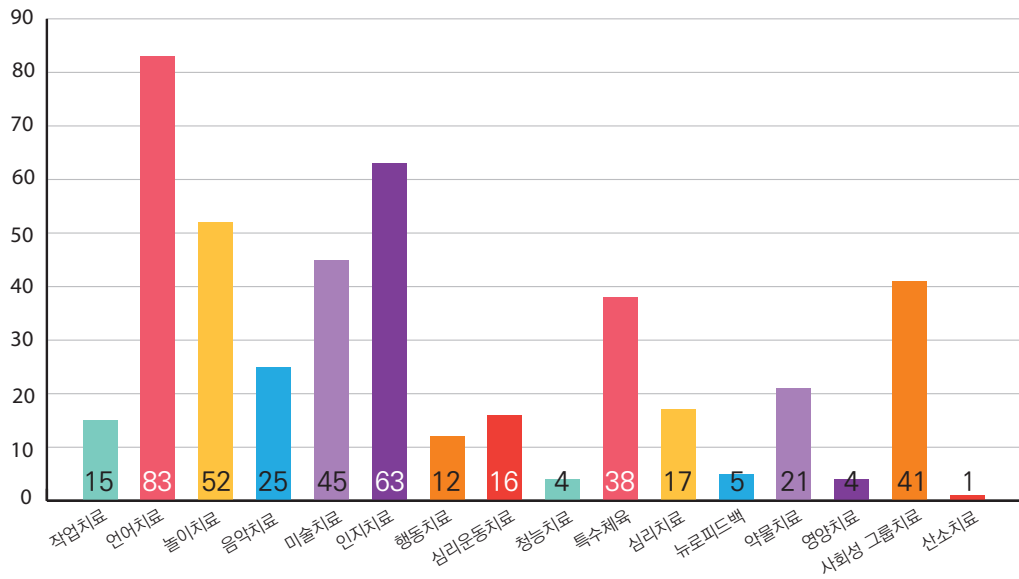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불편한 점으로는 대상자 공개에 대한 낙인감(36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진행 절차에 대한 복잡성(32명)과 원반 분리에 대한 부담(27명), 경계선지능이 특수교육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한 불만(23명) 등도 높게 나타남.

〈그림 59〉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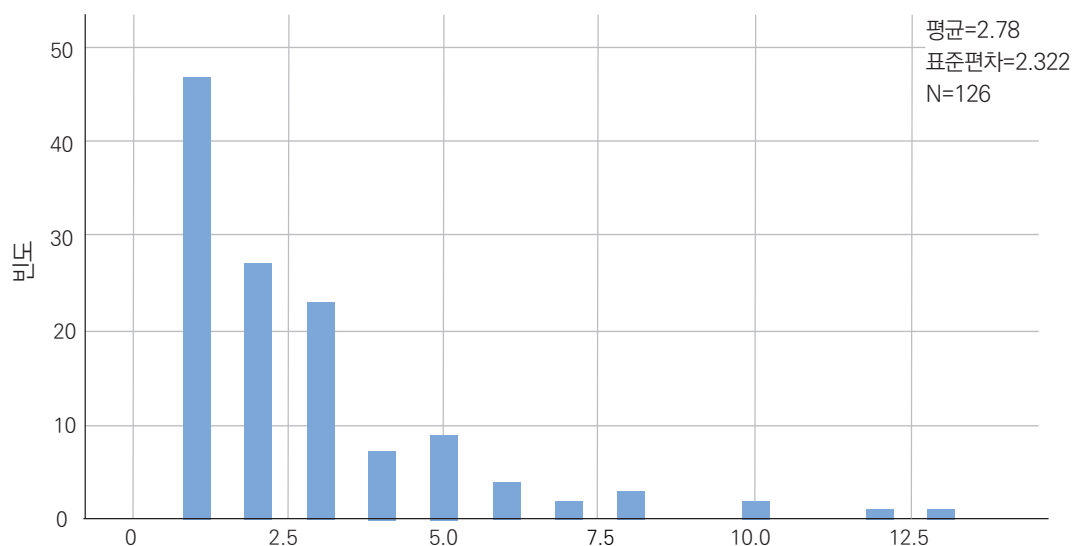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겪은 어려움과 불편함으로는 맞춤형 교육 지원이 안 된다는(34명) 응답이 가장 많았고, 허울뿐인 개별화 교육(29명), 중증 학생 중심 교육 편성(22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0〉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이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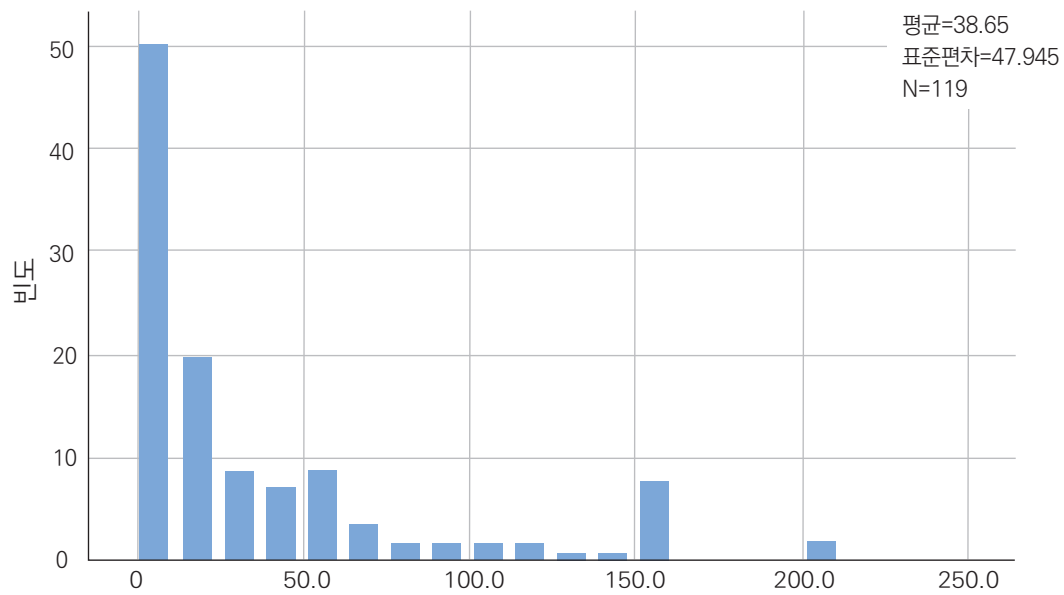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이용 종류로는 언어치료(83명)가 가장 많았고, 인지치료(63명) > 놀이치료(52명) > 미술치료(45명) > 사회성그룹치료(41명) > 특수체육(38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1〉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주 평균 이용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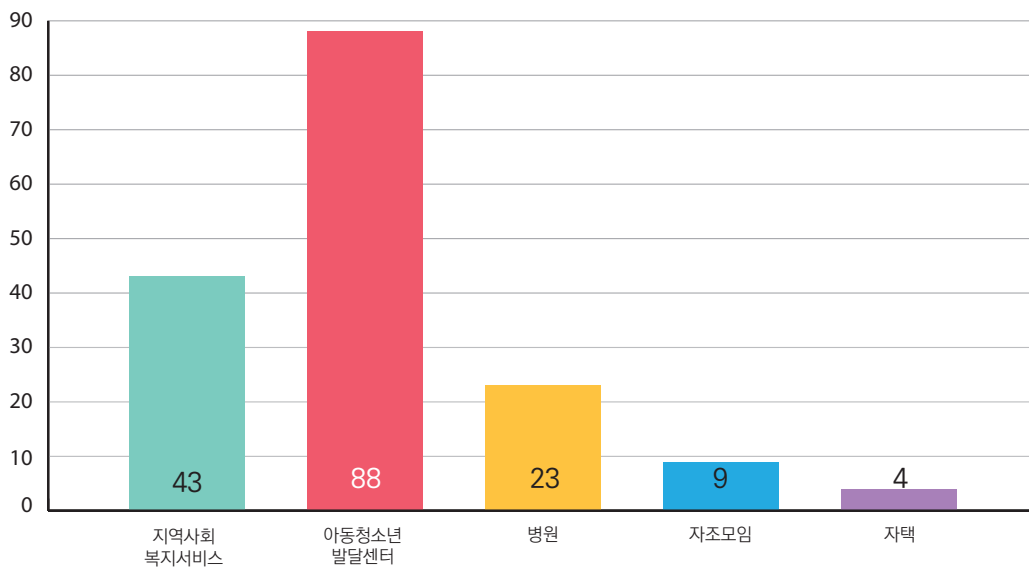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이용 회기는 주 최소 1회에서 최대 13번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2.78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62〉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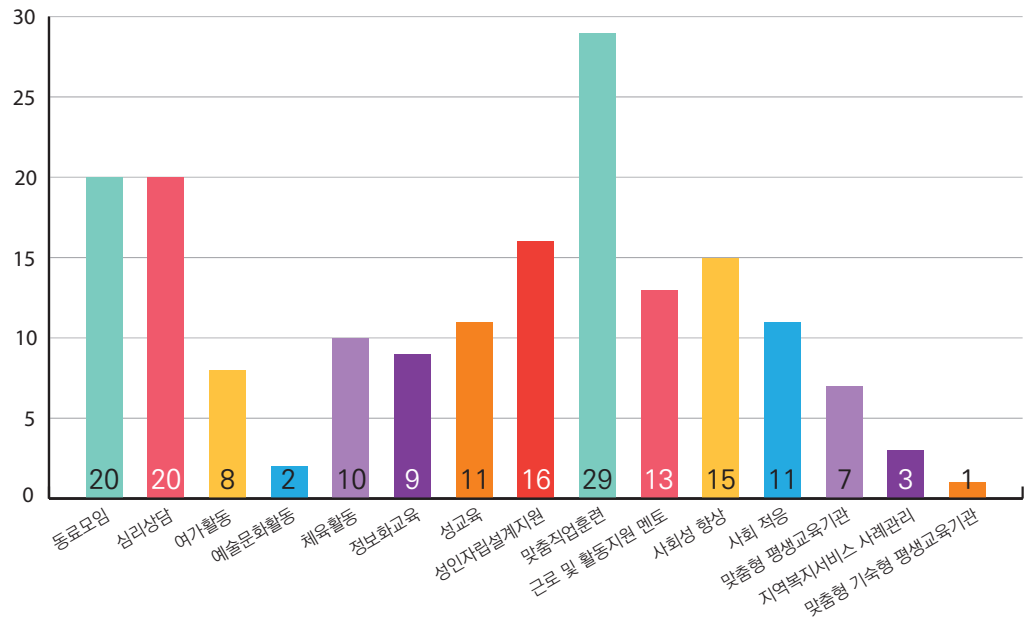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치료서비스 비용은 최소 0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나타났으며, 평균 38만 6천 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63〉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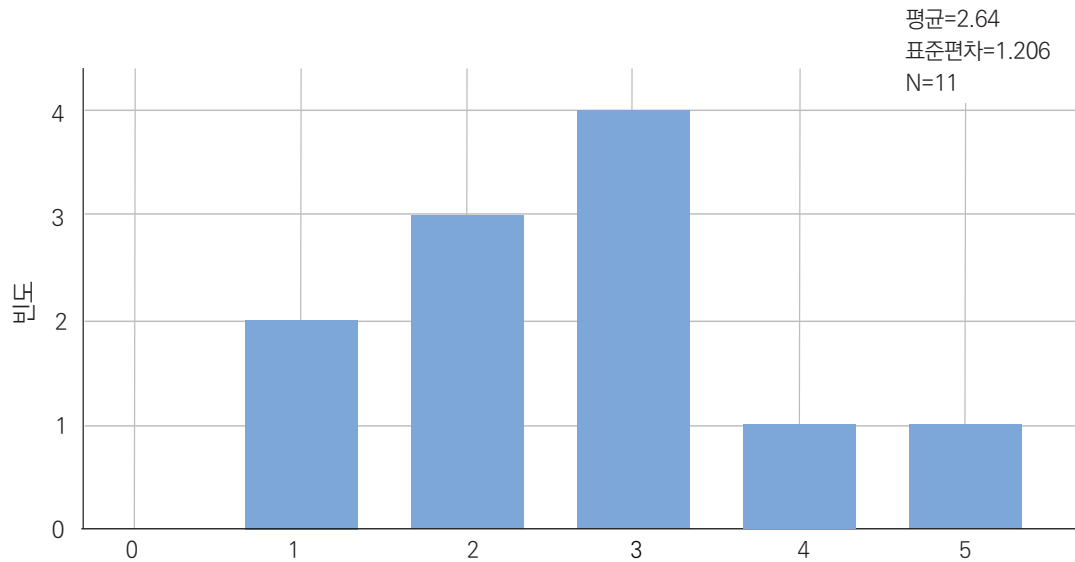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는 아동청소년발달센터(88명) > 지역사회복지서비스(43명) > 병원(23명) > 자조모임(9명) > 자택(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64〉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이용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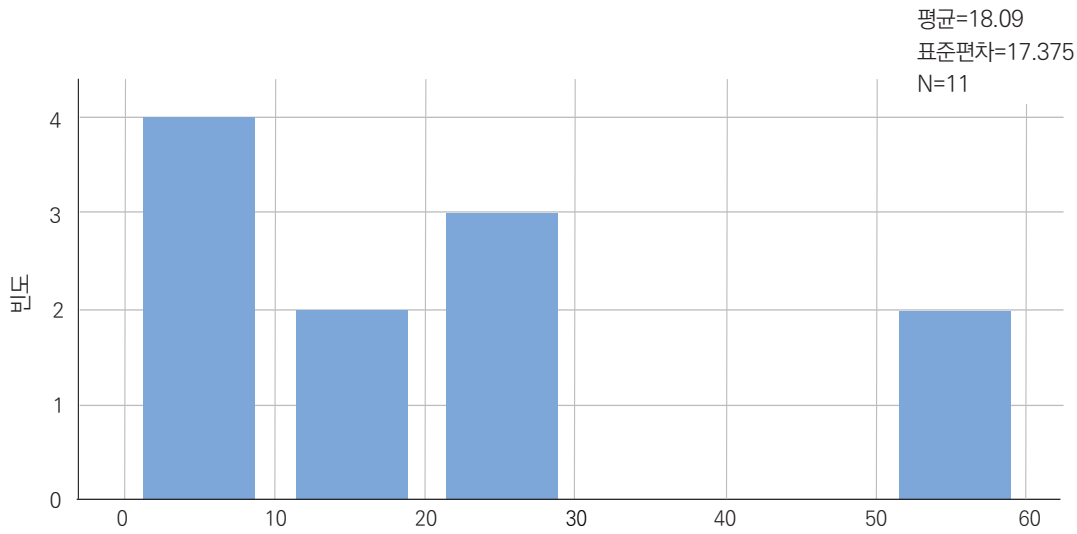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이용 종류로는 맞춤형직업훈련(29명)이 가장 많았고, 동료모임이나 심리상담(20명), 성인자립설계지원(16명), 사회성향상(15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5〉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주 평균 이용 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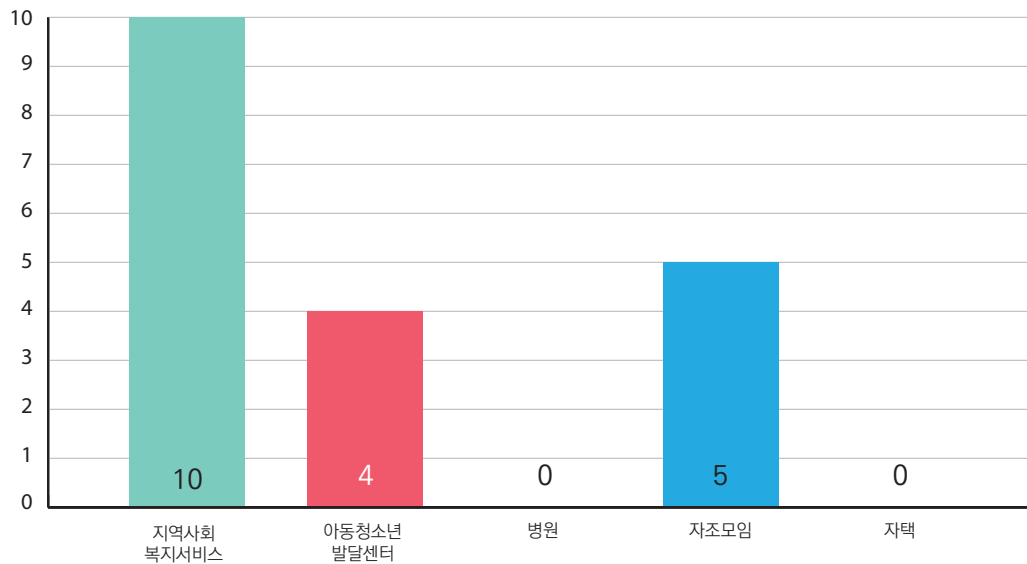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주 이용 회기는 최소 1번에서 최대 5번까지 나타났고, 주 평균은 2.61번으로 확인되었음.

〈그림 66〉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평균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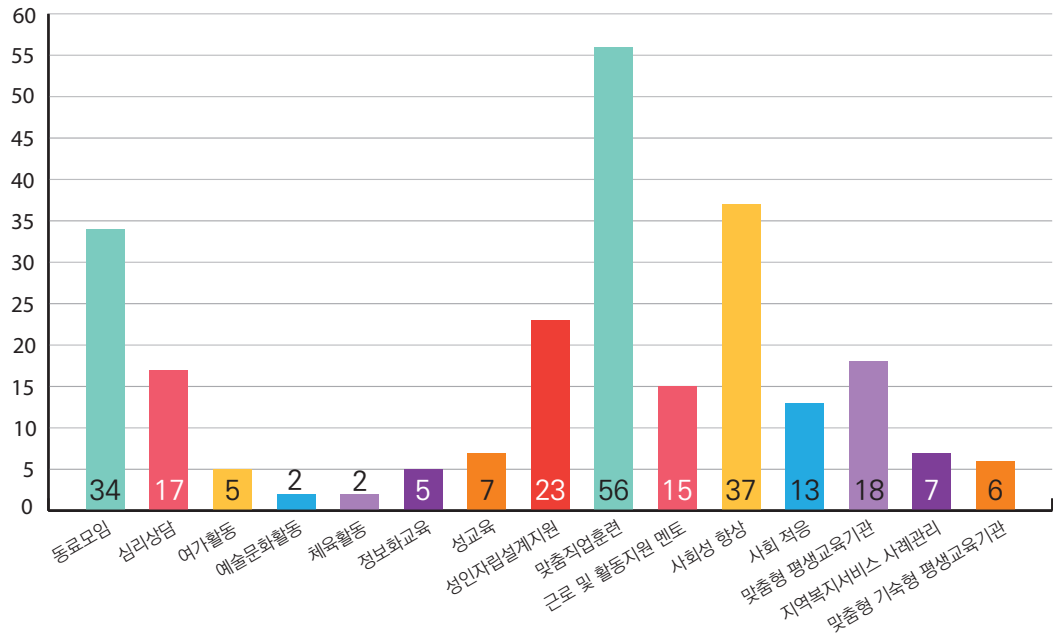
성인 느린학습자 자녀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비용은 최소 0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비용은 18만 원으로 확인됨.

〈그림 67〉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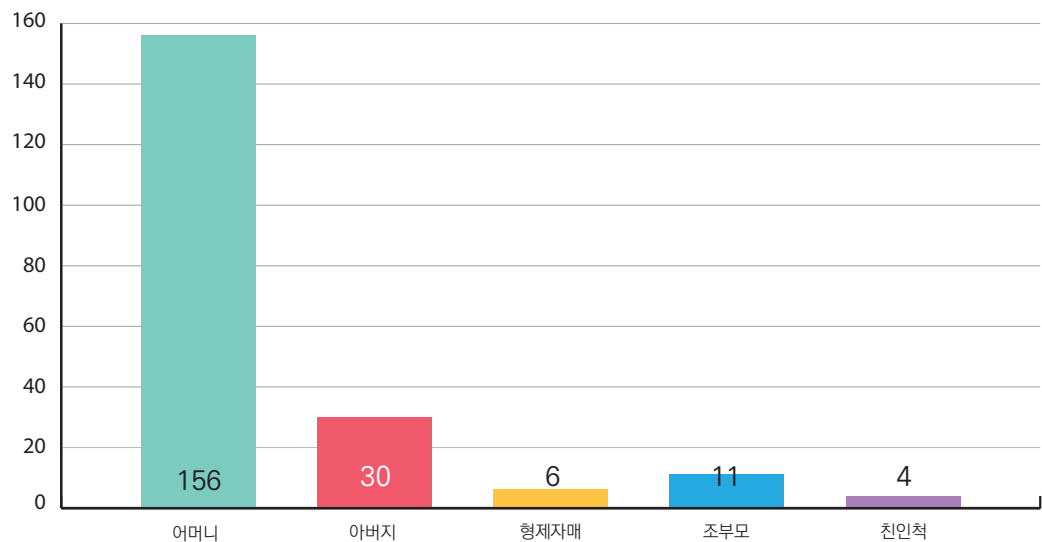
위와 같은 치료를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형태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10명) > 자조모임(5명) > 아동청소년발달센터(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68〉 성인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지원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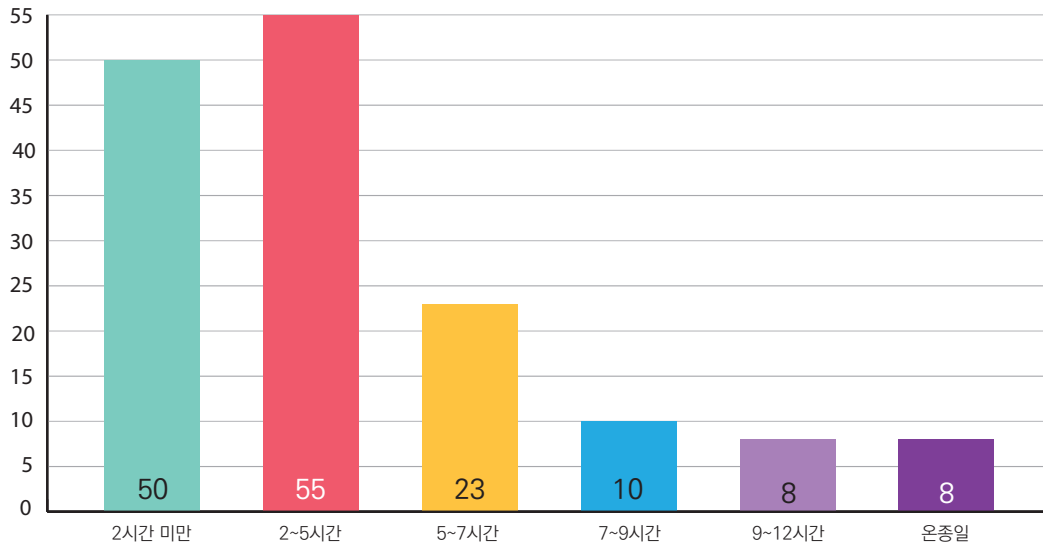
성인 느린학습자에게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으로는 맞춤형직업훈련(56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사회성 향상(37명)과 동료모임(34명), 성인자립설계지원(23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69〉 귀하의 가정에서 느린학습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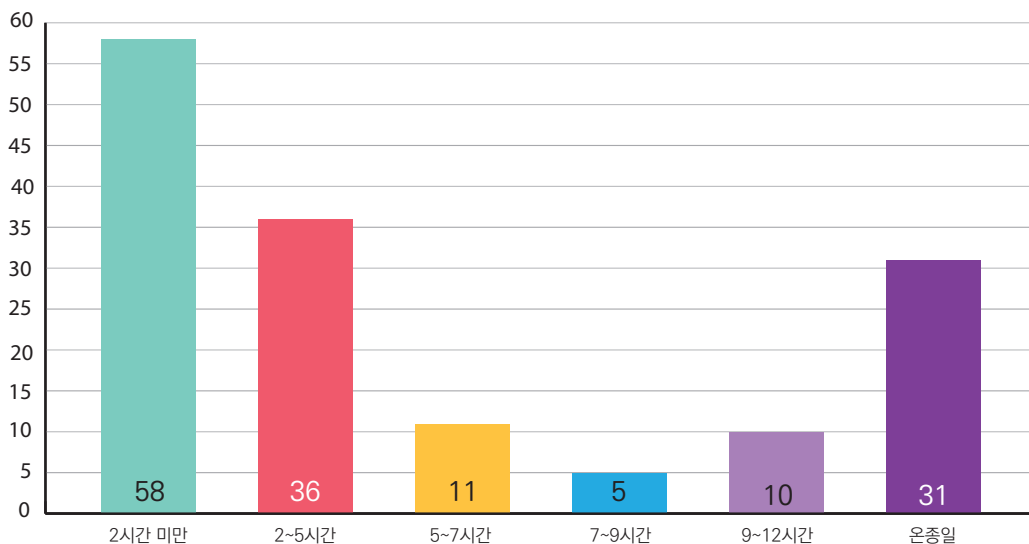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어머니(156명) > 아버지(30명) > 조부모(11명) > 형제자매(6명) > 친인척(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70〉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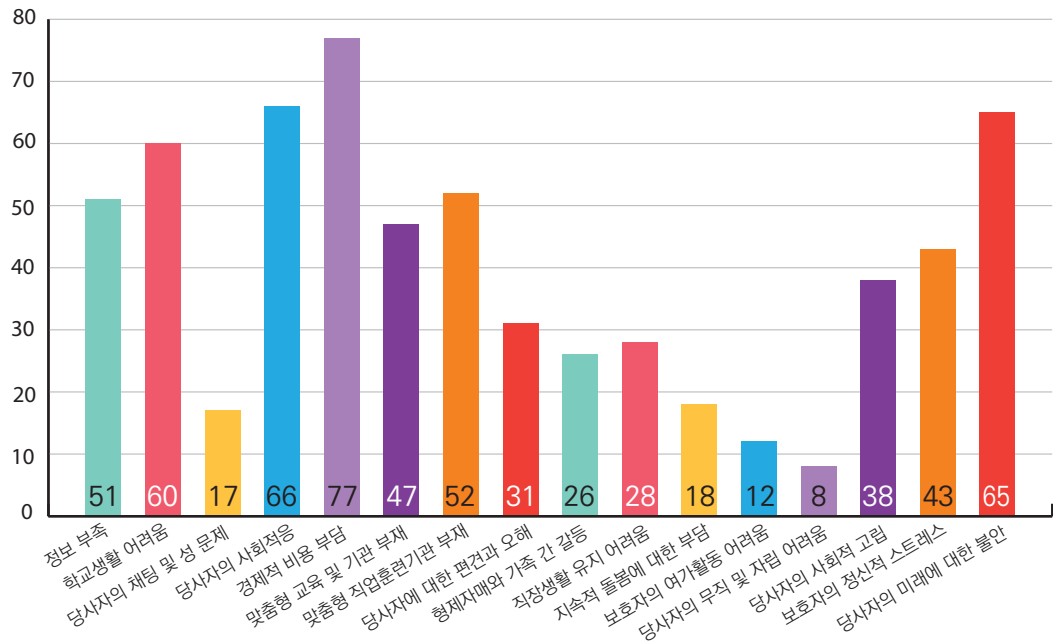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2~5시간(55명) > 2시간 미만(50명) > 5~7시간(23명) > 7~9시간(10명) > 9~12시간(8명) > 온종일(8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71〉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주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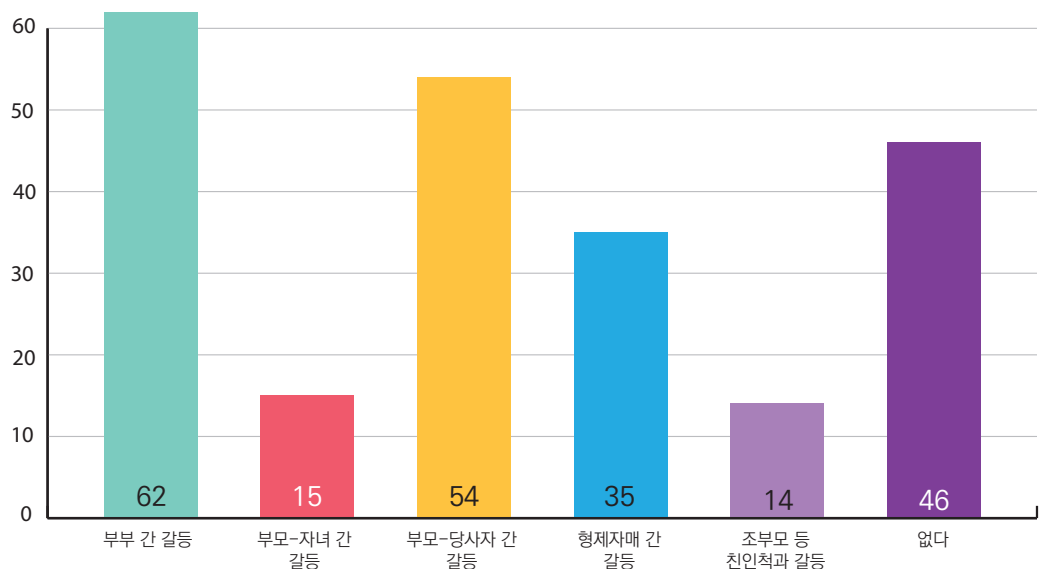
주말에 느린학습자 자녀에게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2시간 미만(58명) > 2~5시간(36명) > 온종일(31명) > 5~7시간(11명) > 9~12시간(10명) > 7~9시간(5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72〉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현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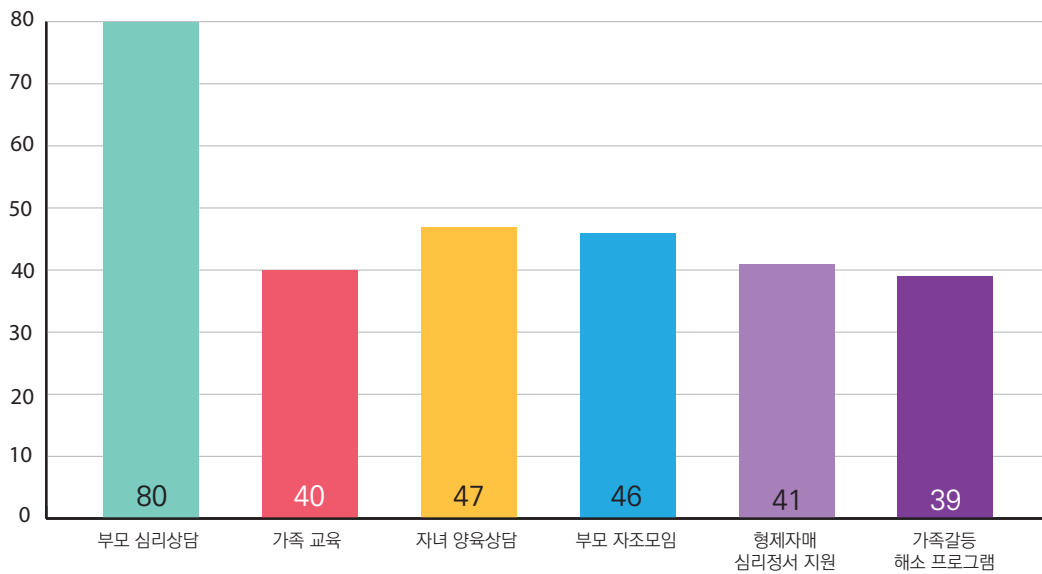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현재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비용 부담(77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당사자의 사회적응(66명), 당사자의 미래에 대한 불안(65명), 학교 생활 어려움(60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73〉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면 누구와의 갈등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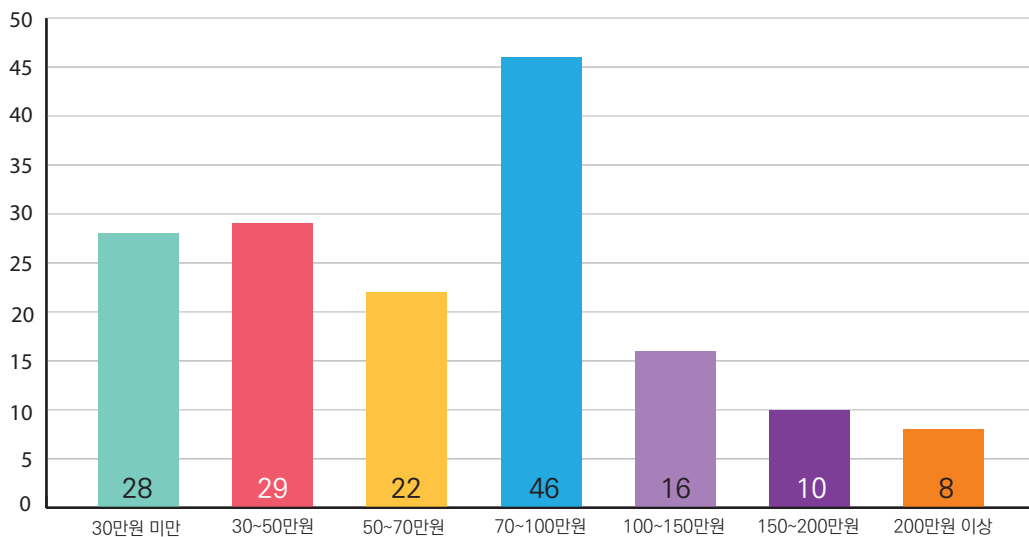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로 인한 갈등은 부부 간 갈등(62명) > 부모-당사자 간 갈등(54명) > 없음(46명) > 형제자매 간 갈등(35명) > 부모-자녀 간 갈등(15명) > 조부모 등 친인척과 갈등(1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74〉 느린학습자 자녀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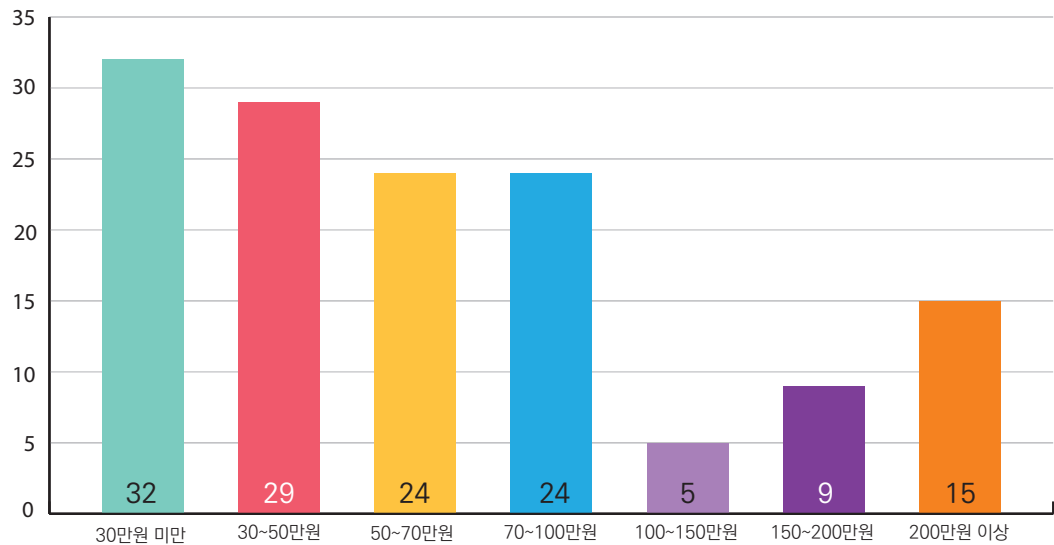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와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데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는 부모 심리상담(80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75〉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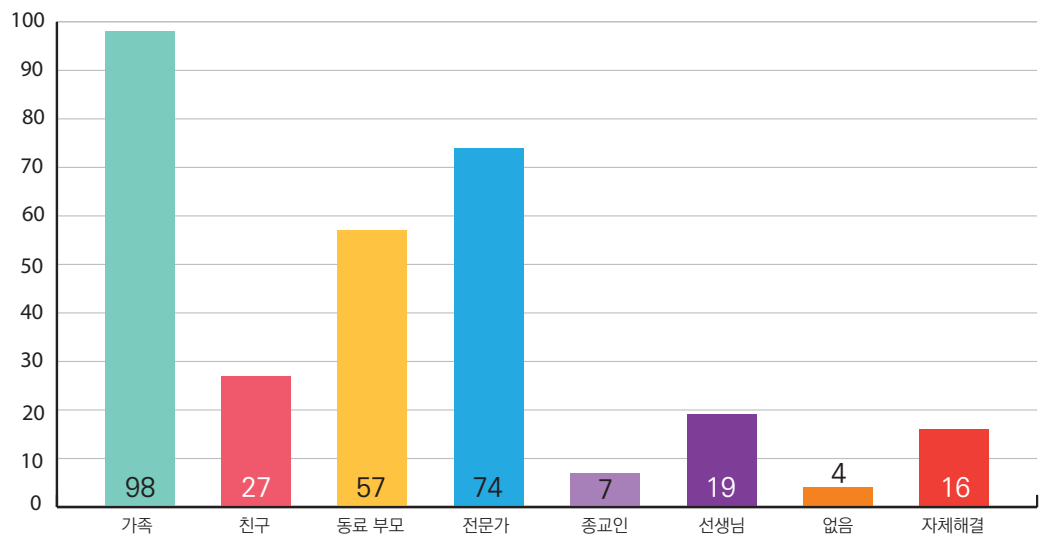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 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78.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남. 월 평균 70~100만 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림 76〉 느린학습자 자녀 외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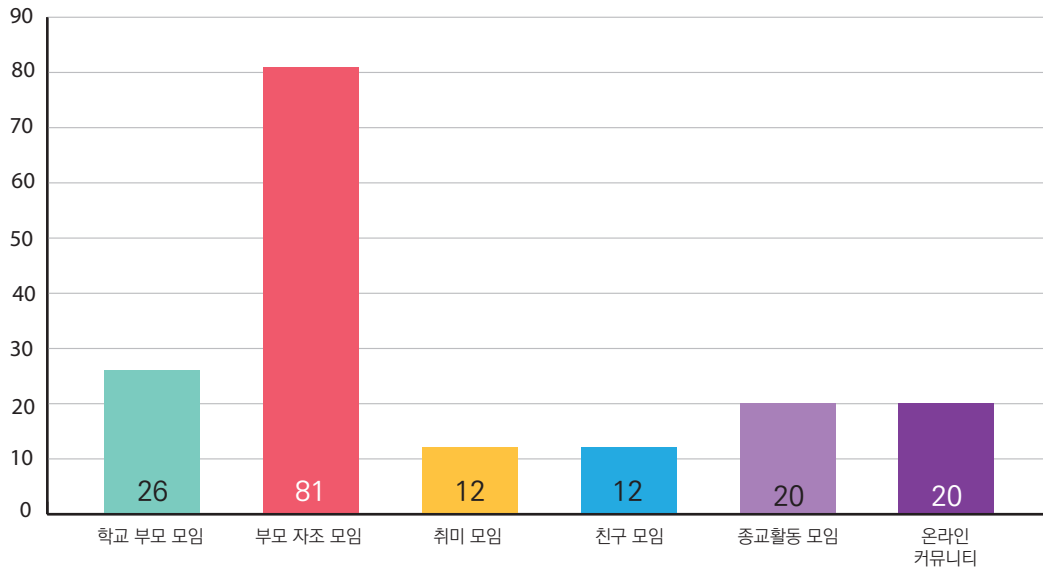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 외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 데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약 80.2만 원으로 나타남. 월 평균 30만 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림 77〉 귀하는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누구와 주로 상담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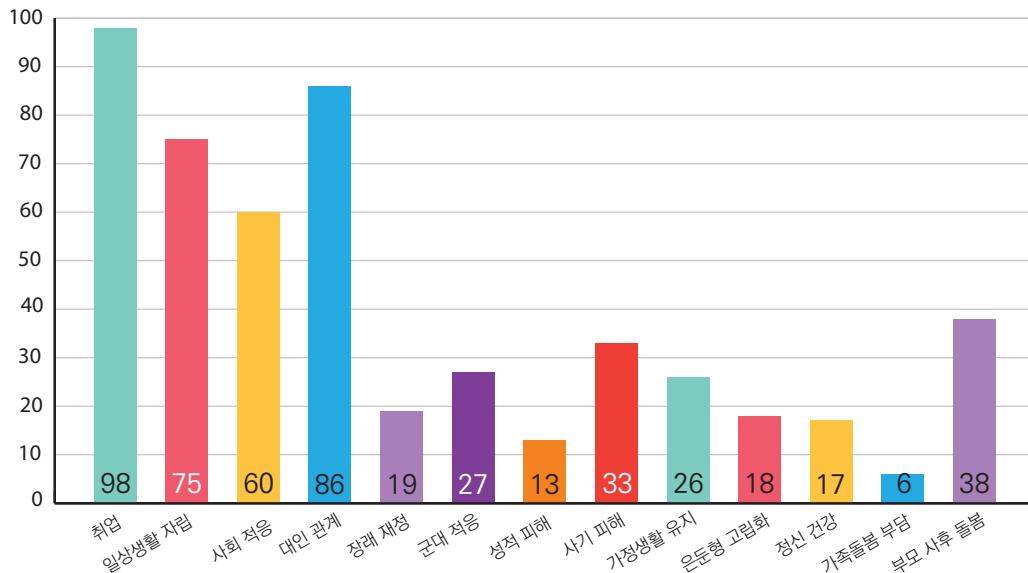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는 과정에서 주로 상담하는 대상은 가족(98명) > 전문가(74명) > 동료 부모(57명) > 친구(27명) > 선생님(19명) > 종교인(7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할 대상이 없거나(4명) 혼자서 해결하는 경우(16명)도 확인됨.

〈그림 78〉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모임에 참여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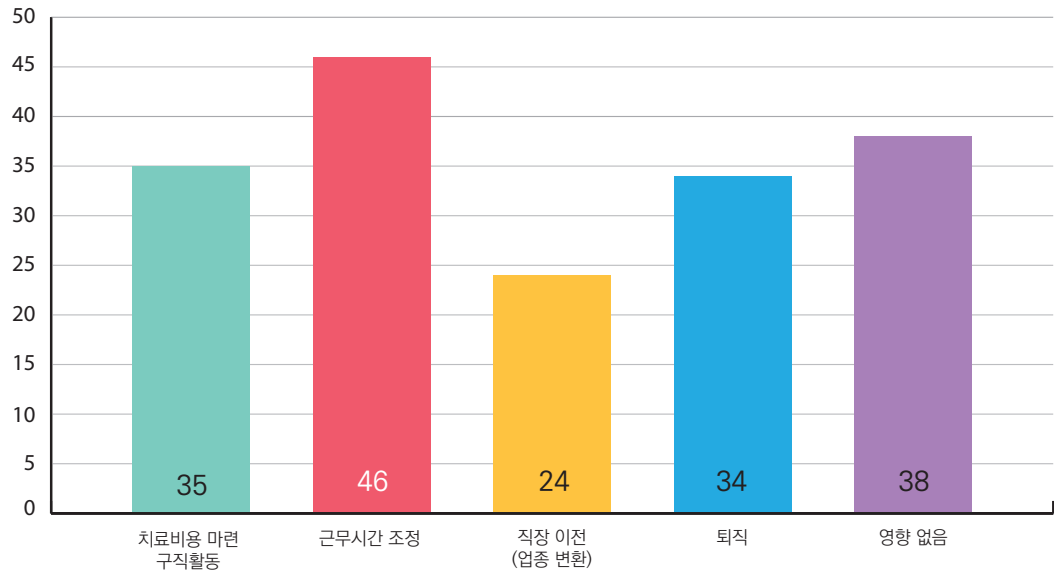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를 돌보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모임으로는 부모 자조 모임(81명)이 가장 많았으며, 학교 부모 모임(26명) > 종교활동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20명) > 취미 모임, 친구 모임(12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79〉 귀하는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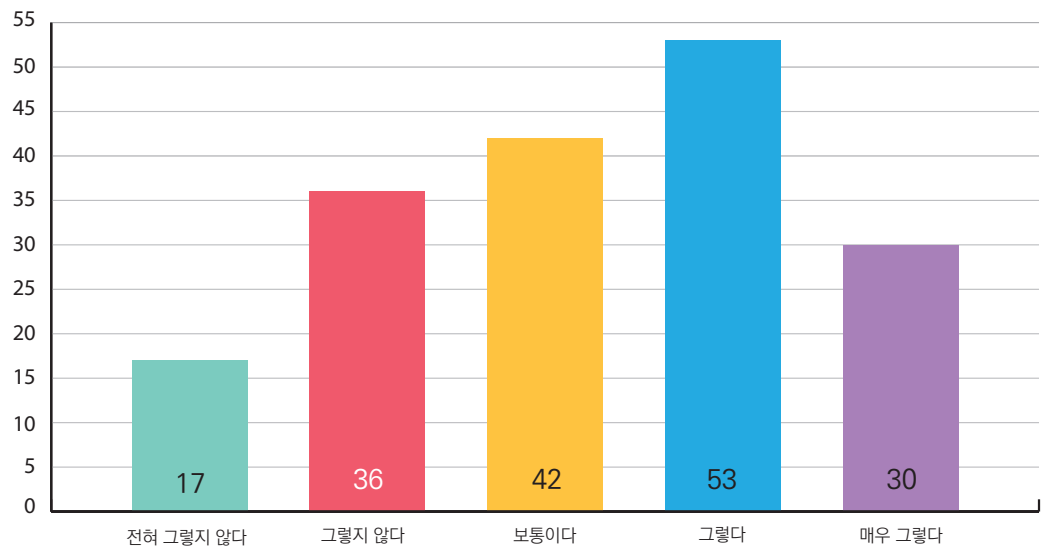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의 장래에 대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는 취업(98명)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대인관계(86명), 일상생활 자립(75명), 사회적응(60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80〉 귀하께서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받은 직장 생활에의 영향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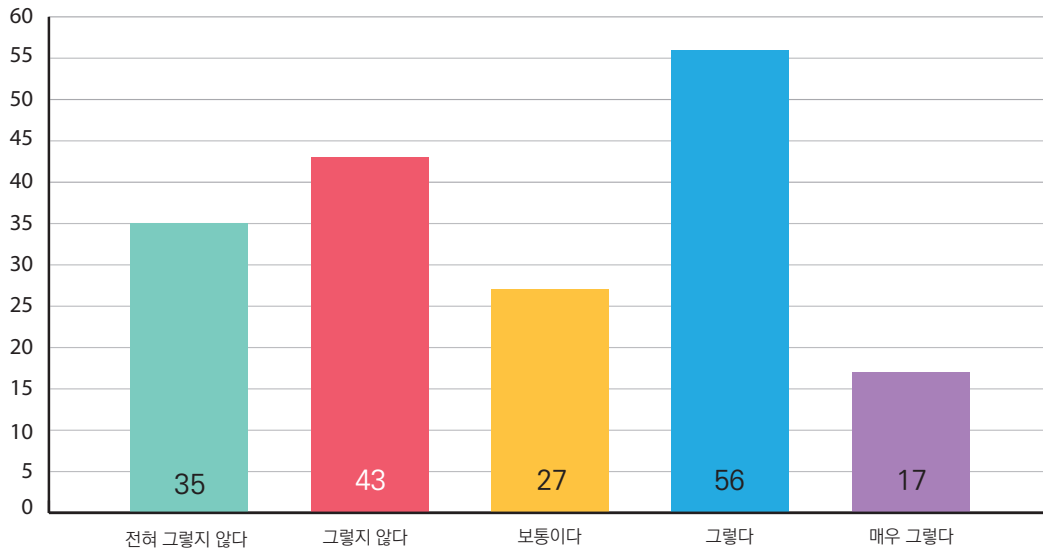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으로 인해 받은 직장 생활에의 영향은 근무시간 조정(46명) > 영향 없음(38명) > 치료비용 마련 구직활동(35명) > 퇴직(34명) > 직장 이전(24명) 순으로 나타남.

〈그림 81〉 귀하의 자녀가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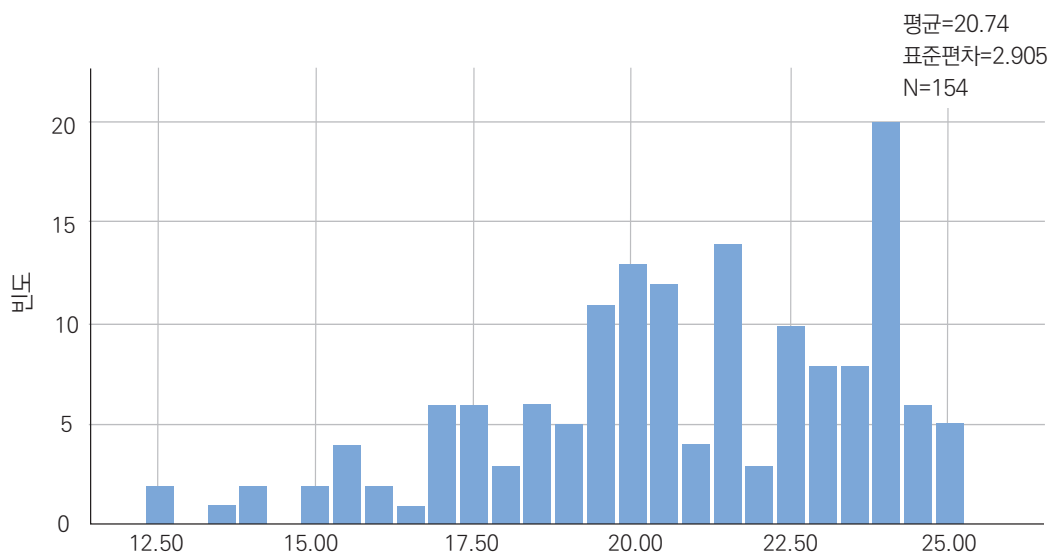
자녀가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주변에 공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83명,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이 53명으로 불편하다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82〉 귀하의 느린학습자 자녀의 동반이 어려워 모임을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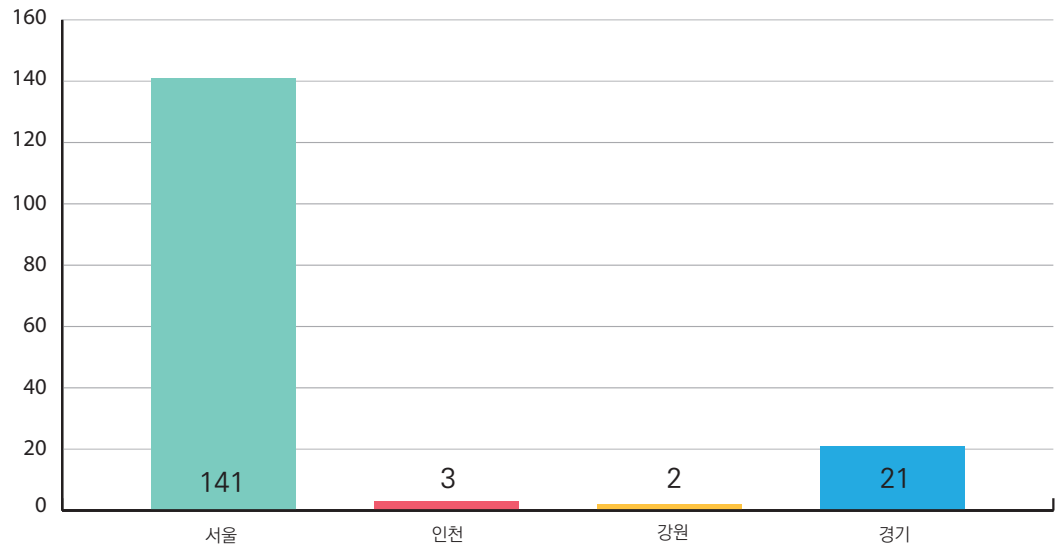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의 동반이 어려워 모임을 포기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73명,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8명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그림 83〉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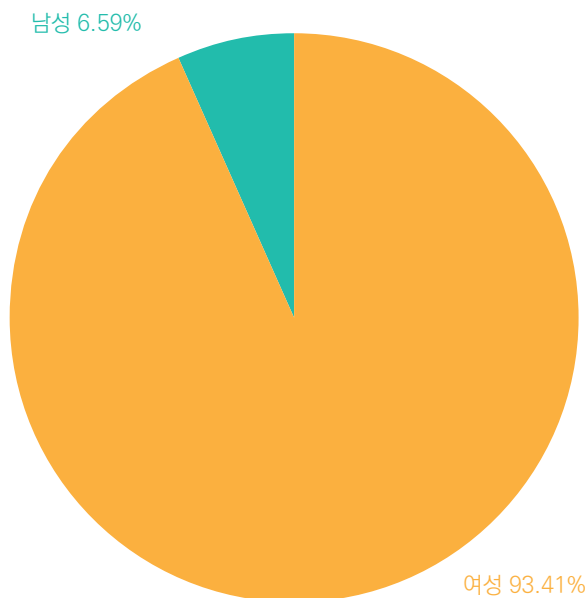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25점 만점에 최소 12.5점, 최대 25점이며, 평균은 20.74점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84〉 응답자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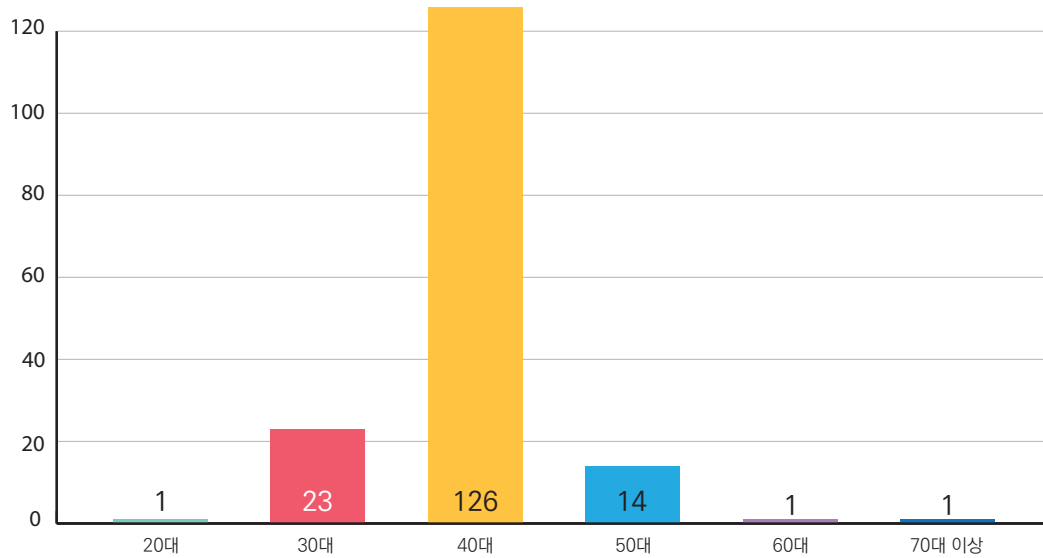
응답자 거주 지역은 서울 141명, 경기 21명, 인천 3명, 강원 2명으로 대부분이 서울/경기권 거주자임.

〈그림 85〉 응답자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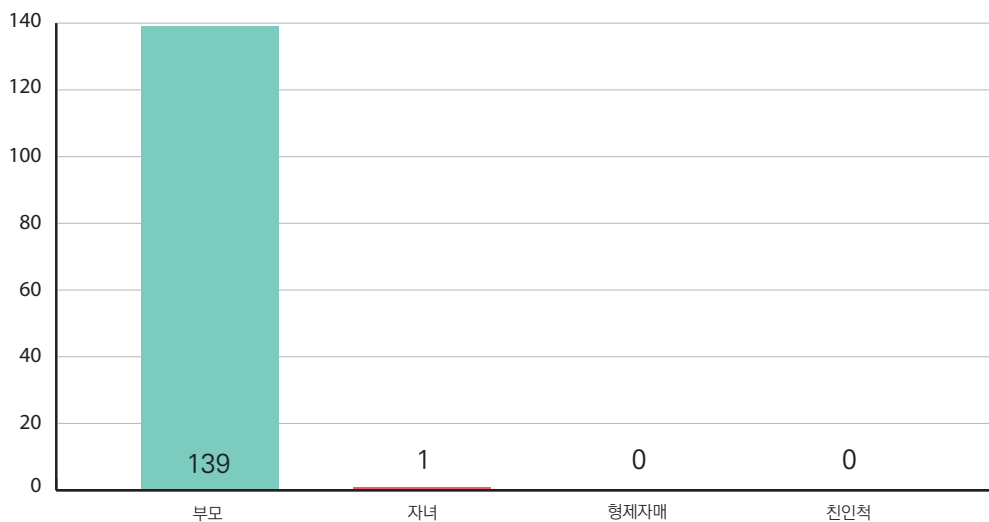
응답자 성별은 남성 11명, 여성 156명으로 대부분이 여성임.

〈그림 86〉 응답자 연령대



응답자 연령대는 40대 126명, 30대 23명, 50대 14명, 20대/60대/70대 이상 각각 1명임.

〈그림 87〉 응답자와 느린학습자 당사자와의 관계



응답자 중 139명은 느린학습자의 부모고, 1명은 느린학습자의 자녀임.

교 사

- 조사기간
- 2019.07.01.~2019.07.20.(약20일간 진행)
- 조사대상
- 학교 교사
- 응답자 특성
- 초등학교 교사 44명, 중학교 교사 34명, 고등학교 교사 29명, 총 107명이 설문에 참여
- 구조화된 설문지를 온·오프라인으로 제작하여 배포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느린학습자 워킹그룹

느린학습자 학교 생활 교사 인식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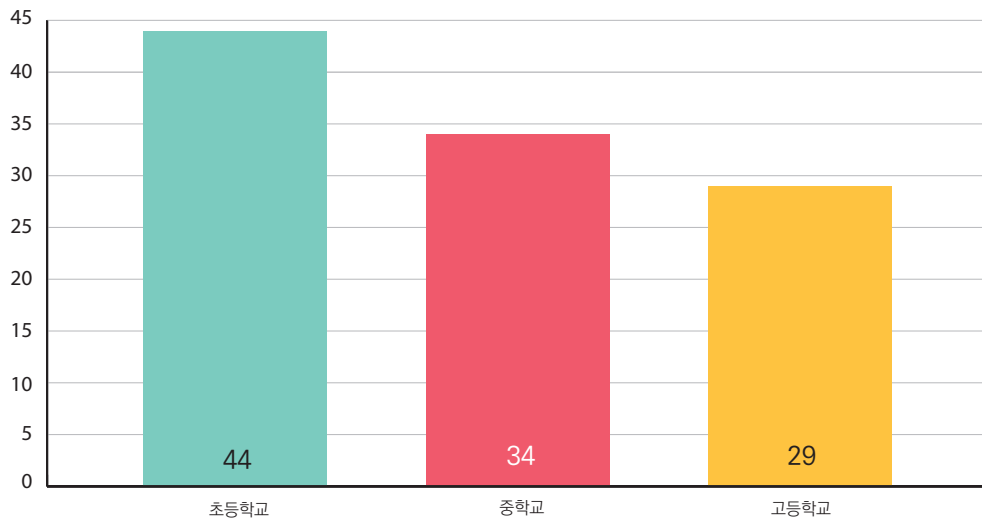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주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해!

느린학습자의 학교 생활, 교육지원현황, 교사의견 등을 파악하여
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
당사자 활동 촉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문조사기간	설문참여대상	설문참여문의
07.01(월) ~ 07.20(토)	서울시 초,중,고 선생님	느린학습자 워킹그룹 010-8255-08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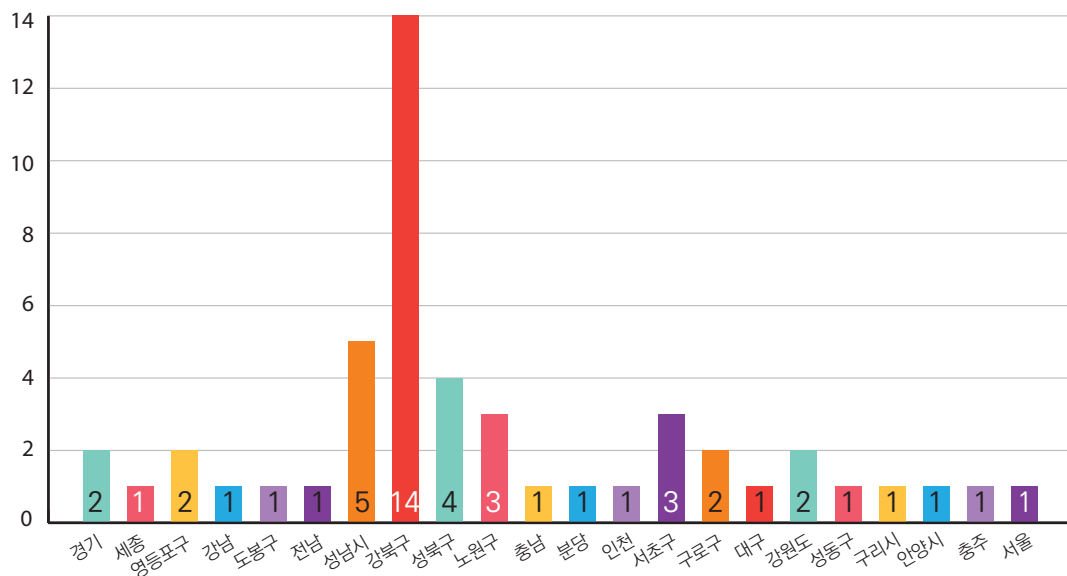


〈그림 88〉 응답자 학교 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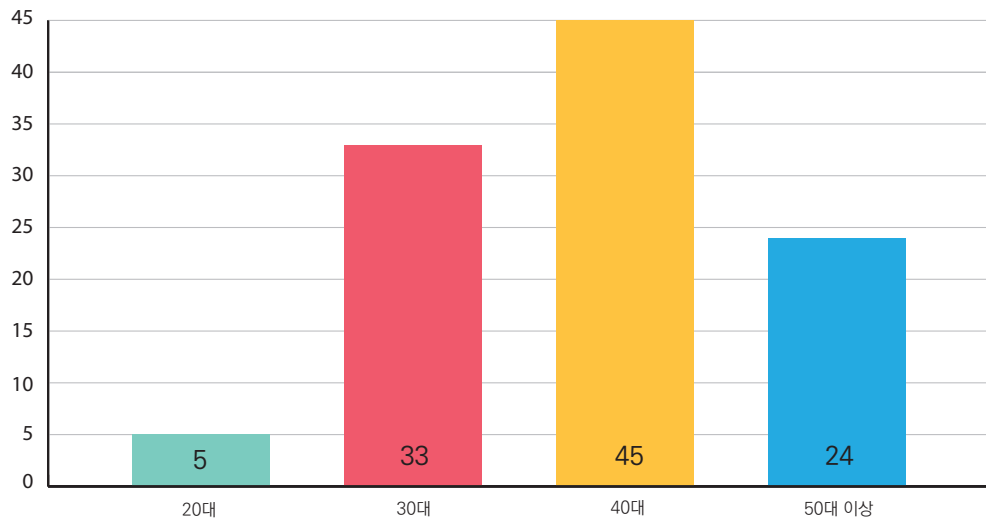
응답자 학교 급별은 초등학교가 44명, 중학교가 34명, 고등학교가 29명으로 나타남.

〈그림 89〉 응답자 근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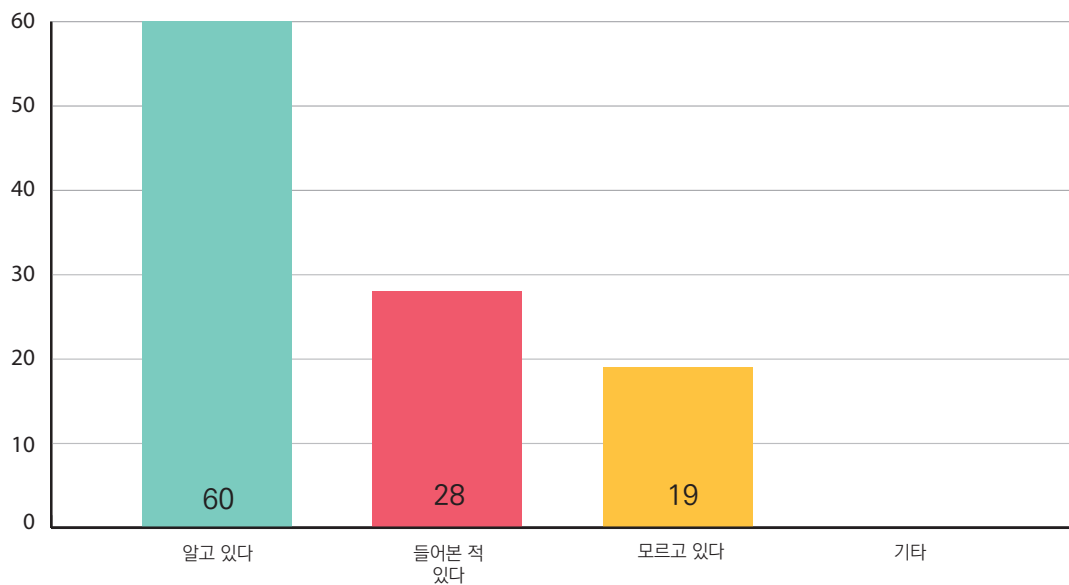
응답자 근무 지역은 서울 내 근무자 32명, 서울 외 근무자 18명으로 나타남. 서울시 내에서는 강북구가 1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90〉 응답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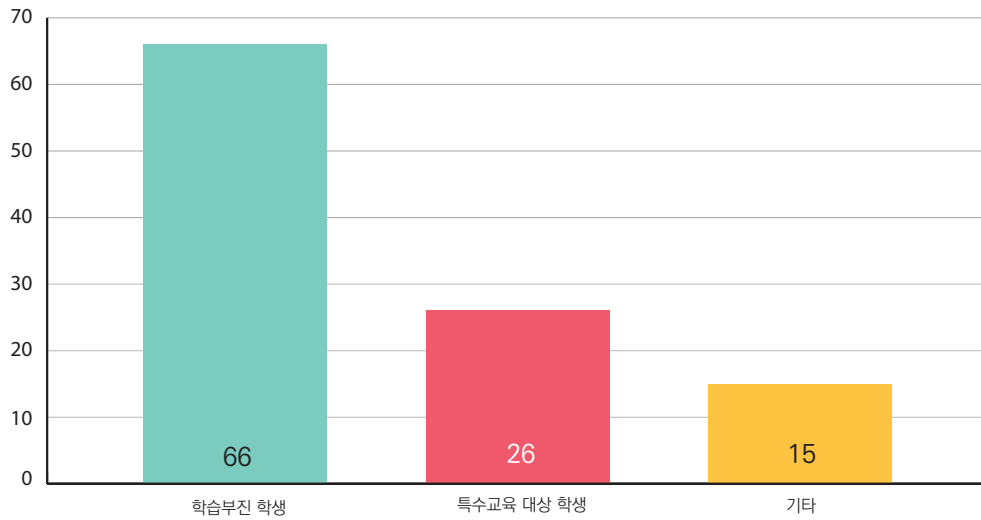
응답자 연령은 40대가 45명으로 가장 많음. 30대(33명), 50대 이상(24명), 20대(5명) 순으로 뒤를 이음.

〈그림 9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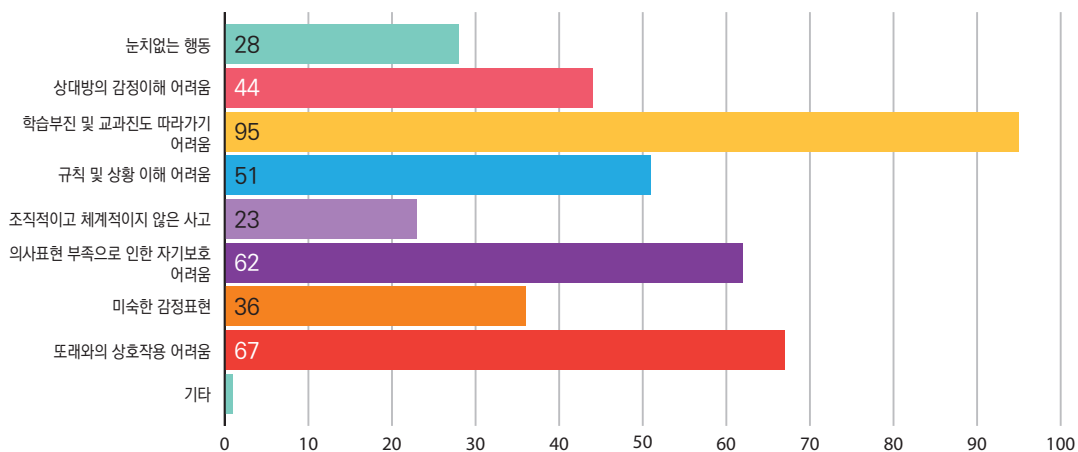
어느 정도 이상 알고 있다는 응답이 88명,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19명으로 느린학습자 학생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2〉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은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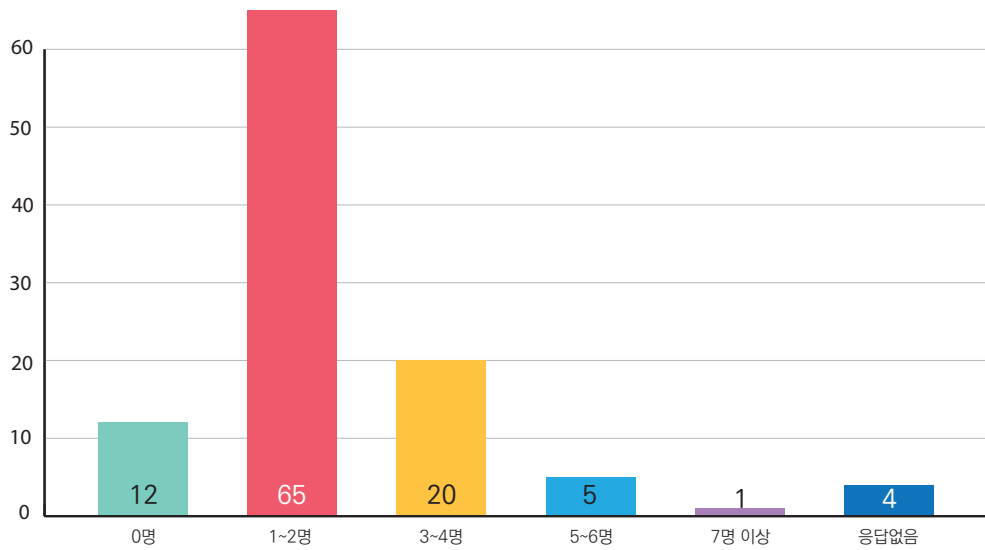
학습부진 학생이라는 응답이 66명, 특수교육대상 학생이라는 응답이 26명으로 느린학습자 학생은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93〉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정서 행동 특성 중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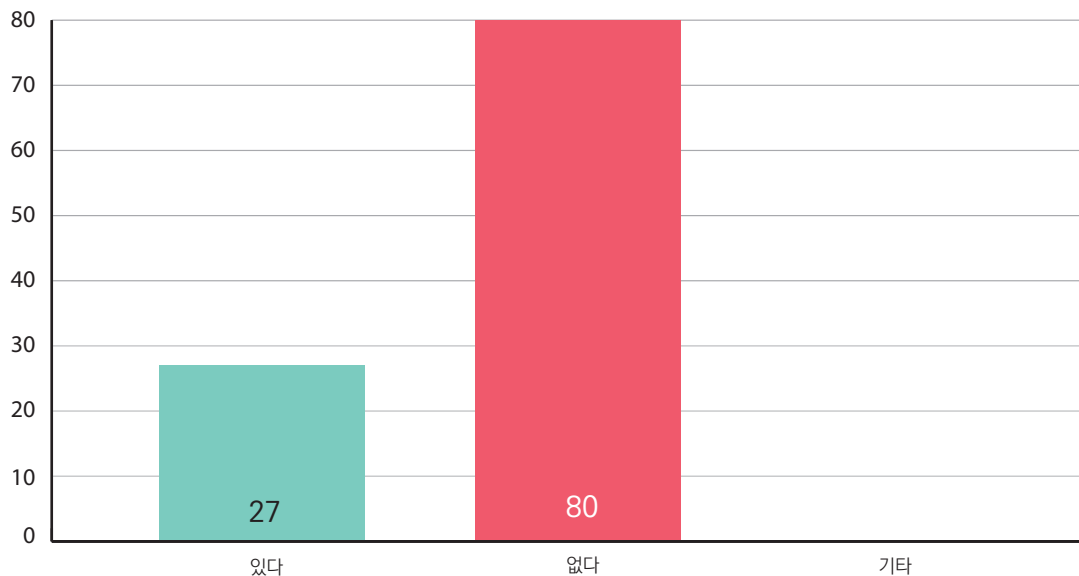
학교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학습 부진 및 교과 진도 따라가기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래와의 상호작용 어려움(67명), 의사표현 부족으로 인한 자기보호 어려움(62명)이 뒤이어 높게 나타남.

〈그림 94〉 본인의 학급 또는 수업을 들어가는 반 학생 중 본 설문에서 정의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이 있다면 그 수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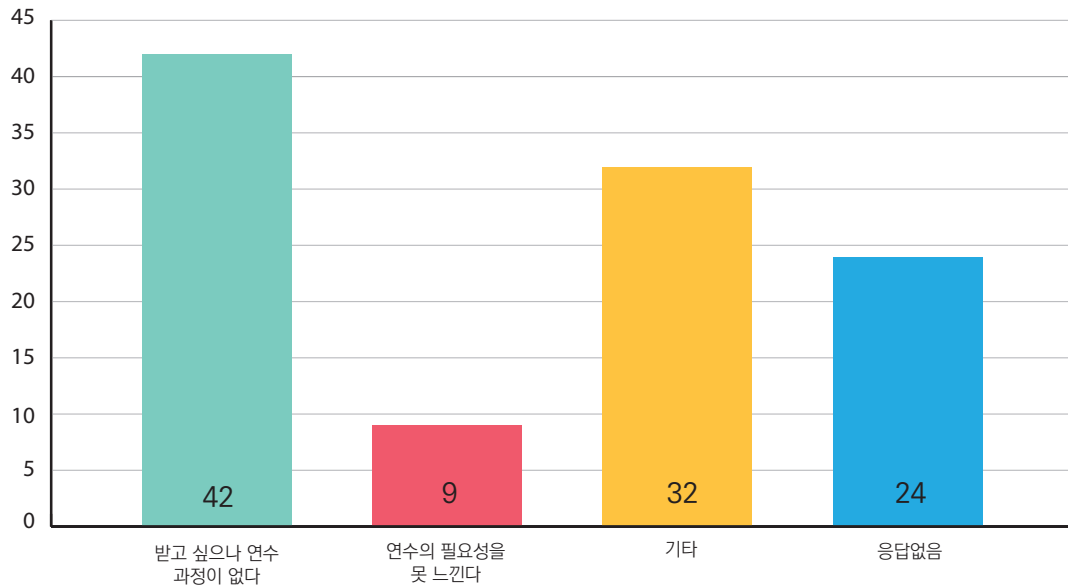
반 학생 중 느린학습자 학생 수는 1~2명인 학급이 65명으로 가장 많았고, 3~4명인 학급(20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5〉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도에 대해 교원 연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교원 연수를 받은 적이 없는 응답자가 80명, 있는 응답자가 27명으로 대부분이 교원 연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9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도에 대한 교원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원 연수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받고 싶으나 연수 과정이 없다라는 응답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9〉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 단위 학습 부진 교실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2 정도의 맞춤형 수업. 단순한 진도 중심의 학습이 아닌 인지치료로의 접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환경개선 및 동기유발 자료 개발
가족과의 연계
인식 개선 및 가정의 협치
학습자의 정확한 수준파악 필요 및 흥미 및 동기 증진을 위한 활동 증대
특수학급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것
특수학급으로 이동
단계에 맞는 교육부여
낙인찍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다. 직접 하는 것이 어려우면 인터넷 강의를 열든가 또래학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학생들은 아마 학원에 다닐 것 같다.
유아, 초등 교육 때부터 해당 학생의 학습속도, 사회적응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수업 설계와 이를 빠른 시일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심리상담, 심리평가지, 정신분석 등)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택이 아닌 반드시 이수해야할 과정이 되어야 함
교사 확충 및 전문가 배치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수업 진행. 지도교사, 담임교사, 가정과의 지속적인 연계
학교 단위 학습 부진 교실은 학습부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느린학습자의 사고 체계를 잘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심리상담 필요)가 필요함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교육을 위한 개별 계획 및 지원, 1대1 학습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 방과후에 남아서 억지로 공부한다는 느낌을 학생이 갖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
개인별 부진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지도 방법이 달라야 함
부진의 원인별 전문가가 진행해야 함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제공하는 전문 인력 투입
느린학습자의 진로나 진학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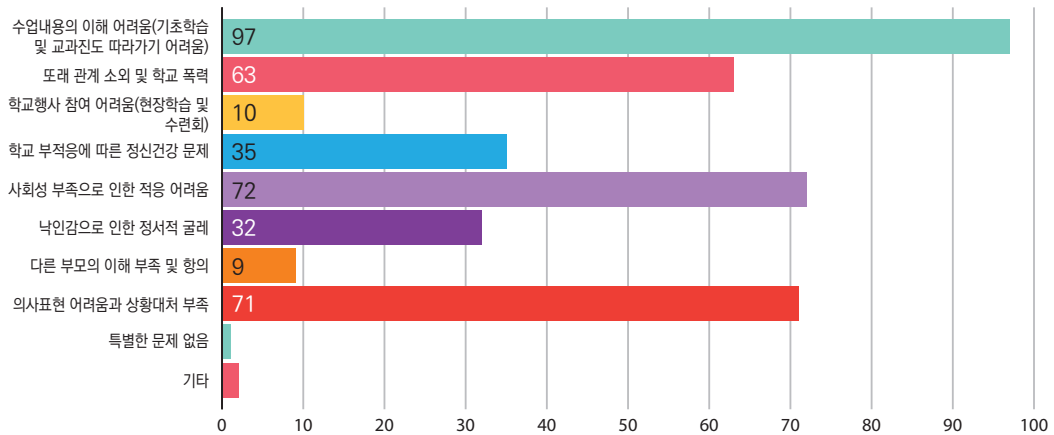
일과 중 학급에 전담 보조교사 필요
가정에 대한 지원과 돌봄
1:1 개별 맞춤 교육
부모 동의 및 적극적인 참여 지원
각각의 높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2. 포용을 통한 안정감 제공 및 자존감 고취
학부모님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이 학습 부진 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지도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류의 학생들은 학습결손의 문제를 학원 등의 사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 학원의 수업 구조는 입시나 시험대비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 이러한 류의 학생들이 개인 과외를 받을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경우도 다수임. 따라서 이러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학생-학부모-학교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이를 가정에서부터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느린학습자의 참여욕구 고취 방법 모색 참여후 향상된 효과 체감
학생의 학습에 대한 의지와 태도, 가정의 관심과 부모의 지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도움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낙인이 덜한 분위기?)
학생에게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교사 교육
학부모 이해교육이 꼭 필요
전문 인력 배치 및 학생수 최소화
전문인력, 특수교사 배치
전문 강사를 통한 수업의 질 제고, 강사와의 래포 형성 강화
객관적 진단도구와 교육의 결정 권한이 학교에게 있음을 보장해주는 법률(학부모가 방임할 경우의 대책 필요)
부모와의 소통과 협력
학년 유급제 실시로 저학년부터 적극적인 지원과 진로 모색 필요
가정과 협력하여 학생의 수준에 맞는
없음
학부모의 자기 아이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인 협조와 지속적인 관심
별도의 교육과정 마련
부모의 관심 부족과 학생의 불성실 및 미참여를 제도적으로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실제로 해결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
보상체계와 관리
일대일 맞춤 지도
가정으로 특수교사가 방문지도해 개별 부족 부분에 따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일
지도받는 학생 수 조절(교사 1인당 학생 1인 지도)
느린학습자 관련 이해를 위해 교사 학부모 연수
학급이나 도움반외 중간반 운영

〈표 10〉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의 학습 향상 및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록해 주세요.

수업 시간 중 보조교사 배치, 서로 돕는 사회 및 학급 문화
학습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향상이 되지 않아 무력감에 시달리게 된다. 교육과정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 모든 학생이 꼭 다 잘해야 행복할까 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든다. 아이들과 잘 어울리기, 사회성 기르기 등을 돕고 있다.
학급 구성원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정확한 진단과 개별 목표설정과 개별 학습 지원과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와 학교 내 인식변화
경쟁 중심의 학교 문화를 탈피하고 노력, 예체능 학습 강화. 학생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하도록 하는 인권교육 강화
가족들이 본인의 자녀가 느린학습자임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그 다음 학습지도나 상담 지원이 가능해지는데 무조건 부정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변화 도모 가능
전담하여 의사소통을 도와줄 보조교사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 모든 과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에 역할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할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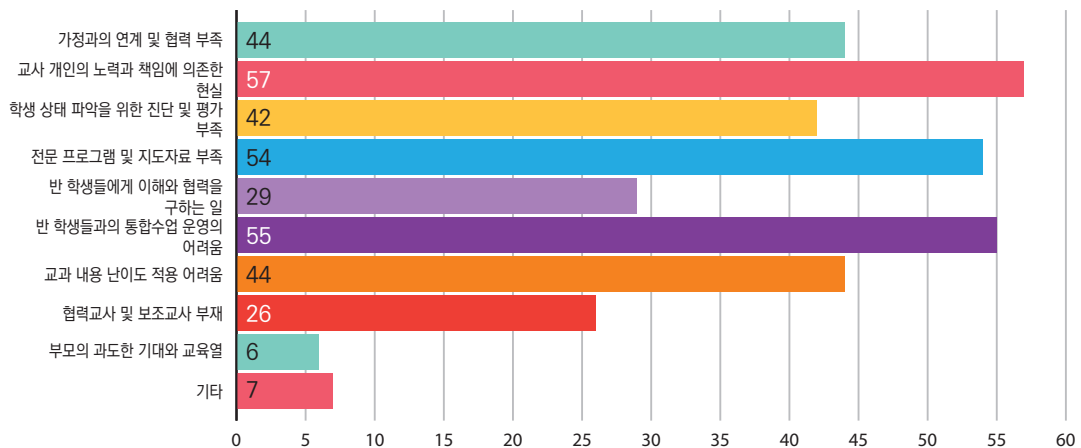
학생 스스로 학급 내, 사회에서 본인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찾아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 포기하는 것이 아닌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수업 진행
수업 시간 내에 보조교사 필요
가정에서의 협력과 병행 지도가 되어야 함
다름이나 일부분의 부족함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학교 분위기 조성(특히, 교육과정에서의 다양성 인정)
정서적 안정과 학생에 대한 이해, 성공경험 제공
특수반을 확대하여 느린학습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함
친구 및 주변인들의 이해와 협력
정확한 진단도구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 제고(교사, 학생 모두) 수업 지원 확대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보충학습이 아니라 일과 수업시간 중에 개별맞춤 특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
배려와 지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지속적인 활동
수업 중 협력강사 지원
일반 학생들과 지속적 교류 계기 제공, 수호천사 등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 및 유대감 형성
사회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사회성까지 결여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올바르게 못한 방향으로 분노를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학습부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도움학습 뿐 아니라, 정서적안정 도와와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내에 전담교실과 전문 프로그램 도입
느린학습자를 위한 보조교사 배치
1학년 때부터 체계적인 개인지도 전문 상담가의 가정 상담 등
수준별 수업과 자존감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
가정에서 느린학습자임을 인정하는 것
개별화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
1. 일반학습자와의 유대관계증대를 위한 활동 및 시간 필요 2. 수업 시간 내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간 필요(ex.수업 중 5분은 꼭 느린학습자를 위한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 도움, 기타 활동 준비)
또래와 어울리며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
정확한 진단으로 인한 분리수업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
1인1기 학습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성취감을 느낄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가정과 연계하여 학습 부진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인식. 학생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성취 의욕 신장
없음
교사와 학급아동의 이해와 격려와 관심
작은 성취감을 맞보도록 하는 활동
낙인감을 극복하고 단지 느린 것 뿐임을 알게 하는 프로그램과 전담 학생들의 공부방을 통해 미래와 진로에 대한 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일 겁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조
느린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학교활동이나 프로그램 운영
친구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정말 지도가 힘듭니다. 사회적인식 및 교유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느려도 학습을 따라올 수 있도록 끄는 것
보조교사 배치
느린학습자 담당 교원 배치
느린학습자를 위한 전문교사와 주지교과의 중간반 운영으로 사고력 증진과 더불어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97〉 선생님께서 보실 때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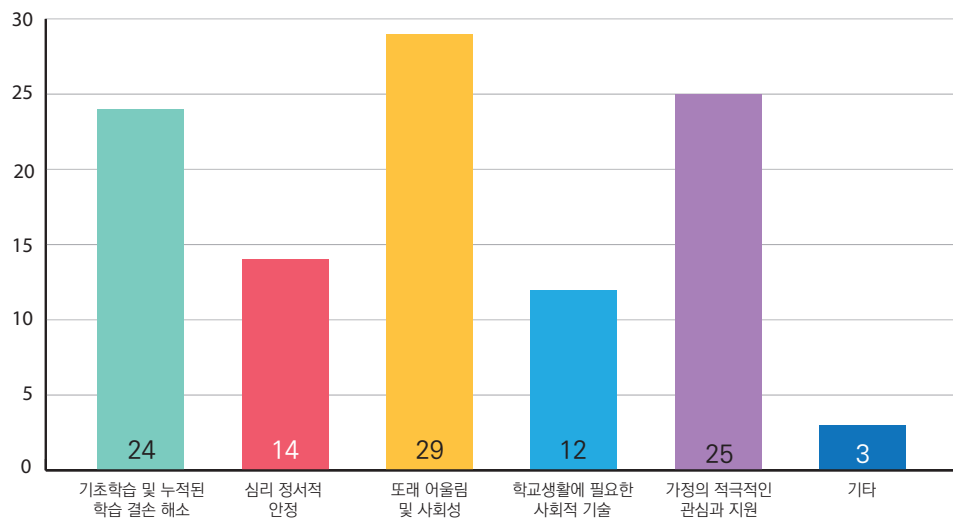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으로는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이라는 응답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성 부족으로 인한 적응 어려움(72명)과 의사표현 어려움과 상황대처 부족(71명)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98〉 선생님께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을 교육하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학생 지도에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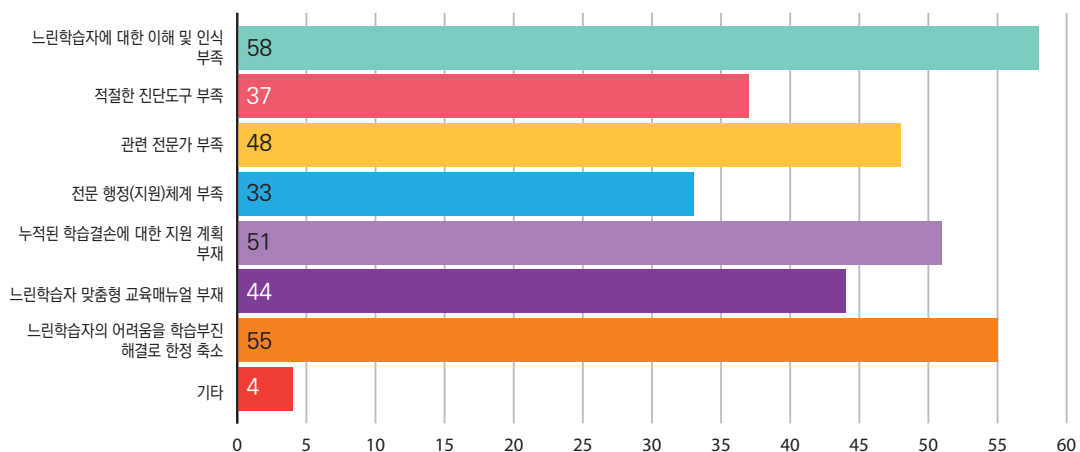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학생 지도에서 겪은 어려움으로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책임에 의존한 현실이라는 응답이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반 학생들과의 통합 수업의 어려움(55명), 전문 프로그램 및 지도자료 부족(54명)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남.

〈그림 99〉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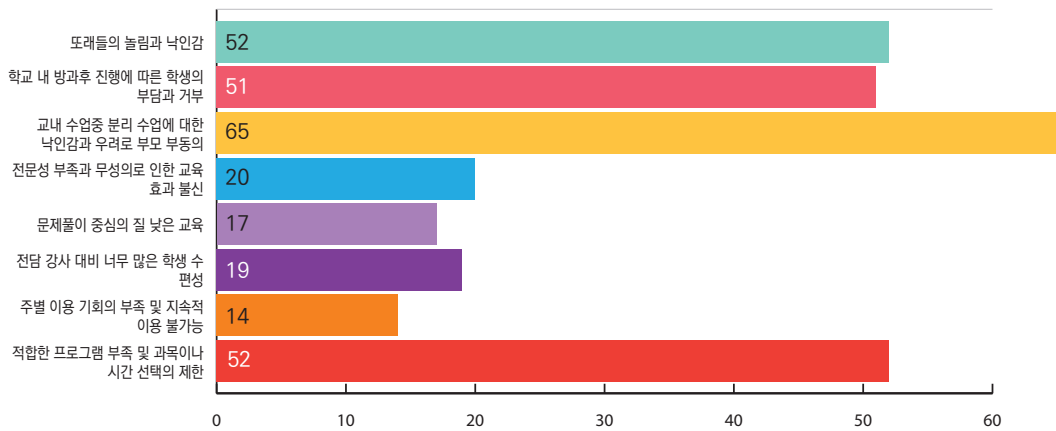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학생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는 또래 어울림 및 사회성이라는 응답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25명)과 기초 학습 및 누적된 학습 결손 해소(24명)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0〉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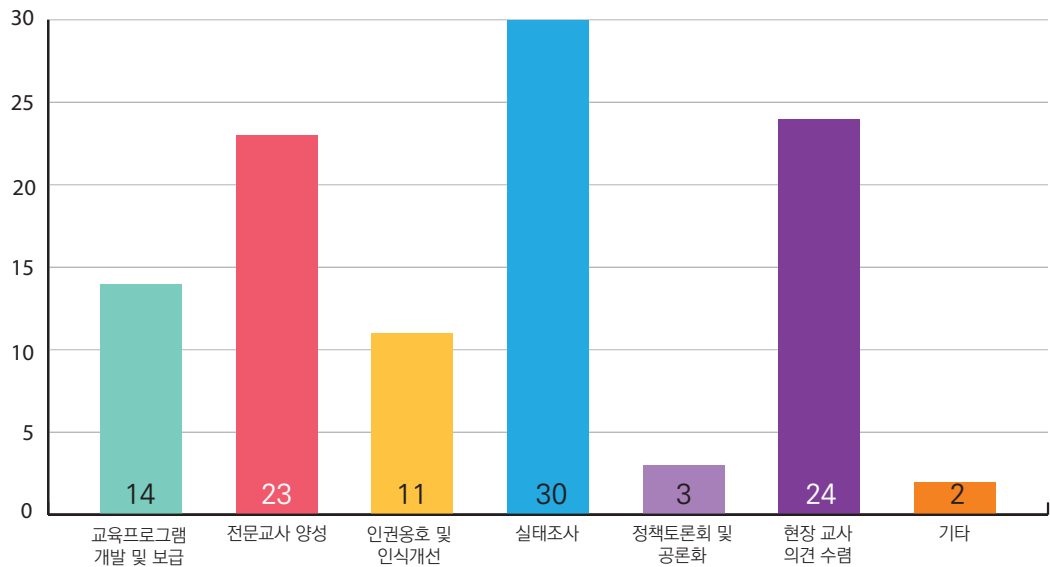
학교 교육 현장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의 교육 기회의 평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인식 부족이라는 응답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느린학습자의 어려움 학습 부진 해결로 한정 축소(55명),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지원 계획 부재(51명) 등 대부분의 요인이 높게 나타남.

〈그림 10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들이 학교 단위 학습부진 교실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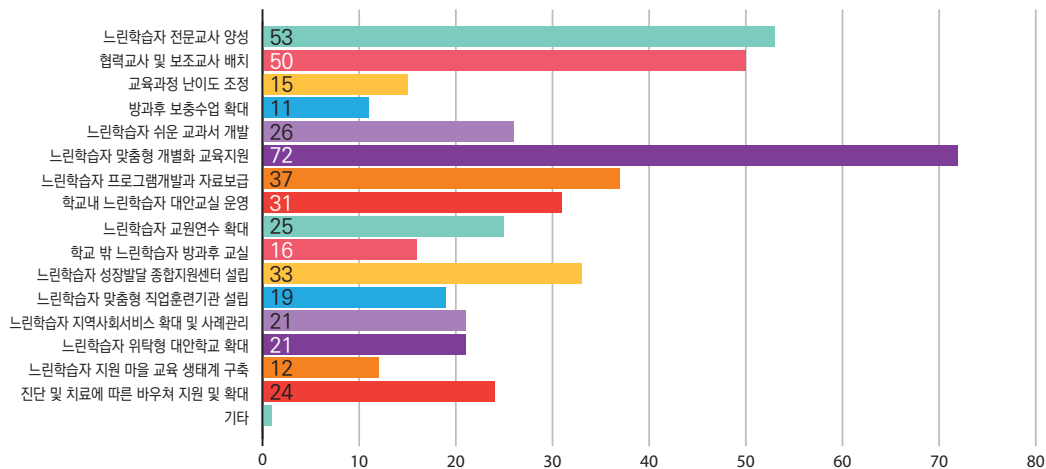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학습부진 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내 수업중 분리 수업에 대한 낙인감과 우려로 부모 부동의라는 응답이 65명으로 가장 많으며, 적합한 프로그램 부족 및 과목이나 시간 선택의 제약과 또래들의 놀림과 낙인감(54명), 학교 내 방과후 진행에 따른 학생의 부담과 거부(51명)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2〉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는 응답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장 교사 의견 수렴(24명), 전문교사 양성(23명)이라는 응답은 비슷하게 나타남. 정책토론회 및 공론화(3명)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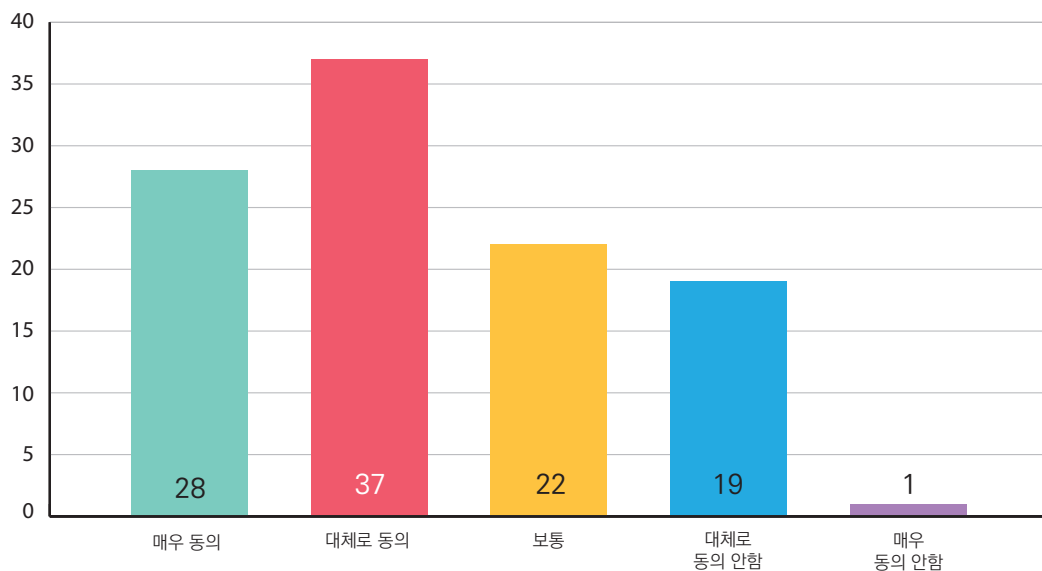
〈그림 103〉 다음 중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의 교육 기회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예시입니다.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문항 5개를 선택해 주세요.



느린학습자 맞춤형 개별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명으로 가장 많았고, 느린학습자 전문 교사 양성(53명), 협력교사 및 보조교사 배치(50명),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 보급(37명), 느린학습자 성장 발달 종합지원센터 설립(33명)이 상위 5개 문항임.

〈그림 104〉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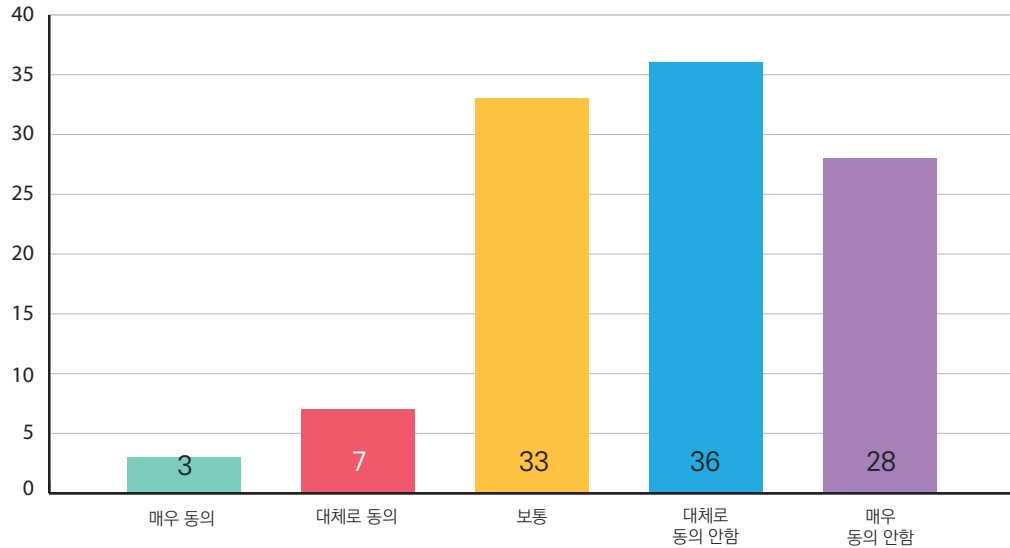
느린학습자는 교사의 지도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65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명으로 느린학습자는 교사의 지도에 의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5〉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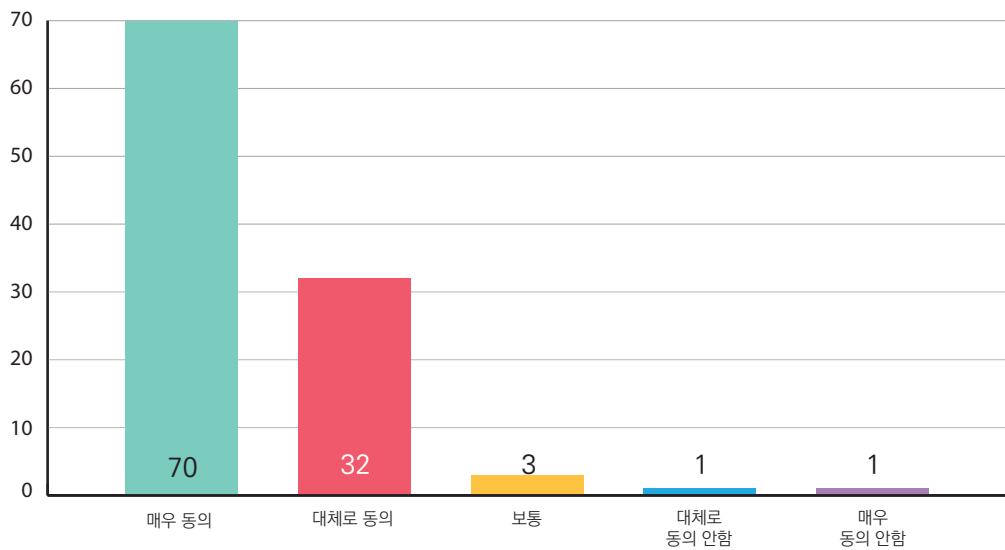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지도는 교사의 책임이므로 교사가 책임져야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명,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0명으로 대부분 느린학습자 지도는 교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6〉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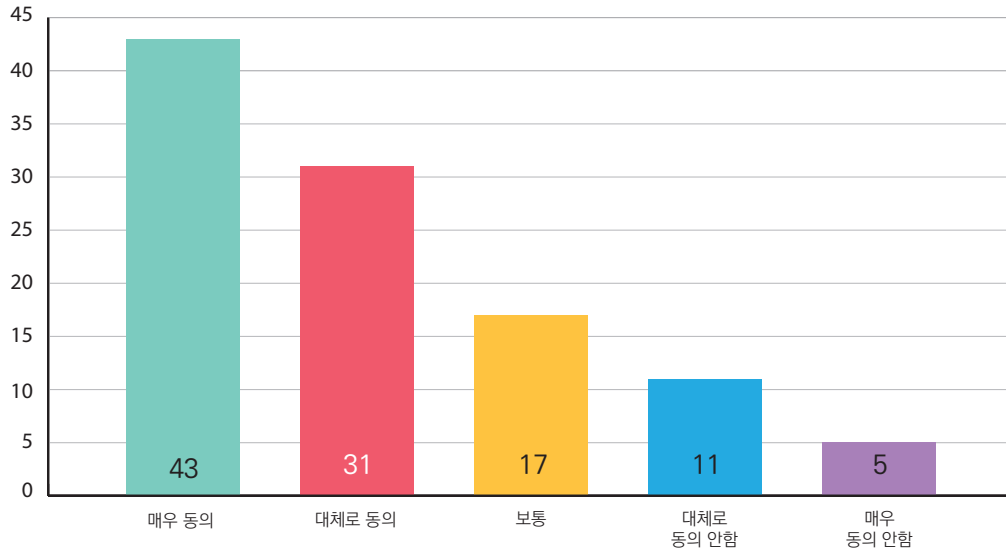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지도는 교사의 책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특수교육적 지원과 같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02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명으로 대부분이 특수교육적 지원과 같은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107〉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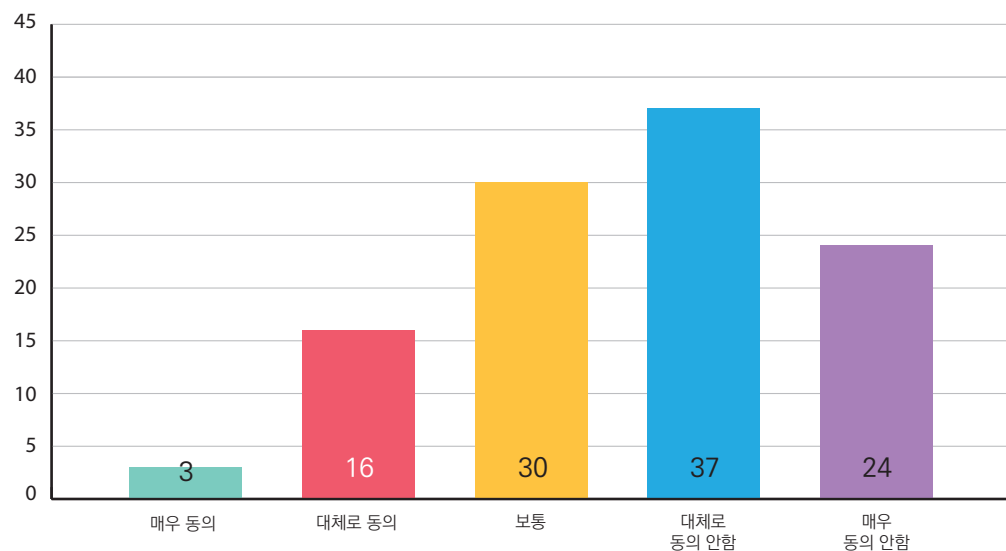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발생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43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6명으로 느린학습자 발생은 가정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8〉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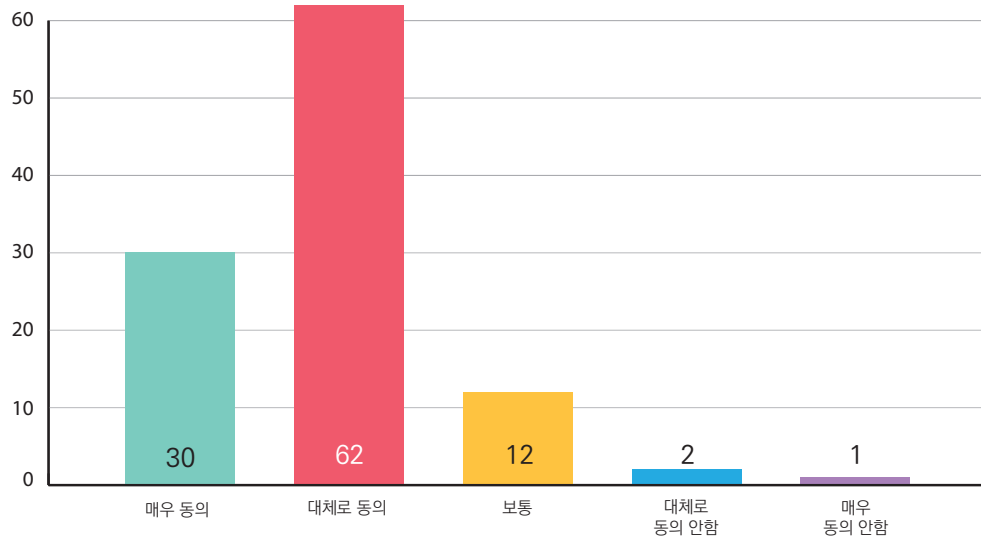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판별은 일제고사(진단평가)를 통해 가능하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19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명으로 일제고사를 통해 느린학습자 판별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109〉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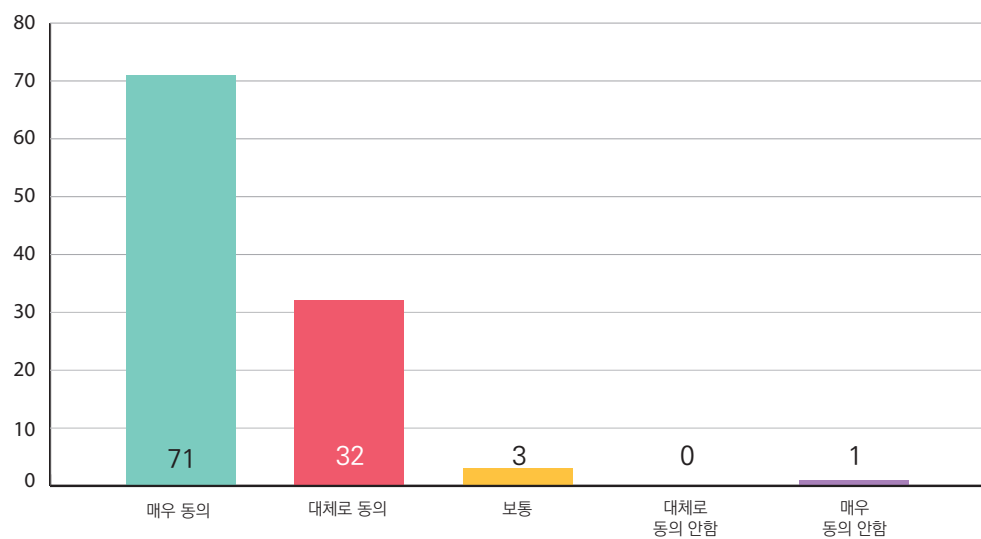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판별은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평가에 의해 가능하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92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명으로 대부분이 교사의 지속적 관찰과 평가에 의해 느린학습자 판별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림 110〉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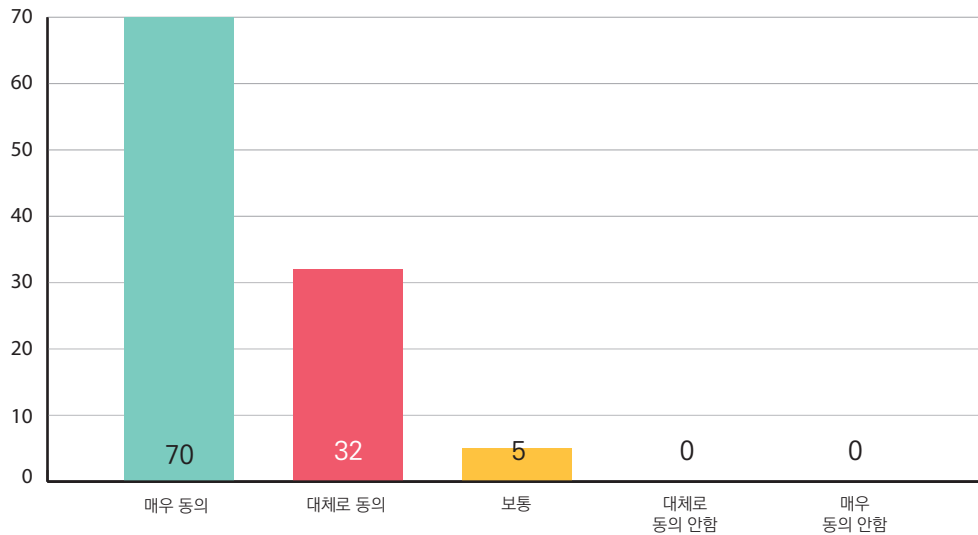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 판별은 인성, 가정환경 등을 포함한 다양한 판별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진단과 치방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103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명으로 대부분이 느린학습자 판별은 다양한 판별 프로그램에 의한 종합적인 진단과 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111〉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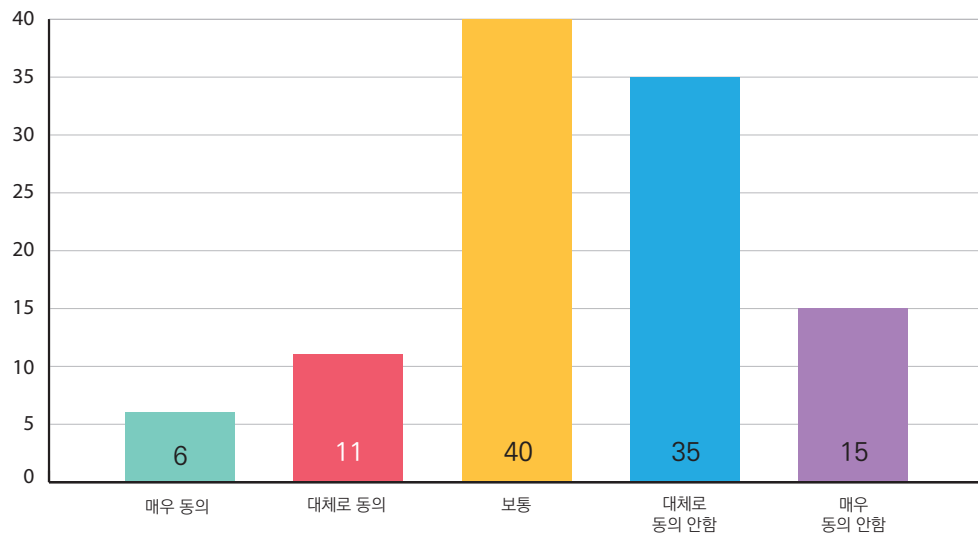
느린학습자에 대한 대책은 학교 외에 다른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102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0명으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학교 외에 다른 지원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림 112〉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알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생각에 표시해 주십시오.

현재 학교 교육에서 '느린학습지도'는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어느 정도 이상 동의한다는 응답이 17명,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명으로 현재 학교 교육에서 '느린학습지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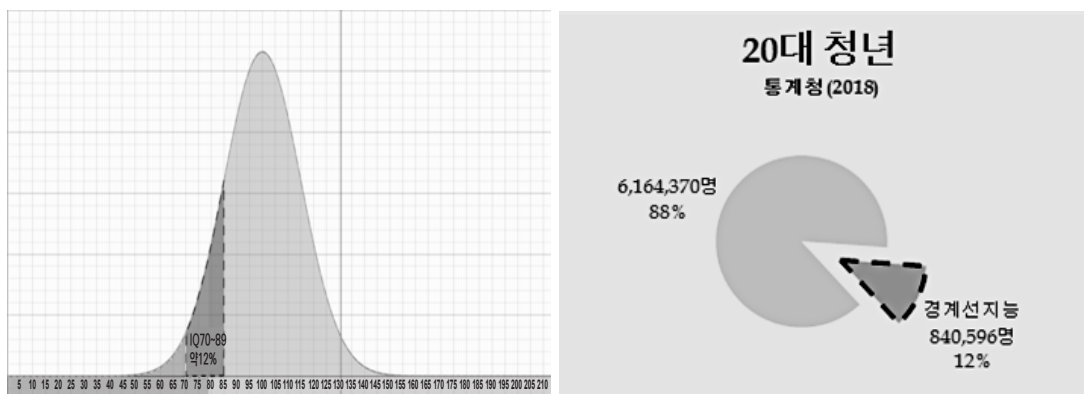
4-2. 개별인터뷰 결과

청년 느린학습자²⁾

1) 들어가며

한국에서 청년 느린학습자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전체 느린학습자 규모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느린학습자가 규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20대 청년에 한정하여 정규분포표에 기초하면 대략 80~1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엄청난 숫자이지만 현재 이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하고 20대로서 자립을 준비하거나 자립하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 N포세대로 불리는 청년의 열악한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듯이 청년 느린학습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울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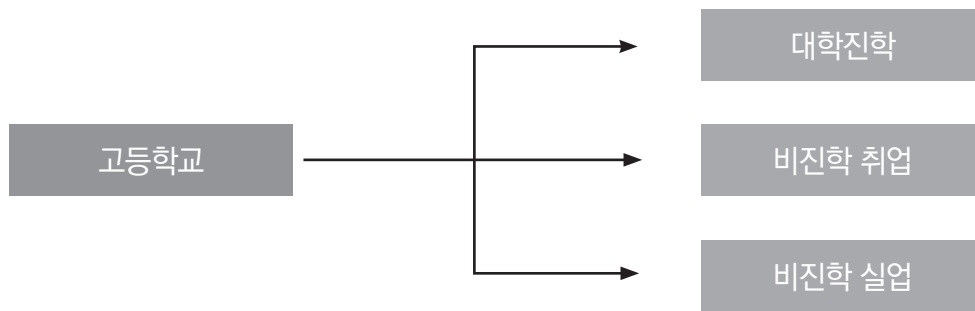
〈자료〉 20대 느린학습자 규모추정



일반적으로 20대가 자립을 준비하는 시기 또는 자립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가족형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자립에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즉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준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2) 청년 느린학습자 부모를 대상으로 한 FGI 자료(“부모”로 표기)와 진현정(2016), “경제선 지능 성인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가톨릭대학교 석사논문)를 추가로 활용

2) 청년 느린학습자의 취약한 자립구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청년이 된 느린학습자에게는 다음의 세 가지 길이 열려있다.³⁾ 첫째,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것이다. 대학진학률이 매우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느린 학습자가 대학에 가는 길은 분명히 열려 있다. 또한 많은 느린학습자들이 근본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지만 일정한 학업성취를 거두고 있는 것도 포착된다. 둘째, 대학진학 없이 취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회성과 기술 부족으로 인해 느린학습자는 이른바, 좋은 일자리로 가기 어렵고 아르바이트와 가족회사 또는 가족의 관계망으로 연결된 넓은 의미의 가족취업이 유력한 선택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진학도 취업도 아닌, 즉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실업상태에 놓인 느린 학습자는 부모와 가족의 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만약 이러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삶을 유지하고 있을지 생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가끔 보도되는 것에 따르면, 범죄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자료〉 느린학습자 관련 보도

범죄의 표적

이제는 돈 벌어서
진짜 얼마 아까워 감이 살고 싶어요.

위 사례는 2017년 8월경
유출당소 협구가 '경계선 지능인' 3인중
고용해, 이들의 사생활까지 털어지는 설을 악용하여,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고
10여 년간 혹은 수십 년에서 합숙시키며
설매에 열입을 한 사태를 작성한 것입니다.

* 경계선 지능 기준: 평균 인성능력 지능이 70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되는데 평균 지능(70 미만)인 지능이 낮은 사람이나, 경계선 지능 지능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90~100)도 있다.

‘경계선 지적 지능’, 소양이의 삶
(출처: 경찰청<https://polinlove.tistory.com/13571?category=571373>)

거리 떠도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 장애인 시설 적응 어렵고 비장애인 시설선 따돌림
가난 청소년들과 어울려 생활 생계매달도 등 비행에 노를... 제도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

원문 2015-06-17 02:19

(출처: 국민일보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121764#RedyAi>)

3) 학교밖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많은 학교밖청소년들이 느린학습자로 추정된다고 한다.

청년 느린학습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대학진학, 비진학 취업, 비진학 실업 어떤 경로도 꽃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 자립기 또는 자립준비기로서 느린학습자의 20대는 현재 위기에 처해 있고 이것이 앞으로 평생 이들을 어렵게 만들 확률이 크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부모와 가족의 몫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① 대학진학보다 대학유지가 더 어려운 과제

인터뷰에 참여한 청년 느린학습자들은 대학을 진학했더라도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유에 대해서는 주로 적성에 맞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이런 개별적인 요인 이외에 환경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보다 대학은 환경변화로 인해 느린학습자에게 더욱 어려운 도전일 수 있다. 즉 대학진학은 느린학습자에게 성취인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판단된다.

“대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를 갔다가 중간에 오고 취업해서 (...).”(부모)

“전문대 잠깐 갔다가 지금은 퇴학해서(...).”

“조금 박세기도 하고 인간관계 부딪힌 경우가 많았어요.”

“전문대학교 다니다가 중퇴.”

물론, 반대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따돌림 등의 고통을 겪었던 느린학습자에게 보다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시절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죽어도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왕따를 당했거든요.”

“제가 내성적이라 친구관계가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로 청년 느린학습자들은 대학 이전의 학교생활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떠올리며 발언하는 것을 꺼려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청년들은 고등학교까지 힘들었던 학교생활에 비해 대학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려 취미활동을 하기도 하고 동거를 생각하는 친구를 만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측면에서 느린학습자에게 친구관계의 중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② 남성의 경우, 군대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

고등학교를 마치면 남성들에게는 군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병역기피에서 알 수 있듯이, 입대는 많은 남성들이 피하고 싶은 의무이다. 특히 느린학습자의 경우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군

대생활의 어려움이 명확하기 때문에 가능한 입대를 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EBS 보도에 따르면, 남성 청년 느린학습자는 군대에서 적응을 못 하고 상당수는 관심병사로 분류되고 있으며 적절한 지원과 관리가 부재한 상황에서 괴롭힘, 가혹행위 등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터뷰에 참석한 청년 느린학습자는 군대문제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면제될 것이라는 자기암시적인 발언을 했고 군대를 다녀온 경우에는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느린학습자 부모와의 인터뷰에서는 자녀의 군대면제를 위해 장애등급을 받는 등 매우 중요한 문제로 확인된다. 군대 안의 가혹행위 등 다양한 문제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느린학습자 자녀를 둔 부모가 불안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③ 실업과 알바, 가족노동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요즘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 청년 느린학습자의 경우 진입로는 더욱 좁다. 설령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쓴맛’을 보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쓴맛을 본 경우, 실업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에서 만난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일자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지하지 못하고 이탈한 경우였다.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매우 낮은 한국에서 이런 경우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느린학습자의 경우, 가족 등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실업이 영구화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크다.

“공장에서 해봤고 알바도 해봤고 (...) 알바는 말도 없이 잘렸고 (...).”

“지금은 그냥 집에 있어요. 저녁에는 피씨방 가고 낮에는 그냥 핸드폰 하고 (...).”

“지금은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하는 거마다 탈락이 되는 거예요. 좌절감도 크게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구직하는 걸 손 놓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는 청년 느린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풀(pool)로서 기능한다. 안정적인 일 자리를 구할 수 있는 숙련과 기술, 사회성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훈련을 받지 못한 느린학습자에게 아르바이트는 유력한 노동시장 진입통로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역시 녹록지 않다. 한국의 아르바이트 시장의 열악한 조건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느린학습자의 경우, 저임금·부당 대우 등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장기근무를 하더라도 진급이나 승진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열악한 근무환경을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EBS). 인터뷰에서 나타난 결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여 이것을 느린학습자만의 특수한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알바는 9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일단은 지금 보조라서 수업시간에 약간 보조하는 역할 (...) 원래는 적게 주시려고 했는데 거리도 있다 보니까 150만 원 정도.”

“한 달 월급은 90만 원 정도.”

가족노동은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이다. 이때 가족노동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가족의 관계망을 통해 소개받은 일을 하는 넓은 의미를 가진다. 가족노동은 가족 또는 관계망의 지지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 등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숙련형성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지지를 통해 느린학습자가 심리적 안정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느린학습자는 극히 일부이며 향후 가족사업이 종료될 경우, 느린학습자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직장에서 노동을 지속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즉 지속가능성에서 취약하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전반적인 불안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것이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느린학습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향후 느린학습자 일자리 정책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가더라도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가 000 일을 하는데 그걸 같이 했으면 했어요.”(부모)

“어머니 일 도와주면서 캘리그래피를 하고 있어요. 알바 형식으로 뛰고 있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간단히 일 도우면서 알바 중이에요.”

④ 일자리는 단순히 일을 넘어 사회통합 효과를 나타낸다

연구사례 부족으로 결코 일반화할 수 없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청년 느린학습자들은 일에 대해서 매우 성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을 둔 부모들의 인터뷰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연구에서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느린학습자가 현재 일에 더 오래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Seltzer, 2005).

“자기가 출근할 일자리가 있으면 본인은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20분 일찍 나가서 기다렸다가 일이 시작되면 하고 (...) 공장에 10개월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고 (...).”(부모)

이런 성실한 노동태도는 노동현장에서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 지지를 확보한 느린학습자는 더욱 열정적으로 노동에 임하며 일정한 성취경험을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이들의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한다. 즉 더 많은 느린학습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인 것이다.

“(일을) 잘하고 있고 일찍 끝나면 옆에서 야채 손질하는 여사님들 도와드리고 하면서 귀여움도 받고 있고 (...).”(부모)

“학교 다닐 때 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부모)

“(일하는 곳에서) 애들이랑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직장 다니는 게 재밌어요.”

특히 성인기 느린학습자가 사회관계 형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외로움에 시달린다는 사실에서 이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느린학습자에게 관계 형성은 청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난제이며 부모와 가족이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지만 이해받지 못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도 뚜렷하게 친구관계나 그런게 형성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나지는 못하고 가끔씩 연락은 해요.”

“제가 말 동무가 없어서 (...).”

“친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만날 일도 많이 없고 (...).”

“전 친구가 상당히 적어요. 한 명은 직업군인으로 갔고 멀리 이사를 갔고 한 명은 저한테 사기를 쳐서 까버렸고 (...).”

“연락 없는 친구도 있고 친구를 안 만난 지 2년 정도 (...).”

“사이가 안 좋다고 느껴지는 게 가족들이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가까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단 말이에요. 갈 때 만약에 잘 지냈냐,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요.”

즉 일자리는 느린학습자에게 생계에 더하여 안정적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지지를 확보하는 다층적인 의미를 가진다.

⑤ 경제관념은 여전히 약하며 독립은 겁난다

인터뷰에서 나타난 것은 일 경험이 경제적 역량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을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부모가 경제관리자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일상의 소비생활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착된다. 당장은 안심이 되지만 부모의 지속적인 관리가 자립 측면에서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신용 및 체크) 카드의 보편화로 인해 느린학습자의 계산 부담이 줄었다는 것이다. 과거처럼 1만 원을 가지고 가서 분식가게에서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가게 사장님의 계산은 포스기가 대신해주고 거스름돈은 카드결제로 사라졌다. 잘못된 결제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영업점에 있기 때문에 책임소재로부터도 자유롭다. 이것이 기술발전의 효과로서 느린학습자에게 현재로

서 유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직은 용돈을 받아 써요.”

“(음식점 계산 관련 질문) 그냥 카드로 내니까요.”

“옷이나 신발은 어머니가 사주세요.”

“부모님이 월급을 관리하세요. 용돈 받아 써요. 정해진 액수는 없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세요. 주로 교통비 말고 쓰는 돈이 없으니까 (...).”

독립과 가족의 보호 사이에 후자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여러 인터뷰이들이 독립을 하고 싶지만 여건상 제약이 많고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말하고 있었다. 언젠가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가족보호가 해체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들에게 독립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는 전무하다.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해봤어요.”

“독립할 생각 없어요. 집에서 나오기 싫어요.”

“독립하고 싶은 생각 있어요. 독립할 때는 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청소기는 돌리는데 빨래는 아직 못 해요. 솔직히 말해서 요리는 거의 해본 적 없어요. 레몬조차 못 썰어요.”

“독립은 하고 싶는데 막상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없어요. 전혀 없어요. 집 나와 개고생.”

독립을 위한 적절한 사회적 프로세스가 없는 상황에서 부모는 성인이 된 느린학습자 자녀를 계속 보호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보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최소한 “내가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느린학습자 부모의 슬픈 바람은 끝내야 할 것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은행업무나 서류업무 같은 것은 할 수 없으니까 부모랑 가까운 곳에 살면서 (...).”(부모)

⑥ 연애와 결혼은 아직 어렵다

이성과의 만남은 고립을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하는 자기 개방의 기회를 제공한다(전현정, 2016). 그러나 느린학습자의 경우, 관계형성의 미숙함으로 인해 연애를 못 하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연애가 성적인 착취로 악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으로 인해 더욱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들의 반복적

인 교육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이를 과잉보호로 비판할 수는 없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인과 가족 차원에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앞으로의 연애계획에 대해 질문) 잘 모르겠어요.”

“전 여친 경력이 없습니다. 제가 대인공포증이 있다 보니까 그게 여성한테는 더 심해요.”

“연애경험 없어요. 앞으로도 할 생각 없습니다.”

“연애해 본 경험 없어요. 앞으로도 전혀 없어요.”

국내에서 느린학습자의 결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35세 기준으로 느린학습자가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혼인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Seltzer, 2005). 인터뷰에서 포착된 것은 가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결혼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즉 부모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데 느린학습자 당사자가 결혼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는 경우가 나타난다.

“저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결혼은 꼭 하겠대요.”(부모)

“부모가 죽으면 가족밖에 안 남을 텐데 결혼을 시켜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부분이 제일 고민이에요.”(부모)

“결혼생각은 아직 없어요. 혼자서 잘 살고 싶거나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결혼 생각 없어요.”

“결혼은 30대가 되어서 하고 싶어요.”

3) 청년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

현재 느린학습자 정책은 학습부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초등중교육법에 학습부진에 대한 지원이 언급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6곳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학습부진은 중요한 의제지만 결코 느린학습자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전생애주기를 고민한다면 학습부진은 심지어 부차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법과 조례 모두 학습부진 프레임에 갇혀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가지 질문을 야기한다.

첫째, 아동청소년 느린학습자의 문제가 학습부진에 한정되는가?

둘째,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성인기 느린학습자가 배제되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고등학교를 마치고 성인 이후에 대한 아무런 정책적 고려가 없다. 성인이 된 느린학습자는 적절한 시스템이 부재한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확률이 크다. 특히 중요

한 것은 느린학습자에 맞는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느린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공공일자리 모두 느린학습자에게 부적합한 정책이다. 사례관리자(case worker), 잡코치, 근로지원인 등 조력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약육강식 시스템인데 당장 우리 아이들은 취업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맞는 창업과 취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켜서 단순히 돈 버는 게 아니라 일하는 과정에서 즐거움도 느끼고 조금 느려도 욕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부모)
 “장애채용처럼 채용될 수 있는 명확한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부모)

또한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지지그룹이 필요하다. 외로운 느린학습자에게 가족 이외에 친구, 동료 등 지지그룹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지역사회를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지역은 느린학습자에게 일을 줄 수 있고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유력한 공간이다.

“가능하면 통합적인 사회생활을 시키게끔 해줬으면 하거든요.”(부모)
 “경력자가 있으면 경력자를 따라서 보조강사를 할 생각이 (...).”
 “대학교 친구가 절친이에요. 그래서 일러스트 페어나 플리마켓을 같이 가요.”
 “자신 없어요. 사람 상대하고 그런 것 못 할 것 같아요.”
 “부모님과 주위의 많은 지인의 조언과 격려가 있었고 회사 사장님의 기다림으로 현재 연봉 2,800만 원을 받으며 자신의 일을 당당히 해내고 있다(진현정, 2016:37).”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느린학습자 직업교육은 장애인영역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느린학습자의 경우, 직업선택에서 더 많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직업군 발굴이 필요하다.

“그나마 배운 것이 제과제빵이랑 바리스타예요. 과연 나한테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테리어에 관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리스타는 사람을 상대해야 해서 자신이 없고 컴퓨터 조립 같은 손 쓰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싫지 않은 건 어렸을 때부터 흥미를 가진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계를 좋아해서 (...) 처음에 서툴렀지만 빨리 적응할 수 있었고 고되고 위험한 일로 이직률이 높은 회사에 꾸준히 머무르며 하고 있다.”

고용지원체계 구축과 맞물려 중장기적으로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종합적인 자립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 자립은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독립상태를 의미한다. 단 고립된 독립을 의미하지 않으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뜻한다. 주로 경제적 독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독립, 정서적 독립(자기결정권)을 포괄해야 진짜 ‘자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느린학습자 영역은 경제적 자립조차도 요원한 현실이다. 본인과 부모, 가족이 힘을 모아 힘들게 자립기반을 만든다고 해도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이 없다면 더 큰 삶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느린학습자의 빈곤계층화와 은둔형외톨이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기본소득보장, 성년후견제도, 고용·주거·돌봄 지원, 평생교육 등 중장기적 안전망 구축이 중요한 과제이다. 느린학습자가 장애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보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러한 장점과 느린학습자의 잠재력을 강조하면서 정책화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스스로 본인들이 자립하고 나중에 결혼을 하면 가족을 돌볼 만큼 보장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죠.”(부모)

4-3. 포커스그룹인터뷰(fgi) 결과

느린학습자 학부모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 5명 한 그룹, 청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 4명 한 그룹, 총 두 그룹 9명의 학부모와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면서 준비된 질문에 대해 참여 학부모들이 의견을 나눈 결과를 주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주요 주제는 자녀가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개인적인 노력, 어려움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 교육 및 자립 관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사항 등이다.

1)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

학령기 학부모(평균연령 40대 초중반)의 경우 자녀들이 13개월, 24개월, 5세, 6세, 7세 등 영유아기에 징후가 나타나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되었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어 치료를 받거나 대안학교를 가게 된 것은 초등에서 중등 시기라고 응답하였다.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과 치료 시작 시점이 같은 경우도 있었고, 심각하게 느끼고 대처를 시작한 시점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청년기 학부모(평균연령 50대 초중반)의 경우는 대부분 초등 고학년 때나 중고등 시기에 학교 부적응으로 병원이나 상담센터, 복지관 등을 찾아가서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느린학습자임을 확

인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자녀가 느린학습자임을 처음 발견하는 시점이 빨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느린학습자인 건 어렸을 때는 저도 많이 바빠서 할머니가 많이 키워주셔서 어른들은 그냥 늦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딱히 생각이 없다가 학교 들어가니까 애들이랑 못 어울리고 공부도 잘 못하고 어느 순간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고 학교생활도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이라 중학교 때부터는 대안학교로 갔죠.(G)

저는 고3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느린학습자인 것은 잘 몰랐고 예쁜학교에 들어올 때 웹슬러 검사를 처음 했고 그때 학교생활이 어려워서 그런지 경계선지능이 앞으로 나왔어요.(I)

2)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 관련해 가장 힘들었던 부분으로 첫째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 부재 및 사회적 인식 부족, 둘째 느린학습자에게 배움의 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 셋째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 넷째 사회성 부족, 관계의 불협화음과 정서적 손상, 다섯째 학령기 이후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야기하였다.

①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념 부재 및 사회적 인식 부족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가 무엇인지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인식이 부족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너무 빈약함을 토로하였다. 특히 현재 청년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우 자녀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경계선지능의 개념이 거의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부적응의 문제가 계속되지만 병원이나 상담센터 등 이곳저곳을 찾아 헤매 다녀도 그 개념을 명확히 이야기해 주는 곳이 드물어 너무 답답한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학부모 자신 역시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몰라 매우 힘들었다고 했다. 장애 모임이라도 가서 정보를 얻고 교류하려는 노력을 했지만 특수교육아동 부모 모임에서 느린학습자는 중증아이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은 거 아니냐는 질시를 받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사회적으로 느린학습자에 대한 어려움과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여기저기서 배척당하기도 하는 등 이해 부족으로 인한 안전지대가 부재함을 호소했다.

저희 아이가 느린학습자라는 걸 알게 된 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것도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제가 상담소를 찾아다녔는데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엄청 찾아서 얘기했는데

상담소에서 IQ를 안 알려 주더라고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찾아 헤맸어요. 그러다가 OO에 있는 임상실험연구소에 계속 얘기하니가 경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상담치료는 계속 받았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계속 문제가 있어서 담임 선생님도 그렇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도대체 왜 아이들과 문제가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애 아버지가 초등 고학년 때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업시간에 뒤에 앉아 있기도 했어요. 결국에는 아이 때문에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F)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지금은 느린학습자나 경계성 지능장애라는 말도 알려졌지만 제 아이가 어릴 때는 그런 말 자체도 없었고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2년 정도 느리고 언어도 느리다라고 말씀드려도 선생님들이 서로 도움이 못 되니까 어려웠지만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 저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거 같아요. 나 역시도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어요. 사회적으로 인식도 안 되어 있었구요.(E)

② 교사들의 인식 부재 속에 느린학습자에게 배움의 장이 되지 못하는 학교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 도움을 줄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없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애들이 다 똑같지 뭘’이라는 생각으로 아이가 더 노력할 것만을 다그치거나 아예 방치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학교에 느린학습자라는 것을 알려도 일반교사나 특수교사들의 이해 부족으로 그것을 들어줄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따돌림당하며 학령기 포레 간에 상호작용으로부터 배우는 많은 것들을 놓치고 고립되고 상처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교생활의 주요한 요소인 학업, 교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등 그 모든 것이 힘든 속에서 이들은 결국 학교 내에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채로 살며 견디거나 탈출을 시도하고 있었다.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실수가 반복되고 학교에 있는 특수교사들도 맞춤식으로 교육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의 잣대도 결국은 다 중중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 느린학습자 아이들은 그냥 사각이에요. 일반도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는 하지만 그냥 우리는 투명인간이야.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느린학습자라는 걸 알린다 한들 그걸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담임선생님은 기대할 것도 없고 특수교사도 그 사람이 겪은 느린학습자만큼만 바라 봐 주지, 워낙 느린학습자도 찾기도 힘든데 우리 일반 엄마들도 아이가 19살이 돼서야 아는데 애초에 일반 사람들 중에 느린학습자를 발견하는 건 극히 드물어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를 밀어내고 특수교사마저도 아이를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그럼 정말 다친 사람은 아이와 학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 계속 코너에 몰릴 상황인거예요. 정말 시급하게 해결해야 돼요.(A)

학교에 느린학습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학교 선생님조차도 경계선지능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애가 이러이러해서 의심이 가는데 지능검사가 이루어 졌는지 지능지수가 얼마인지 물어보면 경계선이 뭐예요? 느린학습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인식(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딱 맞닥뜨리면 다음 말을 못 하겠어요. 벽같이 느껴져서.(F)

③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 그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은 느린학습자 자녀가 초등학생 시기 담임 선생님과 특수교사 사이에서 핑퐁되며 서로 지도하기를 꺼리는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과 특수반 선생님이 서로 지도를 떠밀어 아이와 학부모가 상처를 받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담임교사는 ‘반 분위기 해친다’, ‘학습부진이 심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특수반 선생님은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기준이 가장 높으니 가급적 반에 남아 있으라’하고 서로 밀어내어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애매함과 좌절감을 경험하였다. 우리나라 학교의 수업과 학생 관리는 주로 중간 정도 수준에 맞추어져 있어 느린학습자들은 대부분 수업시간의 학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특수반에서 중증장애인 아이들과 같이 있을 경우 장애인 아이들 지도에 밀려 경계선지능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고통 속에 대안학교를 찾아보지만 적당한 곳을 찾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나마 최근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를 위한 대안학교가 서울 경기에서 3곳 정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해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기준이 가장 높아요. 가능하시다면 담임선생님이 밀어내시더라도 어머님이 주장하시면 되니 있을 수 있는 동안 최대한 있으세요.” 또 담임선생님은 “아이가 반 분위기를 해칩니다, 기초학습이 부족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어느 누구도 아이를 감싸줄 생각이 없어요.(A)

④ 사회성 부족, 관계의 불협화음과 정서적 손상

학령기 동안 느린학습자들은 항상 친구관계가 힘들었고 학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들은 날마다 불안하고 가족들이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었다. 초등 고학년 공부 어려워지고 스트레스가 더해지자 머리를 뜯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성인이 되어서까지 화와 분노로 남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무언가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안 나와 실망하고 이에 따라 계

속해서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했다. 심지어는 느린학습자로서의 생활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해야 했던 모습도 포착되었다.

엄마의 욕심에 4학년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시켰죠. 안 되면 혼내고 이러면서 시키니까 애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왕따 당하고 집에서는 공부까지 가르치니까 애가 발산을 못 해서 자기 머리를 뜯기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하면서 (...).(B)

속상했던 부분은 친구. 친구가 없고 아무도 안 놀아주고 하니까. 언니들이 있어서 언니들이 놀아주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보단 괜찮았을 거예요. 셋이 컸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친구 없는 부분이 힘들었어요. 특히 애들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애는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해요.(H)

⑤ 감당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부담

경계선지능이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드는 비용부터 시작해서 이후 인지치료, 언어치료 등 치료 비용으로 월 100~200만 원 정도를 소요하는 등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었다. 두 자녀가 모두 느린학습자인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치료와 교육비 등은 가정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이 전적으로 엄마의 몫인 경우가 많아 자녀들의 치료,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찾아다닌다거나 자조 모임 참여 등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소진을 경험하는 경우도 또한 자주 관찰되었다.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과부화로 보호자들 역시 우울감과 좌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일단 제일 힘든 점은 느린학습자인 두 아이를 돌봐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빠가 다 그렇듯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저 혼자서 모든 총대를 매고 아이들의 심리, 치료, 교육을 모두 총괄하기 때문에 솔직히 엄청나게 과부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 이게 가장 어렵고요.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일단 뭐 나중에 책을 한 권 써야 될 것 같아요.(A)

저희는 지원은 전혀 없어요. 모두 다 저희 사비로 (...) (제 월급은 치료비로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C)

사회관계나 이런 걸 스스로 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이가 심리치료를 7, 8년 받았고 언어치료도 10년 정도 받았는데 그 치료비나 상담비가 엄청나거든요. 사실 남편조차도 애가 조금만 더 하면 비장애인처럼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못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애인단을 안 받다 보니까 그 모든 치료비를 자비로 해야 하고 특히 제도권 학교를 못 다니다 보니까 수업료에 치료비까지. 남들처럼 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치료비로 100만 원 넘게 나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시간당 6만 원 8만 원 하니까.(F)

⑥ 학령기 이후 사회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불안감

학령기를 지나고 남학생의 경우 군대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안고 있었다. 군대에서 이런저런 유형의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분노에 차서 총기사고를 낼 것 같아 걱정된다고 하였으며 실제로 군대에 갔다가 부적응으로 조기제대한 경우도 있었다. 무엇보다 취업 연령이 되었을 때 아이가 자기 먹을 것은 벌고 살 수 있을지,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부모의 사망 후 사기를 당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하는 미래에 대한 커다란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비장애인인데 업무를 시키면 명확하게 능력이 떨어져 취업을 보내면 제일 많이 해고당하는 게 느린학습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는지 답답함을 안고 살고 있다고 했다.

현역으로 갔다가 1년 반 정도 있었는데 애가 못 있겠다고 하는 거죠. 막 자살충동을 느끼고 그래서 안 되겠으니 상담사 선생님이 앞장서서 도와주셨어요.(F)

장애인들 보면 삼촌이든 누구든 하나를 후견으로 세워두는데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가족이 사실은 가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거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고. 제일 걱정되는 건 아이가 인감도장이나 통장관리를 잘 할 것인가,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인데.(I)

3)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적 노력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시키거나 극복하기 위해 부모 특히 엄마가 부모교육을 열심히 찾아다니다거나 직접 상담심리 전공 공부를 하면서 아이에 관련된 정보와 양육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일반교육으로 소화가 되지 않아 ‘소나기’와 같은 느린학습자 부모들의 모임을 찾아 정보를 듣고 자조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학교 교육복지실이나 위센터 등을 통해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 지역의 교육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의 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참여하기도 하였다. 특수학급이 없고 학교가 공부를 강조하는 분위기인 경우 전디기가 어려워 특수교육이 있는 학교로 전학을 가거나 느린학습자를 위한 대안학교로 전학을 하기도 했다.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자조모임, 대안학교를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도움이 되는 경우 그러한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 아예 이사를 하거나 두 집 살림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자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지역사회에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커피점에 가서 바리스타 훈련을 받아 보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을 스스로 찾고 활용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아예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장애아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이해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 현재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아무런 제도가 없는 상태라 장애등급이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을 받도록 검사에서 대답을 잘 하지 않는 경우

도 있었으며 이렇게 해서 지적 장애 3급을 받는 경우 장애등급으로서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등 혜택이 많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라는 이야기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장치를 해주는 도구로, 치료비의 과도한 부담에 대해 지원을 받는 통로로, 추후 자립하는 데 있어서도 취업 기회가 더 확보되는 차원에서 장애인등급을 활용하고 있었다.

나는 어떻게 하든 간에 동생까지 장애등급을 받아서 (...) 솔직히 이게 혜택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올라왔을 때, 친구 간에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인 보호장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셋팅했어요.(A)

저는 복지카드를 왜 받아야 되냐고 생각했는데 더 파고들다 보니까 방패막이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예림학교를 들어가려고 웹슬러 검사를 했고 그때 장애등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경계선지능이다 보니 지적 장애는 안 났고 자폐장애로 났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는 그런 성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3급으로 들어갔어요. 받고 나니까 기분이 이상했어요.(I)

4) 어려움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

느린학습자의 양육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현재의 제도나 정책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견에 느린학습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제도는 실질적으로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정책은 아니지만 현재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는 맞벌이 부모 대신 자녀의 치료를 함께 데리고 가주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학교에서 활동보조 선생님 또한 개별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담임선생님이 간섭받기 싫어해서 보조교사를 원하는 않는 경우 난감함을 경험했으며,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중증 순서대로 지원받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학교에서 적응을 못 해 특수반이 있는 학교에 전학을 갔는데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인정을 받아 학급에서 부반장이 되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해를 했던 모습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특수반 아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사례 회의를 하는 학교의 경우 너무 고마웠고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대안학교에 다니기 위해 부산에서부터 올라와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자신의 재능도 찾으며 너무 행복해 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지역 차원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교육복지센터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해 이해하고 대학생 멘토링 등 상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지역을 넘나들며 10여 군데의 복지관을 다니며 좋은 프로그램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했다. 구청과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피치마켓 등에 참여하며 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독서를 통해 토론 능력, 사회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고도 했다. 구청 지원비로 마

을공동체를 만들어 느린학습자 엄마들끼리 독서 모임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가에서 도움을 받은 것은 전혀 없고요 (...).(F)

정책에서 도움이 됐던 건 복지관 제도인데 제가 이 복지관만 해도 10여 군데를 다녔어요. 양천 장애인복지관도 다니고 신월, 신정, 구로, 광명, 제가 안 다닌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구로구에 사는데 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부모교육을 통해서 의식도 많이 개선하고 양천구 마을공동체를 제가 만들어서 300만 원을 지원받아 느린학습자 엄마들끼리 독서 모임을 했고 지금도 느린학습자 부모들끼리 활동을 하고 있고 (...) 대학생이 1:1로 멘토링을 해서 1 주일에 2시간씩 놀아주는 건데 이것도 아이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사회가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자존감을 높여줘야 해요.(A)

5) 교육(학교생활, 학업 등) 관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 사항

교육 관련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교 차원에서는 교사들의 인식 전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임용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교사 대상 연수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학교에서 담임과 특수반 교사가 학습지도를 서로 떠미는 상황에서 학습부진 지도 개선을 비롯해 학교 안의 학습지원체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 학교에서 학습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등 통합적 사례 관리를 위한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더 나아가 느린학습자를 위한 방과후교실 마련과 느린 만큼 직업 훈련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설립, 느린 학습자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설립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①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제도 마련

교사가 어떤 시선으로 아동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므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교사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다양한 아이들이 있음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 임용 교육과정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시간이 있어야 하며, 교생 실습이나 의무 봉사 등으로 전문적인 훈련이 선행된 다음 교사가 되기를 희망했다. 교사가 된 이후에도 교사연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에게 인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이도 저런 아이도 있는데 담임이 재귀찮아, 좀 그래, 이렇게 인식을 하면 애들이 다 그 애를 왕따를 시켜요.(B)

② 담임과 특수반 교사의 협력적 지원 등 학교 안의 학습지원체계 마련

느린학습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으며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특히 담임선생님과 특수반 선생님들이 서로 책임을 떠밀며 아이와 학부모가 상처받고 있으며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책임 있는 지도가 필요하며, 수업시간 보조 교사 배정 등 아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습부진아 지도라는 명목으로 방과후에 아이들을 남기지만 도움이 되지 않고 괴로워하는 상황이므로 수업 중이나 방과후 모두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공교육 내에서 안정적인 학습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OO초등학교를 갔더니 특수반이 두 반이더라고요.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나뉘는데 그 교실을 가봤어요. 방학 때, 특수반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니 이 학교를 보내면 다닐 만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시선이 달라 (...) 애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에 따라서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와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지금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B)

③ 정서, 사회성 등 전반적 관리를 위한 복지 차원의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느린학습자 학생들의 어려움은 단편적인 것이 아니므로 학교에서 학습, 정서, 관계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뿐 아니라 느린학습자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체계가 공교육 내에 안착되기를 희망했다.

어떤 제도와 복지가 공교육 내에서 필요한지, 느린학습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들어가야 하고 (...).(H)

아직은 다니기 무섭고 고쳐야 할 점도 있긴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많이 교육시켜 줬으면 좋겠고 꼭 특수반 선생님만 아니라 일반 선생님도 그렇고 정책은 복지하고 학교를 연결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전체적인 걸 했으면 좋겠어요.(B)

④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 인정 대안학교 및 방과후교실 마련

느린학습자 학생들의 가정 상황이나 성격, 다른 중복장애 여부 등에 따라 그 특성이나 욕구 역시 다양하므로 개개인에게 맞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학력 인정 느린학습자 대안학교가 서울에 마련되어 큰 도움을 받고 있으며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또한 이들을 위한 집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친구들 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방과후교실이

마련된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위탁형이라고 만들어졌고 학력도 인정도 되고. 그게 가장 도움받은 지점 같아요. 지금은 친구들도 많고 주말에도 놀러 나가고 해요.(I)

청소년기에는 특히나 그게 중요해요. 또래 친구.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방과후교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많이 만들어지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C)

⑤ 진로 직업에 대한 대책 마련과 조기 직업훈련 교육 마련

장애인을 위한 보호와 대책은 있지만 느린학습자를 위한 진로 직업에 대한 대책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 막막하다고 했다. 가족의 능력이나 인맥에 의존하고 있으며 취업을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자주 그만두게 되는 현실을 답답해 했다. 청년 학부모의 경우 정책 1순위로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안 마련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이들이 일반 학생들보다 느린 만큼 직업훈련을 더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이들이 가진 특성이나 장점을 잘 발견하고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이를 보면서 이건 좋은 장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같은 것을 지켜워서, 싫증나서 반복해서 못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출근할 일자리가 있으면 본인은 남들보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20분 일찍 나가서 기다렸다가 일이 시작되면 하고 본인에게 주어진 일은 피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한다는 거죠. 굉장히 성실해요. 공장에 10개월 동안 다닐 때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단 한 번도 결근하지 않았고 지금 마트 다니는데 당근을 500킬로를 닦았다고 하길래 힘들지 않았어라고 물어봤더니 불평하지 않고 (...).(G)

자립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때 가장 필요한 건 진로와 직업에 대한 대책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 어떠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인맥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정책 순위가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B)

최소한 중3, 고1부터 취업교육에 들어가야 해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하고 (...).(H)

⑥ 느린학습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느린학습자지원센터 설립

느린학습자와 부모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느린학습자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구마다 설립되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느린학습자들을 위한 치료 지원, 취업교육 지원, 정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애

기했다. 구마다 설치하기는 현재 어렵겠지만 종합지원센터 같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곳곳에 건립하면 어떨까 해요.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교육센터가 올해 안에 구마다 다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린학습자센터도 서울에 하나라도 생겼으면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부담도 덜고, 치료받을 때 돈도 많이 드니까 그걸 일정 부분 도움받을 수 있는, 언어치료라든지 심리치료라든지. 또 그 안에서 애들에게 맞는 취업교육도 받을 수 있고, 직접 시키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종합적인 교육센터가 당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H)

이 외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느린학습자를 채용하는 느린학습자 대상 사회적기업 설립, 아이들 맞춤형으로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성을 기르도록 일대일 멘토링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하였다. 느린학습자들이 결국에는 사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므로 이들을 분리하기보다 사회에서 더욱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인 교육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 사

초등, 중등, 고등학교(일반계고, 특성화고) 교사, 교육청 장학사, 대안학교 교사 등 6명의 교육관계자들과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면서 준비된 질문에 따라 참여 교사들이 의견을 나눈 결과를 주제에 따라 정리하였다. 주요 논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었는데 느린학습자를 지도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이다.

1) 느린학습자를 지도하면서 겪는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

학교에서 느린학습자를 지도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보편적인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에서 한정된 에너지로 느린학습자 지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특수교육 대상인지 학습부진아동인지 구분이 어려워 담임교사와 특수교사간 서로 지도를 미루게 된다는 것, 경계선지능의 원인 파악이 미흡하고 가정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고교에서 느린학습자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거나 특정 특성화고에 몰려 있다는 것, 학습부진지도로 억지로 학교에 남겨놓은 것은 전혀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는 것 등을 이야기하였다.

① 보편적인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교실에서 느린학습자를 감당하기 어려움

학교 수업은 주어진 교육과정을 가지고 동학년 수준에 맞추어 교육을 하고 있어 많은 수의 학생

들이 있는 학급에서 느린학습자에게만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여러 상태의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때로는 교사의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이것이 다른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반적인 교육자로서, 담임선생님으로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 공교육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물론 이 학생들도 수업 중에 소외가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수업에 들어오게 하고 학생들 간에 관계성을 촉진하면서 아이가 이런 과정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건 맞지만 교사가 이걸 다 한다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게 이 학생한테 정말 많은 에너지를 (...)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한정적인데 애한테 이렇게 투자하면 다른 아이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계속 존재하거든요.(A)

② 특수교육 대상인지 학습부진아동인지 구분이 어렵고 서로 책임을 미룸

누가 느린학습자인지를 교사가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거나 학부모와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조금 늦된 아이인지 학습부진아동인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인지 모호한 경우가 현장에 많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이 있을 경우 특수반에서 담당하거나 체계적인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지만 현재의 학교 구조는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서로 책임을 넘기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무리 봐도 이 친구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선정될 친구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그냥 기초학습 부진인 것 같은 (...).(B)

학교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다 좀 책임을 졌으면 하는 성향이 있고 (...)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특별한 지원이나 조치가 (...) 학습적인 방법에서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시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사실은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부진 강사를 따로 외부에서 학교에다 지원하는 정도예요.(E)

③ 경계선지능의 원인 파악 미흡 및 가정의 협조가 어려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지능이 낮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 가정에서의 방치나 방임으로 인해 어려움이 나타나는 학생이 있으므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그에 따른 대안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학교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가정에서 협조적으로 함께

노력하면 학생이 더 나아지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아 그 역시 어려움의 요인이 되고 있었다.

제가 한 15년 이상 느린학습자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이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경계선급 지능의 원인이 ‘애가 진짜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어렸을 때 가정환경이나 양육 태도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결과일까를 판단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경험해 본 경계선급 아이들 중 유전이거나 본인이 타고난 아이들은 5~10% 정도예요. 제가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나머지 90% 이상은 다 가정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애네들은 해결이 안 돼요.(E)

④ 고등학교에서 느린학습자라는 개념이 통용되지 않거나 특정 특성화고에 몰림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느린학습자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등 낯선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특정 특성화고의 경우 학습부진이나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워낙 많이 모여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했다.

느린 학습자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 봤고,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실 교사들 아무도 몰라요. 이 개념 자체도 모르고 (...). (C)

제가 있을 때부터 느린학습자가 많았죠. 많았고, 학습 때문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무기력이나 또는 어떤 학교 폭력의 피해?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상황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F)

⑤ 억지로 방과후 학습부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을 괴롭게 하고 도움이 되지 못함

학생들이 의지가 없거나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교사들 역시 시간적으로 도저히 방과후에 아이들을 남겨놓고 지도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상부에서 내려온 막대한 예산으로 아이들을 방과후에 억지로 붙잡아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이는 아무런 효과 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며 아이들에게도 학대나 다름없는 행위라고 인식했다.

부진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면 예산이 나와서 국·영·수 선생님들이 그걸로 그애들을 특별히 지도하는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건 뭐야, 도대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기는 하나.’ (...)

담임들이 남아서 아무거나 해야 돼요. 애들은 알바도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하고 그런데 개들을 묶어놓고 저녁을 먹여야 해요. 석식. 하여튼 그런 문제로 제가 굉장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느린학습자들의 학력 증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저는 봐요. 아이들과 교사를 힘들게 하는 그런 (...) 너무나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F)

학교에서 모든 걸 맡기고 돈 주고 너 해 하는 건 학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고.(C)

2)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느린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정책으로 교사들은 첫째 영유아기 체계적인 조기 선별 및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둘째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 인식 전환 교육과 배려 분위기 조성, 셋째 협력적 활동 수업, 흥미로운 통합학습으로 학생들의 동기부여 증진, 넷째 학생 수준에 맞는 학습지 개발, 전문교사 양성, 개별지원 교사 투입 등 맞춤형 학습지도 여건 조성, 다섯째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학교를 마련하고 선택권 부여, 여섯째 자치구별 느린학습자평생학습센터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① 영유아기 체계적인 조기 선별 및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느린학습자임을 영유아기에 발견하고 개입했을 때 발달단계상 더 많은 효과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진단시스템이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예방 효과가 높은 초등 저학년에 보다 더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조금 꿈을 꾼보는 건데, 사회복지사가 취학 전에 있는 아동들의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방임되고 있는지, 부모와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등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 그런 중요한 시기가 있잖아요. 아이들 발달단계에서 말을 배우는 3세에서 5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그냥 어린이집에 맡기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조금 할 수 있다면 진짜 많은 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 적절한 시기의 발달에 지원을 못 하면 그 문제가 계속 누적이 돼서 많이 힘들더라고요.(A)

그 돈을 차라리 3~5세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일단 선별해서 그 친구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집도 나름 중산층 가정인데, 아이를 교육시키는 데 5세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100만 원씩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별로 안 시키는 거였어요. 아이에게. 놀이, 언어, 그 다음에 특수치료 정도만 했거든요. 근데도 그 정도 돈이 나가는데 (...) 이제 그 센터에서 만나는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한 회당 거의 200(만 원)씩 들어요.(B)

1, 2학년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발달단계에서 문장이나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도전을 하는 (...) 학생들 간의 관계도 어린이집과는 달리 많이지잖아요. 언어능력도 갑자기 확 크는 시기이고.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문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어떤 학생이 완전 경계선 급이면 수업시간 중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짬짬이 남기는 것도 안 되면 중간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봐주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수업이라든지 그전에 애들이 했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못 해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A)

② 교사와 학생의 지속적 인식 전환 교육과 배려 분위기 조성

교사가 느린학습자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배려하는지에 따라 다른 학생들이 느린학습자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학급의 분위기도 달라지게 된다고 했다. 이에 교사도 학생들도 학교 구성원들이 느린학습자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인식 전환 교육을 하고 배려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항상 아침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물어보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종례시간에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깐 아이들도 답임이 그렇게 하니깐 같이 챙겨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아이는 좀 못된 아이가 있잖아요. 괴롭히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반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사실 오히려 괴롭히려 했던 개가 찌그러진 거죠. 그리고 2학년이 되고 답임이 바뀌면서 (...) 그 답임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 그러니까 바로 문제가 터지더라고요.(C)

사회적 약자나 차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가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데 사실 교사들 같은 경우는 교대에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일반 교사 같은 경우도 연수 부분에서 (...) 아이들에 대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창체나 자율이나 이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내에서 어떤 교육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중략) 사회교과에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와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좀 진단하고 계획을 해서 일반 아이들이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C)

처음에는 잔소리로 느끼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 대해 정말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나를 정말 챙겨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애들이 많이 변하거든요.(E)

③ 협력적 활동수업, 흥미로운 통합학습으로 학생들의 동기부여 증진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참여하고 협동하는 수업 방식으로 느린학습자들이 수업에 함께 참여하고 어울리는 효과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국·영·수에 국한된 학습이 아닌 체험

활동, 예체능활동, 실물 중심의 활동 등을 병행할 때 느린학습자들이 더 즐겁게 참여한다고 하였다.

경계선지능 아이한테 가장 취약인 방식은 주로 교사가 설명하고 다 개별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는 정말로 더 고립돼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식으로 수업하고 이런 거라서. 저희는 혁신학교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계속 수업을 나눠서 하고 하면서 다 협력수업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 수업이 바뀌면서 애네들이 표가 안 나기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다 도와주고 베퍼서 쓰고 학습지는 개별적으로 나눠주고 하더라도 보면서 알아서 쓰고 다 보여주고 그냥 옆에서 조금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니깐 그런 수업에 어떤 변화들이 조금 전제가 되어야지 애네가 학교 오는 이유가 있고 시간들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A)

무조건 국어 수학만 하지 말고 애들이 좋아하는 독서도 하고 중간에 영화도 보러 가시고 이런 (...) 체육활동도 넣고 이렇게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훨씬 더 좋았어요. 방과후에 한 거였지만.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3년하고 사업이 없어졌어요. (E)

학교 일과시간에 그 아이들을 모아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강사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 하루아침에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C)

④ 교재 개발, 전문교사 양성, 개별지원 교사 투입 등 맞춤형 학습지도 여건 조성

느린학습자를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교사 양성, 느린학습자의 특성에 맞추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교재 개발 등이 병행되기를 희망했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수업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옆에서 해석해 주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교사나 개별지원 교사 투입 등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가 준비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재 개발,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양성, 그런 것들이 좀 제도적으로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D)

저희가 찾은 최선의 방법이 뭐였냐면 보조교사를 붙이는 거예요. 전담 보조교사. 그러면 보조교사 선생님이 옆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아이한테 맞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애는 믿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짝 해결됐어요.(A)

수업 중에 이루어지면서 학습적인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그걸 좀 쉬운 말로 풀이해 주고 그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 프로젝트 학습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때에 결합해야 할지를 모르고 자기의 역할이 뭔지 잘 모르고 할 때 적절하게 나서서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안 되니까.(E)

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대안학교를 마련하고 선택권 부여

통합교육이 필요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고 오는 통합교육이 바람직한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느린학습자 학생들이 일반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자기 수준에 맞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여건이나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일반 친구들이랑 보통의 친구들이랑 같이 섞여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느린학습자 대안학교에 오는 애들 중에 80% 이상은 상처와 피해로 힘들어서 오는 애들이고. 애들이 담임선생님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서 그게 잘 보듬어져서 그림자처럼 있다가 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 속에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소통하고 함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과연 애들을 따로 놓고 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우리 학교 목적은 좋아져서 돌아가는 (...) 모든 대안학교가 그 대안학교에서 대안교육을 잘 받고 원적 학교로 돌아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게 맞는가 (...).(D)

⑥ 느린학습자평생학습센터 등 지역별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조직 설립

학습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부분 등 느린학습자를 위한 다양한 필요들을 함께 고민하고 채워가는 기관이나 센터들이 설립되어 지역별로 교류의 장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으로 느린학습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이나 정서적 지원,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 지역센터를 만들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만들든지 이런 사회적인 노력으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해요.(C)

발달장애평생학습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센터라든가 각 자치구별로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다 있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각 권역별로 우리 경계선 친구들을 위해 각 권역별로 모여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친구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게 제도적으로 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D)

5. 느린학습자 관련법 및 활동 조사 결과

5-1. 국내 사례

관련법 및 조례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가 되는 법으로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을 검토하였다. 이 외에도 느린학습자 학습권 보호 관련해 지원 근거가 되는 법으로 ‘초중등교육법’과 ‘특수교육지원법’의 관련 조항을 살펴보았으며, 각 지자체에서 이들을 고려하며 제정한 관련 조례를 확인하였다.

- ▶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가 되는 법 : ‘헌법’
-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법
 - ‘초중등교육법 28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의 기본 근거가 되는 법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34조

-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법 : ‘초·중등교육법 28조’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성격장애나 지적(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지적기능 저하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을 신축 운영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연수를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현재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4조’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2.>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8. 2.>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3. 10. 30.]

⇒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 학습부진아 등에 대해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하 교육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으로 빈곤대물림 차단을 목적으로 태동되어 예산 배정은 법정 저소득층의 수만큼 지원받고 있다. 현재는 교육소의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가고 있으나 대상에 느린학습자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없어 일부 느린학습자만이 매우 한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시행령 10조 관련 별표에 제시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3. 지적 장애 :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에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 : 장기간에 걸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등

-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출처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 대상에 장애인뿐 아니라 특별한 교육적 욕구가 있는 사람도 명시되어 있으나 인식의 부재 및 예산상의 한계로 중증장애인 위주의 특수반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다. 이에 느린학습자들이 특수반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들어가더라도 중증장애인에 밀려 이들 수준에서 적절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느린학습자 지원 근거 조례 :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을 말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천천히 배우는 학생실태조사 및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3.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방안
4. 교원 연수방안
5. 심리상담,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방안
6. 학부모 교육과 정보제공 방안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8.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참고〉

2018 전남교육계획,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427개교, 예산 460,880천 원

- 경계선급 지능 학생 및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실시(초 3~중 3학년)
-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자존감·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 자립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
- 학습코칭캠프 운영
 -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 집단·개별 상담을 통한 학습코칭 운영·이력 관리
-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실시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이해 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_2018_전남교육계획 2018

2019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선별 및 진단검사 실시(3월)
- 두드림학교 연계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정규수업 중, 방과 후, 방학 중 등
- 천천히 배우는 학생 지원 교원 연찬회 운영

▶ 출처 : 전라남도교육청_2019_2019 주요업무계획

⇒ 전남교육청의 경우, 2017년에 '천천히 배우는 학습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기초학력 담당 장학사가 본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2018 전남교육계획에 천천히 배우는 학생 특히 경계선급 지능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 2019년 천천히 배우는 학생 선별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관련 제도 및 활동

느린학습자 관련한 국가부처나 지자체 주도 정책(혹은 사업), 민간 혹은 민관의 협력하에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관련 활동들을 제시하였다. 관련 내용은 2019년 10월까지 발견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지자체, 국가부처 주도〉

- ▶ 서울시 느린학습자 도서관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쉬운 글 제작배포, 독서교실 등
 - 시끄러운 도서관 개관
 - 읽기 쉬운 콘텐츠 개발
-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 교육
- ▶ 보건복지부 단위 시설의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
-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를 활용한 느린학습자 치료 지원 (유사)

〈교육청 및 교육부〉

- ▶ 서울시교육청 산하 기관 느린학습자 관련 사업 및 활동
 - 서울 강북, 도봉, 동대문, 서대문, 성북, 용산 지역교육복지센터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 ▶ 교육부 차원의 학습부진 정책 (유사)

〈지자체 및 민간 협력〉

- ▶ 지자체 및 민간 대안학교
 -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학교
 -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이용 가능 대안학교
- ▶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느린학습자 프로젝트
- ▶ 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 ▶ 느린학습자 학부모, 관련 기관 네트워크
- ▶ '청년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2020 서울시 참여예산제 선정

〈민간〉

- ▶ 미디어를 활용한 느린학습자 당사자 방송

〈지자체, 국가부처 주도〉

▶ 서울시 느린학습자 도서관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 사업

■ 사업목적

- 느린학습자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고, 독서 습관화를 통해 독서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문화 향유를 넘어 누구나 정보를 이용하고 습득 지원

■ 사업근거

-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해소 지원)
- 지식문화 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9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1.~12.
- 사업비 : 419,700천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공공도서관
- 사업수행주체 : 서울도서관
- 추진방법 : 직접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
- 사업의 주요내용
 - 느린학습자를 위한 쉬운글 제작 및 배포
 - 느린학습자를 위한 독서교실 운영
 - 느린학습자를 위한 도서관 공간개선

○ 시끄러운 도서관 개관

세계청소년문화재단, '시끄러운 도서관 1호점' 개관 2019-09-27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세계청소년문화재단은 피치마켓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청소년들의 독서 환경 제공과 교류 활동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1호점'을 개관했다고 27일 밝혔다. 세계청소년문화재단과 피치마켓이 함께 운영하는 '시끄러운 도서관'은 마음껏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세계 명작, 청소년 필독서, 자기계발서 등 다양한 분야의 느린학습자 청소년들이 읽기 쉬운 도서를 비치해 두었다. 도서관을 방문하는 학생들은 자율적인 독서 활동이 가능하고 전문 사서의 독서 교류 활동을 배울 수 있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전문 강사와 대학생 멘토단이 진행하는 '느린학습자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느린학습자 청소년들이 꾸준한 독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도서관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 습득능력이 필요한 느린학습자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761366622624384&mediaCodeNo=257&OutLnkChk=Y>

이런 도서관은 처음이야! '시끄러운 도서관' 첫 선 2019-04-06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지식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총 6개 사업을 추진, 총 12억 2,000여만 원을 투입한다.

6개 사업은 ▲지역주민이 꿈꾸는 도서관 만들기(신규)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신규) ▲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지원(신규) ▲성인어르신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신규) ▲지식정보취약계층지원센터(가칭) 지정운영(신규) ▲자치구 기반 독서토론 활성화(지속)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은 1억 3,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마포구(마포중앙도서관, 마포구립서강도서관, 마포푸르메어린이도서관), 송파구(송파글마루도서관), 은평구(은평구립도서관, 구립중산정보도서관,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에서 추진된다.

▶ 출처 : <https://platum.kr/archives/119327>

○ 서울시 느린학습자를 위한 읽기 쉬운 콘텐츠 개발 용역

과업주관기관 :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10.일까지

사업비 : 금198,000,000원(부가세 포함)

목적

- 느린학습자(발달장애인, 경계선지능 등)을 위한 행정정보, 일상정보, 지역정보, 당사자요구정보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정보이용권 보장

과업내용

- ① 콘텐츠 중복 개발 방지를 위한 읽기 쉬운 콘텐츠 개발 현황 조사 분석
- ② 느린학습자 콘텐츠 개발을 위한 당사자·관여집단 요구 취재 및 리서치 실시
- ③ 서울시 주요 생활정보, 행정정보, 활동정보, 뉴스정보 수집
- ④ 수집된 정보를 느린학습자의 인지능력에 따라 쉬운 콘텐츠(글, 그림)로 개발(10종)
- ⑤ 개발된 콘텐츠를 느린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성디자인 개발□적용
- ⑥ 발달장애인, 느린학습자 대상 개발 콘텐츠 감수

○ 느린학습자 치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군	사업유형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아동 재활	영유아 발달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0~만6세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추후검사 필요등급을 받은 영·유아 및 보건소장 추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로 유아교육기관장, 보육시설장의 추천 아동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대근육·소근육 운동, 언어발달,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정서·사회성 발달 지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18세 이하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설정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등 제출 필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언어·인지·놀이·미술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제행동 감소 및 정서행동장애로의 악화 방지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7세~만18세 아동으로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아동 우선지원 교장·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하는 아동 등	정서불안, 문화적 소외아동 등에게 클래식 악기 교육 및 정서순화 프로그램을 제공

● (서비스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주1회(회당 50분) 제공하고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 제공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② 놀이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③ 미술프로그램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 ④ 음악프로그램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월4회(주1회) (회당: 프로그램 40분+ 부모상담 10분)
부가서비스	1.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필요시
	2. 부모훈련 : 아동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프로그램	수시

▶ 출처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2&PAGE=2&topTitle=지역사회서비스

○ 보건복지부 단위 시설의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 2014년 8월 사랑의열매중앙회 기획사업으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20억원이 지원되어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 조기발견 및 통합적 지원을 위해 15개 기관을 선정해 총 15억 지원.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청소년의 낮은 지적 수준 및 사회성 향상과 적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적용,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양성과정 시범운영 등 진행



〈그림〉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과정

▶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선지적기능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13억을 배정하여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 아동복지시설 경계선지능 의심 아동 대상 선별체크리스트 통해 1,000명 선발, 종합심리검사 후 880명 선발해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인지·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진로탐색·경제관념 교육 등. 1년 사례관리, 최대 3년 사례관리). 공동생활가정 및 양육시설 종사자, 위탁가정 부모 대상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사 양성교육(전문서비스 제공).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근거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개요]

가. 목적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경계선지능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나. 근거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다. 사업 대상자

경계선지능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 받은 아동.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사업 대상 시설로 선정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이하 “사업 대상 시설”이라 함) 및 시설 종사자 중 경계선지능아동을 돌보는 종사자(이하 “돌봄 종사자”라 함)

라. 사업기간 및 내용

사업기간

- 사업대상 아동 · 시설 발굴 및 돌봄 종사자 양성(1~5월)
- 맞춤형 사례관리 및 평가(6~12월)

사업내용

- 사업대상 아동 선정을 위한 선별체크리스트 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선정아동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 보수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마. 사업대상 선정 · 지원 절차

선별체크리스트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대상 아동·시설 선정·실행

▶ 출처 : 보건복지부.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느린학습자 자립 지원 교육

한정된 복지에산, 서울시는 'SIB'로 극복!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5000817> 서울시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2015. 6. 2

서울시의 1호 SIB 사업은 서울시내 총 62개 아동복지시설(그룹홈)에서 생활하는 경계선지능 및 경증지적 장애 아동 100여 명에 대한 교육 사업입니다.

SIB 사업을 통해 3년간 이들에게 정서를 치유하고 사회성 및 지적능력을 개선시키는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울시가 사업에 대한 종합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할 총괄운영기관을 선정하면 이 기관이 민간 투자자와 사업수행기관을 모집, 선정,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제3의 평가기관이 사업성과에 대한 전문적·객관적 평가를 내리고 성공적이었는 평가가 나오면 서울시가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성공조건은 대상 아동의 TRF(교사평가척도) 사후검사가 사전검사보다 상승하고 경계선급 아동 지능이 정상 수준으로 개선돼야 성공으로 인정하되, 성공인원 비율에 따른 원금 무보장형으로 지급합니다.

시는 사업이 효과를 낼 경우 소외 아동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방치되었을 경우 일생에 걸쳐 발생할 사회적 비용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 성공시(32명의 경계선지능아동이 일반지능으로 개선되었을 경우) 시가 분석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는 약 37억 원에 이릅니다.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SIB사업 예산절감 효과

① 국민기초수급자(시설) 1인당 연 사회적비용 : 892만원

▶ 출처 : 2014년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비(복지부 기준) 와 보장시설 운영비(서울시 기준) 적용

② 시설 퇴소후 1인당 생애주기 평균 수급기간 : 16.7년

▶ 출처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동태의 특성 및 수급탈출의 결정요인 분석(2010년, 이원진)

③ 수급자 1인당 생애주기 사회적비용 : 14,896만원 (①×②)

④ 32명 성공 시 보상금액 : 107,000만원 (투자원금만 보장)

⑤ 32명에 대한 사회적 비용 : 476,672만원 (③×32명)

⑥ SIB로 인한 사회적비용 절감액 : 369,672만원 (⑤-④)

○ 서울강북교육복지센터 느린학습자 사업



2018-2019 강북교육복지센터 특색사업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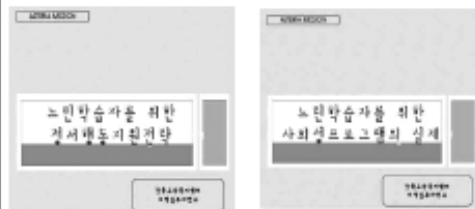
2018 느린학습자 이해 교사연수 (서울유현초)



2018 마을축제 느린학습자 관련 캠페인



2018 가족협업단 연합 느린학습자 부모교육



2019.1.9/ 16 지역실무자 연수 2회차 진행
“느린학습자를 위한 정서행동지원전략 및 사회성프로그램의 실제”



2019 좋은친구모임 사회성집단 프로그램



2019 느린아이 키우느라 지친 부모 모임(부모교육)

○ 서울도봉교육복지센터 느린학습자 사업

아동청소년행복한성장활동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초등학생~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활동가
- 교육내용 : 기본이해, 발달과정 이해, 효과적인 학습코칭, 면대면 코칭 구성 및 운영 사례 회의 및 정례회의, 수퍼비전 등
- 사업장소 : 도봉교육복지센터외 관내 학교
- 활동내용 : 면대면 정서 및 학습 멘토링, NEW3R 인성교육, 워크숍, 평가회의 실시, 프로그램 일지 작성 및 블로그,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참여, 센터학교 맞춤형 지원 창구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시기	세부내용
운영계획 수립 및 자원활동 모집	3월~4월	• 자원 활동가 모집 홍보 • 운영 계획 논의, 결정
기본교육 및 위촉식	5월~6월	• 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의 이해 교육 - 특성 및 상담의 실제 - 학습지도 방안 - 지도사례 및 지도방안 - 언어지도 및 인지학습지도 - 독서지도 방법 - 사회정서 게임 등 • 자원활동가 위촉장 수여 및 활동조직 구성
학교 및 지역 모집 홍보 및 방문	6월~12월	• 대상자 발굴 및 모집 • 학교 및 기관, 학부모 인테이크 상담
사례회의 및 정례회의	4월~12월	• 기존 활동가, 신규 활동가의 정보 공유 • 효과적인 지도를 위한 필참
심화교육	7월~8월	• 현장 피드백을 기반으로 전문역량 교육 • 효율적 교육방안을 지역 내 공유하여 성장 마중물의 역할
수퍼비전	10월~11월	• 수퍼비전을 통한 전문성 함양과 재사정

▶ 교육부 차원의 학습부진 느린학습자 정책

○ 교육부 학습부진 정책

학교 내 다중지원팀을 구성하여 복합적 요인을 가진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맞춤형으로 지원 해주는 두드림학교 운영도 '18년 2,720교 → '19년 3,700여교 → '22년 5,000교 이상 지속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중지원팀은 원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내 담임·특수·상담·보건·돌봄교사 등으로 구성한다. 또한 실효성 있는 보충학습 지도를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확대·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생 근로장학금 사업의 일환인 대학생 1:1 상담(멘토링) 대상에 기초학력 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시켜 지원한다고 한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읽기 곤란(난독증), 정서·행동상 요인(ADHD), 경계선지능 학생들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과 연계하여 별도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한다. 복합적 요인의 특수 분야 지원 강화 관련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경우 학교 내 예습-복습 프로그램 제공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연계 등의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 출처 : 교육부, 2019. 행복한 출발을 위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

〈지자체 및 민간 협력〉

○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학교 이루다학교, SLG 무릎위의 학교, 예룸예술학교, 예하예술학교

▶ 이루다학교(경기도 고양시) 경계선지능 학생 대상 우리나라 최초 대안학교

• 대상 : 느린학습자 아동 및 청소년 11~19세

• 학교소개

행복한 자립대안학교 이루다학교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우는 교육, 스스로의 행복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몸소 체험으로 하나씩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교육, 취미·특기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이 만족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하는 교육, 더 불어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사고하고 깨우치고 실천하는 교육을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연구하고 만들어가는 느린학습자(경계선급 지능을 가진 학생들)를 위한 학교입니다.

• 교과과정

구분	수준별 수업	원반 수업
기본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음악(난타, 민요), 체육, 미술(소근육 활동, 제도조형, Life Design)
진로직업	직업기초, 직업탐색, 직업훈련	
재량활동		자치회의, 생활상식(성, 안전, 보건, 인권)
계발활동	컴퓨터, 화폐와 경제, 주산, FIE 프로그램	사회기술훈련, 체험활동(지역사회 경험, 생활요리)

▶ 출처 : 이루다학교 홈페이지 <http://이루다.com/>

▶ SLG 무릎위의 학교(경기도 용인) 기독교 대안학교

• 대상 : 경계성 발달장애,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초등생

• 학교소개

SLG(School on the Lap of God) 무릎위의학교는 2017년 1월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느린학습자들이 주인공이 되는 기독교 대안학교입니다.

SLG는 한글로 '무릎 위의 학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릎은 어머니의 무릎과 하나님의 무릎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인 어머니의 무릎처럼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SLG 무릎위의학교는 성장, 섬김, 소명, 공동체 이 4가지를 핵심가치로 두고 공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경계성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LG 무릎위의학교는 1~6학년 과정과 7~12학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풍부한 경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 교과과정

구분	교과	내용
교과군	국어	독서 시간/말하기, 듣기, 쓰기 등
	영어	Listening, Writing, Speaking, Talking, Grammar
	수학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 자료와 가능성
	사회	역사, 지리, 정치 등
	과학	물리, 생물, 지구과학, 화학
	예체능	음악/미술/체육/특기 적성
특수 교과	언어	교과 어휘, 학습 언어
	Special Education	IEP 개별화 교육 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자기 주도	자율학습	
스마트 교육	미디어	컴퓨터, 코딩
특별 교과	재활 승마, 드론	
생태 교육	농장/자연 체험 활동	

▶ 예룸예술학교(서울 노원구), 예하예술학교(도봉구) 학력인정 최초 대안학교

• 대상

경제선지능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청소년으로 예술분야(무용, 음악, 미술, 연극)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1~3학년 학생. 예룸은 초등 고학년 과정도 운영

• 학교소개

- 도봉구립예하예술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위탁인가를 받아 운영되며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입니다.
- 예하예술학교 위탁학생의 학적은 재적학교에서 관리합니다.
- 예하예술학교는 기본 교과 수업뿐 아니라 예술 중심의 대안 교과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합니다.
- 예하예술학교는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내 80여만 명의 경제선지능 청소년과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국내 최고의 예술대안학교입니다.
- 예하예술학교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순수 예술 교육을 통해 자기 내면의 자존감 회복과 사회 적응력을 높이도록 교육합니다.
- 예하예술학교는 사회에서 걸도는 특수한 청소년이 아닌 자신의 꿈을 당당히 이루는 특별한 청소년으로 거듭나도록 예술 교육을 통해 그 꿈을 이루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

- 보통 교과 : 국어(문학),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도덕, 체육
- 대안 교과 : 음악의 이해, 합창, 창작미술, 창의적 표현,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연극, 프로젝트, 진로지도 및 성교육, 독서생활(예룸예술학교)
음악의 이해, 합창, 창작미술, 창의적 표현, 발레, 한국무용, 현대무용, 연극, 영화/연극, 뮤지컬댄스, 여가활용(예하예술학교)
- 창의적 체험 활동 :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
- 공연 관람, 아티스트와의 만남, 문화 소통 체험, 현장 순회 활동, 봉사 활동 등
- 방과후 예술 프로그램 운영
- 대안교과는 교육과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처 : 예룸예술학교 홈페이지 <http://yeroom.cafe24.com> 예하예술학교 홈페이지 <http://www.yeha.or.kr/>

○ 경제선지능 느린학습자 이용 가능 대안학교 (서울)

1. 성장학교 별

2002년 개교. 서울 관악. 도시형 대안학교(중·고등통합 과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발달장애, 아스퍼거스, 경제선지능 등 대상 대안교육

2. 사람사랑 나눔학교

2002년 개교. 서울 영등포. 다다예술학교 (재)청소년과사람사랑 운영
경제선지능과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도시형 대안학교

○ 관악지역아동복지센터 느린학습자 프로젝트

■ ‘투게더 함께 자라는 아이들’ (2017)

주요내용

- 1) 사업대상 : 봉천지역 학교 및 지역아동(복지)센터 경계선 아동(초1~4) 20명
- 2) 운영계획
 - ① 학교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② 학교 교사, 지역아동센터 실무자, 학부모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1회 개최
 - ③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개별 인지학습 20회기 실시
 - ④ 또래관계성 향상을 위한 사회성 집단프로그램 12회기 실시
 - ⑤ 교사, 실무자, 부모의 고충해결 및 역량강화를 위한 상담코칭 5회기 실시
 - ⑥ 지역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사례회의 2회기 개최
 지능검사 → 인지학습 → 사회성 향상 집단 프로그램 → 교사, 실무자, 부모 상담 코칭 → 통합 사례회의
- 3) 예산 : 1,900만원

■ 느린 학습아동의 성장 지원 프로젝트 (“조금 느려도 괜찮아”)

- 대상 : 봉천동에 거주하는 초등 1~5학년 느린학습자 아동(IQ 89 이하) 15명
- 사업비 : 2,400만원
- 지원 공동모금회

성과목표	① 맞춤형 기초학습을 통해 느린학습 아동의 기초학습능력을 향상한다. ②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느린학습 아동의 또래관계성을 향상한다. ③ 일상생활훈련 및 성교육을 통해 느린학습 아동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향상한다. ④ 가족 공동체활동을 통해 가족 간 대화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주요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주요 내용
	학습력 UP! 맞춤형 기초학습	- 참여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아동별 개별학습 Plan을 설정하고, 학습지 교사를 센터에 파견하여 주2회, 8개월간 맞춤형 기초학습 프로그램 진행 - 기초학습검사(수학 진단평가)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사업 효과성 평가 - 회기별 학습일지를 작성하여 참여 아동의 변화사항 기록
	관계성 UP! 사회성 훈련	- 참여 아동 15명을 학령별, 수준별로 나누어 3그룹으로 형성 - 사회성 강사를 센터에 파견하여 또래관계성 향상을 위한 사회성 프로그램 12회기 진행 - 또래관계성 사전-사후 결과를 비교하여 사업 효과성 평가
	자립심 UP! 일상생활훈련(ADL)	- 대중교통 이용하기, 공공시설 이용하기, 여가문화활동 체험하기, 안전체험활동 경험하기 등 일상생활 기술 습득을 위한 적응훈련 프로그램 5회기 진행 - 참여 아동들이 활동 계획을 직접 세워보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성가치관 UP! 아름다운소행성(性)	- 참여 아동 15명을 학령별, 수준별로 나누어 2그룹으로 형성 - 성교육 강사를 센터에 파견하여 실생활에서 적용가능한 실질적인 성교육 10회기 진행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 아동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가족소통 UP! 가족사진퍼즐맞추기	- 참여 아동 15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사진을 퍼즐로 제작하여 가족간 퍼즐맞추기활동 진행 -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 가족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 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사례

○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느린 학습자 자가 체크리스트

타 아동에 비해 **높은 아이 / 학습 부진 / 부족한 사회성**
느린 학습자일 수도 있습니다.

- ☐ 도래에 비해 행동이 어렵다
- ☐ 금방 들은 말도 쉽게 잊어버린다
- ☐ 학습속도가 유독 느다
- ☐ 형상시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인다
- ☐ 유독 눈치가 없고 고집이 세다
- ☐ 조라있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못한다
- ☐ 집중력이 매우 부족하고 산만하다
- ☐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감정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
- ☐ 도래에게 인기가 없고 잘 어울리지 못한다
- ☐ 주변 정리를 잘 못하고 실수를 많이 한다
- ☐ 문돌을 잘 못하고 뛰기, 걷기, 던지기 등 신체활동 시 두자간 소리로 도움을 자주 보인다
- ☐ 무엇이든지 여러번 반복 숙달해야 도래와 비슷한 성취를 보인다
- ☐ 학습을 힘들어하거나 노력에 비해 성적이 지속적으로 낮다
- ☐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
- ☐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엉뚱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 ☐ 학교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아 친구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 ☐ 도래 간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 ☐ 글씨쓰기, 자재고 옮기기, 가위질 등 소근육 조절 및 집중능력이 미숙하다

☒ 위 항목 중 8개 이상 포함된다면 느린학습자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학습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개선 혹은 악화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위치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29(창동)
TEL - 02) 993-3222 / FAX - 02) 906-4120

대중교통 및 차량 이용
간선 102 / 마을 노선 14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하차(도보3분)

버스
1호선 녹천역
1번 출구 하차 / 500M 직진(도보5분)

지하철
북치관 옆 주공 4단지 주차
기관방문일림 후 이용 가능

개인차량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거북이 날다!
점프교실 / 점프+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선생님, 부모님 주목해주세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청소년

느린 학습자 이야기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조금 느려서 그래요."
"학교 담임선생님이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너무 산만하대요."
"애가 숙기도 없고, 도통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질 못하는 것 같아요."
- 느린 학습자 부모상담 내용 중

느린 학습자라고 아시나요?

85~ 이상
일반 지능

71~ 84
경계선 지능

70~ 이하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1~84 범주에 있는 친구들을 '느린학습자' 혹은 '경계선 지적 기능' 이라고도 합니다. 학습부진, 부족한 사회성, 느린 신체기능 등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인구 비율 전체 인구의 약 13%

13.59%

도봉구 아동 청소년 수 - 29,835명¹⁾

느린학습자 추정 인원 - 약 4,054명²⁾

조기발견과 꾸준한 반복된 학습, 진로 교육으로 이를 극복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인들의 관심부족, 당사자 거부, 회피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2019년 기준 도봉구청 인구현황 - 아동청소년 수(만 7세 ~ 19세)
2) 특수지능검사(K-WISC-IV) 지능지수 표준 정규분포 비율에 따른 13.59%

느린 학습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안내

느린학습자 아동(8~13세) 방과후 프로그램

월 - 금 15:00~18:00(공휴일 제외)
방과 후 보호 및 기초학습지도

월 - 미술활동 / 창의력교육
화 - 난타교실
수 - 독서지도 / 그림감정코칭
목 - 실내의 체육활동
금 - 기타특별활동 등

느린학습자 청소년(14~19세) 야간보호 프로그램

월 - 금 17:00~22:00(공휴일 제외)
야간보호 및 기초학습지도
(상여안전을 위한 귀가지도 차량운행 - 도봉구청동 제한)

월 - 의사소통 확장 사회극
화 - 기초 사회성 프로그램
수 - 독서지도 / 그림 미술치료
목 - 일대일 대학생 학습멘토링
금 - 기타특별활동 등

느린 학습자 통합지원 프로그램 안내

느린학습자 조기선별

대상 - 학습부진 및 부적응 초등 1~2학년
진행내용 - 지능검사를 실시를 통한 경계선 지능 여부 확인 아동 개별 멘토링 연계 필요 시 매칭 등

느린학습자 개별멘토링 프로그램

대상 - 느린학습자 아동 청소년
진행내용 - 기관 및 학교 멘토 파견 개별 학습 및 정서멘토링 제공 아동연계기관 사례회의 및 활동점검 진행

느린학습자 보호자 교육

대상 - 느린학습자 아동 가족 및 보호자 등
진행내용 - 느린 학습자 자녀교육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법 등

느린학습자 아동 청소년 성인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친구들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 일시 - 2019.01. ~ 12.
(상시모집 / 인원마감 시 임시 종료)
- 내용 - 느린 학습자 및 경도지적장애 아동 청소년 멘토링 / 방과후 프로그램 보조
- 문의 - 서비스 제공팀 담 사회복지사
(02-993-3222 / 02-4818-1207)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청소년 프로그램

초록달팽이

다양한 생활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긍정적 경험을 통한 개별 성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

• 대상 : 토요일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가능한 느린학습자 중학생(만13세~15세) 15명

• 기간 : 2월, 3월 마지막주 토요일(예비활동) / 4월~12월 1~3주 토요일(본 활동)

• 교육과정

- 다양한 경험으로 느린학습자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하는 '생활예술활동'
- 느린학습자 청소년의 사회성을 향상시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협력하는 '통합예술활동'
- 지역사회 내 느린학습자 청소년을 협력 지원하는 '협력 네트워크'

영역	프로그램명	내 용
생활예술활동	북테라피	- 매월 함께 읽고 싶은 책 선정 및 나눔 활동 : 생활예술활동 책 읽기 활동 진행(방법에 대한 논의)
	푸드테라피	- 식재료를 탐색하고 만지고 느끼며 오감을 만족시키는 활동 - 계절별 특성에 맞는 요리 나눔(역사 및 재료학습)
	플라워테라피	- 식물을 가꾸봄으로 심신의 안정감과 성취감 향상 활동 - 공동텃밭 관리하며 공동체 속 책임감, 사회성 향상
	컬러&공간예술	- 일상생활 속 컬러에 대한 관심으로 주위환경에 대한 자극활동 - 평면과 입체감각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동작예술	- 협응력 및 감정표현으로 자기조절능력 향상활동 - 집단 소통방법 학습 및 활동발표회 진행
	우리가 만드는 활동	- 집단프로젝트(2019년 : 나만의 동화책 만들기)
통합예술활동	자치회의	- 월 1회 활동에 대한 평가, 자체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협의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함께 하는 여행	- 연 1회 자치회의를 통한 자발적 여행프로젝트 기획(여름캠프)
	현장체험	- 연 2회 생활예술활동과 연계하여 지역단위의 체험활동 운영 : 미술관 견학, 나눔장터, 꽃시장 견학 등
	수료식	- 전체활동을 마무리하며 상호 격려 및 파티
협력 네트워크	간담회	- 연계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정보공유 및 운영방향 모색 : 강사간담회, 학부모간담회, 실무자간담회 등
	가정 및 학교방문	- 초록달팽이 참여하는 청소년 가정 및 학교 방문 : 가정 및 학교적응능력상황 공유

○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청소년 프로그램

한울타리

경계선지능 청소년의 사회기능향상 및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방과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통합사업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평가지표 및 평가도구)		평가결과											
DO DREAM 맞춤형 진로지도	성과지표	- 진로성숙도척도의 사전 대비 사후 평균 3% 이상 향상 - 자격증 응시횟수 및 실제 취득 인원	진로성숙도척도 사전사후 결과 (n=10) <table><tr><th>사전평균</th><th>사후평균</th><th>증감</th><th>t값</th></tr><tr><td>121.3</td><td>134.6</td><td>+13.3</td><td>-1.591*</td></tr></table>				사전평균	사후평균	증감	t값	121.3	134.6	+13.3	-1.591*
	사전평균	사후평균	증감	t값										
	121.3	134.6	+13.3	-1.591*										
	자료원	- 계획서/ 결과보고서 - 과정기록지 - 활동일지	*p<.05											
수집방법	- 담당자 모니터링 - 운영일지 - 결과보고서	참여자 3명을 대상으로 진로성숙도를 사전·사후 조사한 결과 사전 121.3점에서 사후 134.6점으로 13.3점 진로성숙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수집시기	- 사전(1~4월) - 사후(12월)	- 진로멘토링을 통해 학습한 ITQ(한글,엑셀,파워포인트) 자격증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공인시험 총3회 응시한 결과 ITQ는 A등급을 받아 개인별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음 - 기초학습지도 국어와 수학에 참여하였던 참여자들의 평균은 사전 48.7점에서 사후 81.7점으로 33점 향상하였고, 수학은 1.6점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었음											
FOR DREAM 사회적 기술 훈련	성과지표	사회성기술검사척도의 사전 대비 사후 평균 3% 이상 향상	사회성기술검사척도 사전사후 결과 (n=10) <table><tr><th>사전평균</th><th>사후평균</th><th>증감</th><th>t값</th></tr><tr><td>66.9</td><td>75.2</td><td>+8.3</td><td>-1.391*</td></tr></table>				사전평균	사후평균	증감	t값	66.9	75.2	+8.3	-1.391*
	사전평균	사후평균	증감	t값										
	66.9	75.2	+8.3	-1.391*										
	자료원	- 계획서/ 결과보고서 - 과정기록지 - 활동일지	*p<.05											
수집방법	- 담당자 모니터링 - 운영일지 - 결과보고서	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사회성기술정도를 사전·사후 조사한 결과 사전 66.9점에서 사후 75.2점으로 8.3점으로 사회성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됨												
	수집시기	- 사전(1~4월) - 사후(12월)												
WITH DREAM 지지적 환경 조성	성과지표	- 교육만족 정도 - 사례회의 진행 횟수 - 보호자 회의 진행 횟수 - 참여자 수	중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과 관련한 부모교육을 총 3회기 진행하여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 4.1점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자료원	- 만족도 조사지 - 회의록												
	수집방법	- 담당자 모니터링 - 회의록 - 심층면접												
	수집시기	- 사전(1~6월) - 사후(12월)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아동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명	운영 내용
“더불어 Double up” 경계선지적기능 아동청소년의 인지기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사업	1. 대상 :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 아동 20명 2. 진행내용 의뢰/접수 (권역별 거점기관) • 학교, 지역기관 등 공식 의뢰 ▼ 초기상담 (스크리닝) • 의뢰서/간이검사 결과 확인(1차 스크리닝) • 당사자, 보호자 대면상담(2차 스크리닝) ▼ 경계선 지능일 가능성이 높은 사례만 검사 연계(검사비 지원) 종합심리검사 (20명) • 임상심리사 진행 • 검사결과서 제출 ▼ 결과상담 • 의뢰자에 검사결과 공유(필요시 자료 공유) • 당사자, 보호자 상담을 통한 검사결과 설명 ▼ 느린학습자가 아닐 경우, 교육복지/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정보제공 사후관리 • 더불어 Double up 참여 제안, 서비스 연계 • 보호자 교육 등 정보제공, 관계 지속 3. 장소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개별 상담실 4. 2019년 진행현황 : 현재 총 10명의 아동이 종합심리검사 및 지능검사를 진행함 (2012~2019년 누적 현황 약 180명)
인지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1. 독서치료 프로그램 가. 대상 : 느린학습자로 판정된 아동(초등 및 중등) 나. 내용 : 다함께 우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인지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1:1 또는 2:1 독서치료 진행 다. 장소 : 재학 중인 학교 내 교실 및 상담실 라. 2019년 진행현황 : 총 26명의 아동이 독서치료에 참여 마. 2012년~2019년 누적 현황 약 105명 2. 집단사회성 프로그램 가. 대상 : 느린학습자로 의심되는 아동 및 판정된 아동(초등) 나. 내용 : 전문치료사 연계를 통한 집단놀이치료 진행 다. 장소 : 재학 중인 학교 내 교실 및 상담실 라. 2019년 진행현황 : 2그룹 총 8명(각 그룹 4명)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1. 내용 : 아동 양육 및 부모의 회복탄력성, 감성코칭을 주제로 총 4회 진행될 예정이며, 열린강좌로 진행됨 2. 대상 : 학부모 및 아동 관련 실무자 3. 장소 : 장안종합사회복지관 1층 강당 4. 일정 : 11월 중 4회 진행예정 5. 2012년~2019년 누적 현황 약 800명

▶ 느린학습자 학부모, 관련기관 네트워크 활동

○ 느린학습자 네트워크 관련 기관

서울시 동북권  지원센터

부모교육 & 느린학습자 지원 시민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파티



느린학습자 지원활동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연대 형성과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느린학습자 당사자 부모와 느린학습자 지원기관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10. 19 토 10~17시

전국철도노조 대회의실(6층)

신청 <https://forms.gle/ZqJN9hz9WD1FVoyk6>

문의 02-906-2018

일	시간	내용
1부 부모교육	10:00~12:30	느린학습자 자녀의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발달장애인 평생설계 사례 강의)
	12:30~13:30	점심 식사
2부 활동발표	13:30~15:30	느린학습자 지원 단체 네트워크 파티 (단체 소개 및 활동 발표)
3부 부스운영	15:30~17:00	단체별 부스 홍보, 상담, 컨설팅



주최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관 느린학습자워킹그룹

운영 성북부모커뮤니티 소나기, 느린학습자부모협동조합 오르미, 양천 신정부모커뮤니티 맘미아아하나콤비, 용인성남부모커뮤니티 꿈꾸는달팽이, 강서부모커뮤니티 바다를꿈꾸는거북이, 노원도봉부모커뮤니티 꽃피다, 강북교육복지센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학교밖청소년대안학교 인디학교, 사)DTS행복들고나

협력 청년부모커뮤니티 마루금,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신월종합사회복지관,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도봉교육복지센터, 주서간도, 서울시일기쉬운자료개발센터 알다, 구리시 경계선자능네트워크 담쟁이, 이루다 학교, 성정학교 별, 보듬과자람, 매일매일즐거워, 다함께우리사회적협동조합

부모교육&느린학습자 지원 시민연대 네트워크 파티 활동 발표

순서	발표기관 및 단체	발표시간	지역구분
0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박영주 센터장	13:35	경기 남·북부
1	경기도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13:40	
2	경기도 용인·성남 부모커뮤니티 꿈꾸는 달팽이	13:45	
3	경기도 구리시 경계선 지능 네트워크 담쟁이	13:50	
4	경기도 의정부종합사회복지관	13:55	
5	구로구 서울시 읽기 쉬운 자료 개발 센터 알다	14:00	서울 남부
6	강서구 부모커뮤니티 바다를 꿈꾸는 거북이	14:05	
7	양천구 신월종합사회복지관	14:10	
8	양천구 경계선 지능 부모협동조합 오르미	14:15	
9	양천구 신정 부모커뮤니티 맘마미아&허니콤비	14:20	
10	마포구 읽기 쉬운 문해 출판 주)서감도	14:25	
10분 휴식			
11	성동구 보듬과 자람	14:35	서울 북부
12	동대문구 다함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14:40	
13	동대문구 장안종합사회복지관	14:45	
14	동대문구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14:50	
15	성북구 정릉종합사회복지관	14:55	
16	성북구 부모커뮤니티 소통, 나눔, 기쁨 '소나기'	15:00	
17	강북구 강북교육복지센터	15:05	
18	도봉구 창동종합사회복지관	15:10	
19	노원구 예룸.예하 학교 법인 DTS 행복들고나 노원구 예룸 예하 학교 학부모 연대 '꽃피다'	15:15	
20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더딤 국외사례 탐방	15:22	
21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 기초 연구 보고 공론장 안내와 부스 운영 안내	15:27	

느린학습자 자녀의 성인기 자립 준비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을 고민해 볼 수 있는 평생설계 사례 강의(1부), 부모들의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정보 갈증 해소와 자조 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원 연결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느린학습자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단체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활동 내용을 공유(2부), 내 자녀의 교육 및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스 운영을 통해 상담·컨설팅 시간을 마련(3부)함.

○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 2020 서울시 참여예산제 공모 선정

사업 목적

- 일상적인 사회생활은 물론 직업수행이 어려운 ‘느린학습자’를 위한 법적인 보호가 사실상 전무한 현실임.
-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청년기 이후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존감을 지니고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도움.
- 특히 느린학습자의 취업지원에 사업의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청년 느린학습자(경제선지능)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지향할 수 있는 자립 지원 및 일자리 연계와 창출이 필요함.

사업 내용

■ 사업자문위원회 구성

- 구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에 당사자(청년 느린학습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사업 진행 전반에 걸친 자문, 진단 도구 응용 자문,
- 일정: 1월~2월에 구성, 분기 1회 정례모임, 중간평가회 및 결과발표회 개최

■ 청년기 느린학습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 사업대상: 15세~29세 느린학습자
- 대상선정: 공개 모집(청년 느린학습자 취업교육 등을 진행한 전 서울시내 기관의 협조)
-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한 과정에는 보호자(부모 중 일부 보조도우미)도 함께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사업의 효과성을 높임.
- 사업기간: 3월~12월
- 세부사업

1) 직업적성 검사도구 활용 및 수정

- 대상자를 검사하여 각각의 성격을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활용
- 대상자의 활동을 사업기간 내 관찰함으로써 검사도구를 개선하도록 함
- 개선된 검사기법과 결과물을 공개하여 관련 기관(교육부, 복지기관 등)과 공유

2) 직업소양교육(대상자 유형에 맞는 교육 지원)

- 직장 적응력 향상: 고객응대방법, 직장 예절교육 등 서비스 교육 실시
- 대인관계기술(의사소통)교육: 직장 내 타인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대상자 지원.
- 신체역량강화: 대상자 대부분은 신체적으로도 취약함(손, 다리 등 신체 특정 부위 취약). 취업 후에 육체적 피로로 직업수행 힘들어함. 대상자 맞춤형 신체역량강화 지원
- IT기기 사용방법 교육: 컴퓨터, 휴대폰 사용 방법 및 IT기기를 이용한 대화법 교육

3) 직업기술교육

- 대상자의 특징과 강점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정도의 적합 직업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직업 기술을 교육함.

- 3가지 사업: ① 서비스업(예: 식음료서비스업 등) ② 단순 제조업(예: 목공, 조립 등),
③ 창업(예: 컴퓨터인쇄업, 세차 등) 중심으로 직업 교육.
- 위 소양교육 및 기술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기회 제공

4) 느린학습자 취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

- 민간협회(예: 도심제조업네트워크 등), 행정(예: 공공근로) 등과 연계하여 취업 기회 제공
- 민간협회 및 사회적기업 등과 협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 기관 확보에 노력함
- 이 사업의 안내물 발간 통해 사업의 취지 홍보함

▶ 출처 : <https://yesan.seoul.go.kr/join/bizSearch.do>

〈민간〉

▶ 미디어를 활용한 느린학습자 엄마들의 방송

느린학습자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 - '거북맘들의 찻집' 6개월을 돌아보다

[특집] (19. 05. 30)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마중' 특집방송

느린학습자를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 '거북맘들의 찻집' 6개월을 돌아보다.

〈진행〉

- 박현주 국장 (방화마을방송국)

〈패널〉

- 송연숙 - 거북맘들의 찻집 진행자 '어언맘'
- 홍세영 - 거북맘들의 찻집 진행자 '너굴맘'

[8회] (19.05.14)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치료2

[7회] (19.04.10)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치료1

[6회] (19.03.26) 영화 증인 속 느린학습자와 아이큐 이야기

[5회] (19.02.28)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SKY캐슬

[4회] (19.01.30)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진단

[3회] (19.01.19) 신학기 이야기

[2회] (19.01.07)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신학기

[1회] (18.12.18)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

출처 : <http://maeulmedia.org/archives/16622>

▶ 느린학습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활동

서서히 감이 온다 '서감문해'

느린학습자 문해교육 서적, 문해력 검사 개발 사회적기업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독해력, 독서능력, 읽기능력과 같은 뜻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읽기/세상을 위한 지혜, 쓰기

▶ 출처 : <http://seogamdo.cafe24.com/>

5-2. 해외 사례

▶ 카탈루냐(스페인)⁴⁾

가. 서비스 간 조정

1) 전제사항

- 가) 주의집중과 전반적인 평가는 그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공동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치료 과정의 계획, 개발 및 평가에 대한 공동책임자로 간주
- 나) 모든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프로세스의 각 순간의 개별필요에 맞게 조정
→ 느린학습자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
- 다) 관리 프로세스를 뒷받침하고 필수적으로 전문적 리더십의 재정의를 수반하는 방법론적 프레임워크 사례관리는 핵심 근로자의 역할과 공유된 관행

2) 느린학습자의 필요에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가 설계되어야 함. 왜냐하면 서로 다른 자원과 전문가가 하나의 개별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 관리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된 방식으로 개입해야 하기 때문

3) 필요한 지원을 정의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 및 전문 네트워크의 모든 전문가가 개별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함께 작업할 수 있도록 노력

4) 사례관리자가 전체 과정에 참여한 여러 전문가를 조정하고 느린학습자 담당자를 지원하고 가족 오리엔테이션을 할 책임이 있는 주요 핵심 작업자가 되도록 권장

5) 느린학습자 및 정신질환, 그리고(또는) 추가적인 행동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의 경우 보건 부문의 사례 모니터링도 적절함. 그러한 경우 사례관리자는 두 영역의 맥락에서 보건 부문의 지역 조정자와 조정해야 함

→ 사례관리(자)의 필요성 강조

- 가) 연구 및 소개 그룹 지역체계 내에서 매월 회의
- 나) 정기 사례 모니터링 회의

6) 각 보건 지역에 대한 지역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제안되며, 지능형 장애 전문 네트워크

7) 지역 코디네이터의 기능

- 가) 각 클라이언트가 만든 서비스의 사용을 지정하여 지역 느린학습자들의 등록을 유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4) Generalitat de Catalunya(2017),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내용임.

- 나) 사례를 언급할 때 아동 및 청소년 정신건강 네트워크와 조정
- 다) 성인을 위한 일반 정신건강 네트워크와 조정
- 라) 주제에 대한 개별 요구 사항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법적 대리인을 여러 분야의 지역 회의에 초대
- 마) 각 환자의 등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 이 기록부에는 환자에게 왜 환자 모니터링이 제공되었는지, 목표, 행동, 수행된 평가 등 포함
- 바) 관리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다양한 서비스 및 부서에서 수행하는 개입을 조정하고 인식해야 함

→ 지역단위 조정자의 존재 및 자원연계 등의 명확한 역할

나. 가족을 위한 돌봄과 지원

- 1) 항상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느린학습자로 진단받은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핵심이 될 수 있는 가족의 역할도 중요
- 2) 가족은 필요한 모든 지원과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개입의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함
- 3) 개입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사항이 필요
 - 가) 느린학습자 진단을 받은 사람과 그들이 거주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 나) 그 사람과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지원 네트워크
 - 다) 사례관리자는 느린학습자로 진단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가능한 모든 정보 (진단, 치료, 전문가 정보)를 제공
 - 라) 가족은 각 경우에 필요한 서비스(기본 사회 서비스, 특수교육 서비스, 장애 및 의존성 평가팀)에 대한 소개를 통해 해당되는 경우 특정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를 관리

→ 느린학습자의 가족지원에 대한 명문화

다. 전문가 교육

- 1) 유능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은 느린학습자로 진단받은 사람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
- 2) 정신과, 심리학, 간호학, 교육, 사회복지, 직접적인 개인 간호 및 1차 진료 분야의 전문가 교육 촉진
- 3) 이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계획이 전체 지역에서 제안됨
- 4) 이 교육 계획은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전문으로 하는 네트워크 내의 전문가가 개발해야 함
- 5) 훈련 제안의 기본 내용
 - 가) 느린학습자의 개념
 - 나) 느린학습자의 탐지 방법

다) 느린학습자의 주요 정신질환(일반 인구와의 차이점 및 유사점)

라) 느린학습자들의 필요에 대한 통합된 접근

6) 정신 질환이나 행동 장애가 있는 느린학습자들에게도 더 구체적인 훈련을 권장

7)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느린학습자들을 위해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지닌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

가) 느린학습자 및 정신적 또는 행동 변화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주요 이론적 참고문헌을 알고 있어야 함

나) 느린학습자들의 정신 또는 행동 변화를 평가하고 진단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

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생물 심리 사회적 평가를 설계하고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

→ 지적 장애 전문가를 핵심으로 한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

→ 느린학습자를 상대하기 위한 훈련의 필요성 강조

라. 기존 자원

1) 노동부, 사회 및 가족부

가) 사회복지 포트폴리오(2010~2011)

① 사회복지 포트폴리오는 폭력이나 청소년 범죄의 위험에 처한 부양가족, 장애인, 정신질환, 약물중독 및 기타 추가 사항과 같은 특수한 요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함. 불이익, 노약자, 어린이나 청소년이 겪는 위험 또는 사회적 어려움, 배제 또는 사회 배상사태, 성차별, 차별 또는 빈곤의 희생자

② 다른 진단이 없는 느린학습자로 진단받은 사람들은 현재의 법률 조항에 따라 장애 상태 또는 의존 상태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

③ 따라서 주거용 자원이나 프로그램에 접근하려면 사람들이 적어도 33%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 이 평가는 평가 및 오리엔테이션 서비스에 의해 수행. 이러한 서비스는 카탈루냐 전체에 분산된 평가팀으로 구성

④ 어떤 사람이 필요한 수준의 장애와 의존성을 인정받은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주거 자원은 다음과 같음

㉠ 지적 장애인을 위한 주간 탁아 서비스

㉡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자율 진료 서비스

㉢ 지적 장애인을 위한 주거 보호 서비스

나) 고용 서비스 - 훈련

①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취득 프로그램 및 직업 능력을 평가하고 해당 인증서를 발급하는 직업 테스트를 실시

② 고용 근로자와 실직 근로자 모두 고용 분야에 참조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목적

다) 사회경제국, 제3섹터, 협동조합 및 자영업 - 취업

① 비장애인 단체 및 재단, 이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현지 기업을 위한 보조금을 통해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위한 고용 삽입 조치를 관리

2) 교육부

가) 교육기관: 교육기관 정보 <http://ensenyament.gencat.cat/ca/inici/>

나) Psychopedagogical 평가 및 오리엔테이션팀

- ① 학생 다양성과 특수교육 필요성이 있는 학생과 그 가족에게 다가가기 위해 교사와 학교를 지원하는 평가 및 정신의학 교육팀

3) 보건복지부

가) CYMHCs, AMHCs, and SSMHIDs

- ①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의 CYMHC와 성인기의 AMHCs와 SSMHIDs는 정신건강 네트워크의 1차 진료 서비스의 역할을 하며 이 네트워크의 관문
 - ② 이 센터는 진료와 평가를 제공하고 평가된 사례를 조정하며 다른 자원과 관련하여 개입 필요성을 결정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함
 - ③ 주간 병원: 주간 치료를 위한 부분 입원 자원
 - ④ 완전 역류가 있는 급성 및 급성 이하 입원 단위
 - ⑤ 주간 센터/재활 서비스: 지역사회 생활과 관련된 관계 기술 및 기능적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개입 자원
 - ⑥ SHUID: 사회적 문제와 협력하여 지적 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입원 단위
 - ⑦ 물질 남용으로 인한 동반 질환의 병리학적 상황에서 약물 의존성(DDCC)을 위한 케어센터
 - ⑧ 보건복지부는 1차 보건 서비스(Primary Health Services)와 체결한 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각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자원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조정
- 느린학습자에게 연계할 수 있는 행정자원의 아카이빙

카탈루냐 느린학습자 정책의 기본원칙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충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제조건으로서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의 필요성은 매우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적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사례관리자에 의한 사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느린학습자 돌봄을 위한 단위로서 지역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지역 코디네이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네트워크를 네트워킹함으로써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정 차원에서도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아카이빙하고 공유함으로써 보다 나은 돌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카탈루냐 사례는 두 가지 추가적인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느린학습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다. 발달장애인과 유사하게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래서 가족들은 대부분 지쳐 있다. 가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촘촘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구축되더라도 결국 돌봄에 빈틈이 발생할 것이다. 즉 가족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다학제적 훈련체계를 구축하고 실행한다는 것이다. 경계선지능이라는 특성상 지적 장애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다른 영역을 조율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교육은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의부터 탐지하고 지원하는 기술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느린학습자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Germany 독일

돈보스코 직업학교 및 직업교육훈련소

Caritas-Don Bosco gmbH Berufsbildungswerk Würzburg

기관명 돈보스코
소재지 Schottenanger 15 97082 Würzburg, Germany
홈페이지 https://caritas-donbosco.de
담당 담당자 Tanya Holtschirch (직업교육) Maria Thomas (상담사)

기관 소개 및 사업내용
 1974년에 카를로스 테제스스 신부(천주교)가 설립하여 직업학교 및 직업교육훈련소를 설립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년 연하학교(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교육하며 노동시장에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성취, 현업훈련, 자격증 취득 등 16-25세의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직업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참여하여 직업 및 직업교육훈련을 지속해서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학교 및 직업훈련소 수업장르에는, 상담심리, 위생, 인간관계,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룹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NETHERLANDS

세드리스, 암포스 (Cedris, Amfors)

기관명 세드리스
소재지 Koning Wilhelmina 3, 3527 LA Utrecht, The Netherlands
홈페이지 https://www.cedris.nl
담당 담당자 J.C.J. Pieterse(Senior Consultant Labour and Employee Affairs)

기관 소개 및 사업내용
 세드리스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고용을 창출하는 노동시장 지원과 고용훈련 및 직업 교육을 하는 회사입니다. 함께 일하는 기업과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정책 제언과 연구에 힘쓰는 세드리스는 노사관계 전문가입니다.
 1. **Tailored work**: 회사와 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2. **Sheltered work**: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하는 기업에 맞춤형 일자리 및 직업 교육, 직업훈련을 제공합니다.
 3. **Matching and guidance**: 기업(employer), job broker가 고용을 하는 회사에서 고객에게 적합한 고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Development of employee skills**: 기업과 직업교육 기관을 연결하는 새로운 일을 가능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리소스를 통해, 직원, 자문, 고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5. **An employer network**: 고용주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고용주, 노동자, 직업교육 기관을 연결합니다.
 6. **Outsourcing**: 회사에 대한 일자리에 필요한 교육, 직업교육, 직업훈련을 고용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직업교육 기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관계를 관리하고, 회사에서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를 위한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셀재단 (E&F Foundation)

기관명 에셀재단
소재지 Schottenanger, 16 Vienna, Austria
홈페이지 https://www.zeproproject.org/ **담당 담당자** Peter Chertob(노동시장 관리자)

기관 소개 및 사업내용
 2007년 오스트리아에서 기업에 고용을 창출하고 직업교육훈련을 제공하는 한 세제 장려정책이 달성상황과 기업 고용을 늘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10월, 2010년 10월, 2013년 10월, 2016년 10월, 2019년 10월, 2022년 10월, 2025년 10월, 2028년 10월, 2031년 10월, 2034년 10월, 2037년 10월, 2040년 10월, 2043년 10월, 2046년 10월, 2049년 10월, 2052년 10월, 2055년 10월, 2058년 10월, 2061년 10월, 2064년 10월, 2067년 10월, 2070년 10월, 2073년 10월, 2076년 10월, 2079년 10월, 2082년 10월, 2085년 10월, 2088년 10월, 2091년 10월, 2094년 10월, 2097년 10월, 2100년 10월, 2103년 10월, 2106년 10월, 2109년 10월, 2112년 10월, 2115년 10월, 2118년 10월, 2121년 10월, 2124년 10월, 2127년 10월, 2130년 10월, 2133년 10월, 2136년 10월, 2139년 10월, 2142년 10월, 2145년 10월, 2148년 10월, 2151년 10월, 2154년 10월, 2157년 10월, 2160년 10월, 2163년 10월, 2166년 10월, 2169년 10월, 2172년 10월, 2175년 10월, 2178년 10월, 2181년 10월, 2184년 10월, 2187년 10월, 2190년 10월, 2193년 10월, 2196년 10월, 2199년 10월, 2202년 10월, 2205년 10월, 2208년 10월, 2211년 10월, 2214년 10월, 2217년 10월, 2220년 10월, 2223년 10월, 2226년 10월, 2229년 10월, 2232년 10월, 2235년 10월, 2238년 10월, 2241년 10월, 2244년 10월, 2247년 10월, 2250년 10월, 2253년 10월, 2256년 10월, 2259년 10월, 2262년 10월, 2265년 10월, 2268년 10월, 2271년 10월, 2274년 10월, 2277년 10월, 2280년 10월, 2283년 10월, 2286년 10월, 2289년 10월, 2292년 10월, 2295년 10월, 2298년 10월, 2301년 10월, 2304년 10월, 2307년 10월, 2310년 10월, 2313년 10월, 2316년 10월, 2319년 10월, 2322년 10월, 2325년 10월, 2328년 10월, 2331년 10월, 2334년 10월, 2337년 10월, 2340년 10월, 2343년 10월, 2346년 10월, 2349년 10월, 2352년 10월, 2355년 10월, 2358년 10월, 2361년 10월, 2364년 10월, 2367년 10월, 2370년 10월, 2373년 10월, 2376년 10월, 2379년 10월, 2382년 10월, 2385년 10월, 2388년 10월, 2391년 10월, 2394년 10월, 2397년 10월, 2400년 10월, 2403년 10월, 2406년 10월, 2409년 10월, 2412년 10월, 2415년 10월, 2418년 10월, 2421년 10월, 2424년 10월, 2427년 10월, 2430년 10월, 2433년 10월, 2436년 10월, 2439년 10월, 2442년 10월, 2445년 10월, 2448년 10월, 2451년 10월, 2454년 10월, 2457년 10월, 2460년 10월, 2463년 10월, 2466년 10월, 2469년 10월, 2472년 10월, 2475년 10월, 2478년 10월, 2481년 10월, 2484년 10월, 2487년 10월, 2490년 10월, 2493년 10월, 2496년 10월, 2499년 10월, 2502년 10월, 2505년 10월, 2508년 10월, 2511년 10월, 2514년 10월, 2517년 10월, 2520년 10월, 2523년 10월, 2526년 10월, 2529년 10월, 2532년 10월, 2535년 10월, 2538년 10월, 2541년 10월, 2544년 10월, 2547년 10월, 2550년 10월, 2553년 10월, 2556년 10월, 2559년 10월, 2562년 10월, 2565년 10월, 2568년 10월, 2571년 10월, 2574년 10월, 2577년 10월, 2580년 10월, 2583년 10월, 2586년 10월, 2589년 10월, 2592년 10월, 2595년 10월, 2598년 10월, 2601년 10월, 2604년 10월, 2607년 10월, 2610년 10월, 2613년 10월, 2616년 10월, 2619년 10월, 2622년 10월, 2625년 10월, 2628년 10월, 2631년 10월, 2634년 10월, 2637년 10월, 2640년 10월, 2643년 10월, 2646년 10월, 2649년 10월, 2652년 10월, 2655년 10월, 2658년 10월, 2661년 10월, 2664년 10월, 2667년 10월, 2670년 10월, 2673년 10월, 2676년 10월, 2679년 10월, 2682년 10월, 2685년 10월, 2688년 10월, 2691년 10월, 2694년 10월, 2697년 10월, 2700년 10월, 2703년 10월, 2706년 10월, 2709년 10월, 2712년 10월, 2715년 10월, 2718년 10월, 2721년 10월, 2724년 10월, 2727년 10월, 2730년 10월, 2733년 10월, 2736년 10월, 2739년 10월, 2742년 10월, 2745년 10월, 2748년 10월, 2751년 10월, 2754년 10월, 2757년 10월, 2760년 10월, 2763년 10월, 2766년 10월, 2769년 10월, 2772년 10월, 2775년 10월, 2778년 10월, 2781년 10월, 2784년 10월, 2787년 10월, 2790년 10월, 2793년 10월, 2796년 10월, 2799년 10월, 2802년 10월, 2805년 10월, 2808년 10월, 2811년 10월, 2814년 10월, 2817년 10월, 2820년 10월, 2823년 10월, 2826년 10월, 2829년 10월, 2832년 10월, 2835년 10월, 2838년 1

유럽 사례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는 독일의 돈보스코 직업교육훈련소이다. 이곳은 느린학습자와 같은 경증장애를 가진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직업학교인데 재학생들의 충분한 권리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인권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돈보스코는 지역 내 상공회의소, 산림청 등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장과 연계하여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 기관이 비장애인이 2~3년 걸릴 교육을 재학생들에게 3~4년간 느리게 교육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보다는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훈련하도록 하며 10명 이내의 소그룹별 지도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5) 2019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약 15일간 “청년 느린학습자 취창업 지원기반조성을 위한 더딤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청년 느린학습자를 고민하는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해외방문 조사연구(아산재단 지원)를 진행했다. 위 자료는 방문 조사연구의 결과물로서 더딤프로젝트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 본 보고서에 수록했음을 밝힌다.

6. 정책 제안

문헌검토와 설문조사, 개별인터뷰,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느린학습자 당사자, 학부모, 교사가 느끼는 느린학습자 현황과 요구를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느린학습자의 교육권 확보 및 자립을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검토 의견을 포함해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제안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진단 시스템 구축
2. 희망자에게 특수교육 권한을 부여해 낮시간 동안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 제공
3.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단순 학습부진 지도가 아닌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육방법을 활용한 체계적 지도, 느린학습자 위탁형 대안학교 확대
4. 느린학습자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인적 물적 자원 통합적 활용
5.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거점형, 융합형 모델 중 하나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방과후 돌봄 및 치료 공간 마련
6. 서울시 차원의 법적 근거로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제정, 느린학습자지원센터, 평생교육지원센터 마련
7. 느린학습자 관련 정보제공, 상담서비스 등 느린학습자 가족지원제도 추진
8. 성인기 이전 반복선행학습, 고용 및 주거지원 제도마련 등 느린학습자 자립지원제도 마련



1.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겪은 후에 뒤늦은 대처를 해야 하는지”

⇒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 진단 시스템 구축

- **[제안이유]** 현재 느린학습자들은 학령기 중요한 시기를 배제와 고통 속에 고립되어 지내고 있다. 느린학습자임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인 대처를 한다면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훨씬 향상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다. 느린학습자의 교육 기회 평등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일선의 교사들은 설문조사에서 ‘조기선별과 개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제안내용]** 1차로 영유아기에 영유아건강검진(발달선별검사)을 통해 스크리닝을 하고 학부모,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등 관계자가 이상 징후 발견 시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해 주도록 한다.

2차로 학령기(특히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교에서 교사나 사회복지사, 상담사, 보건교사 등 관계자에 의해 이상징후가 발견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능검사 및 종합심리검사 등 바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제시되어야 한다.

2019년 11월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도구가 개발된 바, 초등 1, 4학년 정서행동선별검사와 같이 이를 활용해 학교에 1단계 스크리닝, 2단계 전담기구논의, 3단계 치료 연계 등의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생애주기별 느린학습자 지원 매뉴얼이 필요하다.

⇒ [예시]

- 지자체별로 진단 가능한 병원, 상담센터, 복지관 등과 협약을 맺고 리스트 제작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약식 진단도구 및 진단기관에 대한 자료 배포
 - 학부모 연수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해 안내. 이를 통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학부모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우려보다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 개선 병행
 - 진단 비용은 지자체 지원 혹은 바우처 적용. 영유아통합지원센터, 드림스타트 등에서 관리 및 지원
- 주의) 영유아기 진단의 불확실성이 있고, 자녀가 어릴수록 학부모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지원

〈선행연구〉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특성을 이론적으로 타당하게 반영하는 7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는 평균 지능을 가진 학습부진아와 경계선 지적 기능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진 학습부진아를 타당하게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과 지적 장애 수준의 아동을 선별하기에는 변별력이 부족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 검사결과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 이하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의심될 때, 보다 정확한 과학적 검증의 단계인 지능검사와 적응검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인지적 상태와 적응상태에 대해 파악한 후에

특수교육체계가 일반교육 체계로의 적절한 교육적 배치와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략)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가 경계선 지적 기능 이하의 지적능력을 가진 아동을 타당하게 선별하는 도구 임이 검증된 만큼 이를 표준화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 문항 예시

- 1.외모상으로는 장애나 결함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2.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 3.책상 위나 서랍, 사물함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 4.수업시간에 자기 물건(책, 연필, 공책, 과제물 등)을 잘 찾지 못한다.
- 5.지난 시간의 수업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 6.배경지식과 경험이 부족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잘 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아동.
- 7.해당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틀린 답을 하거나 대답하지 못한다.
- 8.수업시간 도중에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 9.수업시간에 멍하게 앉아 있곤 한다.
- 10.학년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낮은 편이다 등.

▶ 출처 : 박현숙(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전문가 의견〉

“최근에 저희가 1번에 대한 과제는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왔고 저희가 아직 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공표를 안 해서 (···) 황순택 교수님과 김지혜, 조혜선, 홍상황 교수님과 3년 동안 연구해서 정식으로 나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60문항으로 해서 한국심리주식회사에 오픈이 됐어요.”(라)

■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 :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용/BIF-S

(Adaptive Behavior Scales : Screening for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저자 : 황순택, 김지혜, 조혜선, 홍상황, 사단법인 DTS행복들고나

검사대상 : 초등학생(만6세~12세)/ 부모평정형

문항수 : 60문항

검서소요시간 : 15~20분

제품구성 : 검사지 20부, 채점코인 20개, 매뉴얼(별도구매), 단체검사(전화문의)



“조기진단이 가장 필요한데 생애주기별로 이 느린학습자를 지원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몇 세에는 어떤 형태의 그런 부분들 그런 작업들이 되면 (···) 우리 지금 정서행동선별검사 하는 것처럼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아주 매뉴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나)

2. “학교 수업시간 내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멍하니 있어야 하는 것인지”

⇒ 교내 개별화위원회(가칭)를 통해 학생의 어려움이나 요구 파악

⇒ 특수교육을 원하고 학교의 특수반 수용 여건이 가능할 경우 특수반에 선정

⇒ 특수교육보다는 개별 맞춤형 교육이 적합할 경우 교과 교사 등 일반 교사 중에 스케줄을 정해 개별화 교육 진행

- **[제안이유]** 현재 느린학습자를 누가 교육해야 하는가에 있어 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와 특수 교사 간에 서로 떠넘기거나 아예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중간 수준의 아이들에 맞추어진 수업과 학생관리로는 느린학습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교사들 역시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학부모와 교사 모두 느린학습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필요한 제도 중 하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생수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점점 일반학급에서 케어가 어려운 상황의 아이들이 학교 안에 많아지고 있다. 이들에게 헌법이 명시한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느린학습자의 어려움이나 대안을 고민하는 공식적 기구가 필요하며, 학교급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일반교사의 개별지도, 특수학급에서의 개별지도 등을 합의해 학습권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 **[제안내용]** 느린학습자가 발견되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는 개별화위원회(가칭)가 구성되어 작동되기를 제안한다. 이 위원회에서 학생의 어려움이나 요구,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을 위한 개별 지도와 지원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학교 내외 자원에 대해 논의하고 주된 (학습)지도를 누가 맡을지를 협의하도록 한다.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고 학교의 특수반 수용 여건이 가능하면 특수반에 선정할 수 있다. 특수교육 정도가 아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나 교과 교사, 학습부진 지도교사 등이 스케줄을 정해 위원회에서 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맞춤형 개별화 교육을 진행한다. 개별화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교사의 경우 느린학습자의 특성과 지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자격부여 연수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한 방안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느린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개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을 확대하고 이들을 위한 개별화되고 세밀한 특수반 설계를 제안한다. 기존에 중증장애인 위주의 특수반이었다면 앞으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교육 욕구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통로가 될 필요가 있다.

⇒ [예시]

- 일반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수를 늘려 장애 이외의 특수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급 운영
 - 제27조 2항에 따르면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씩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교육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수교육대상자 분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에 따라 교사 수급이 달라 질 수 있으나 특수교육은 개별교육을 하며 진단부터 시작해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시스템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 추후 초·중·고등학교 급별이나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각 상황에 맞는 특수교육에 대한 세밀한 설계 필요
 -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의 사례를 논의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는 구조가 학교에 마련되어야 함
 - 교사들 중에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지도하는 제도도 장려함
- 주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반은 낙인감의 우려로 입급을 꺼리는 학생이나 부모가 많으므로 추후 낙인감 없이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구조로의 인식전환과 변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특수교사의 대거 충원과 특수학습 교실 확충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별도의 대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가능함

〈참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조는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적 교육 환경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조 2항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 보조 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제공함을 명시하고 있음

〈전문가 의견〉

“특수학급에 중증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는 별개로 약간 다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고 다른 그 방식을 운영해줄 수 있는 교사가 또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있는 것도 운영하기가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더 뽑는다는 거는 아마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할 (...) 특수교사를 더 뽑으면 어느 부분에서는 교사 인원을 줄여야 돼요. (...) 인기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일반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있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학교는 교장선생님이 늘리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요.”(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가 공신력이 있어서 담임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선별하는 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나)

3. “방과후에 무조건 학교에 남겨놓고 교사도 학생도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인지”

⇒ 실적 위주의 형식적인 학습부진지도가 아닌 느린학습자 맞춤형 교재개발 및 교육 방법을 활용한 체계적 지도

⇒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력인정 위탁형 초중고등 대안학교 확대

- **[제안이유]** 대부분의 느린학습자들은 학교에 다니는 동안 영원히 학습부진학생 명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학교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 느린학습자 특성상 실물 학습, 짧은 문장 위주의 반복 학습 등이 요구되지만 느린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여 학습에 방치되거나 이들에게 맞지 않는 방식의 비효율적인 교육과 부정적 피드백으로 학습부진지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 **[제안내용]** 국가적으로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책임지도를 강조하고 있는 바, 느린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재 및 학습 방식을 개발하고, 느린학습자 전문교사를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학력차가 많이 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내 대안반을 개설해 느린학습자에게 적절한 진로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히 느린학습자가 다수 모여 있는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 느린학습자에게 맞는 교재개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 학교급에 따른 다른 고민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 학교에서의 배움과 교류에 너무 큰 한계를 느끼는 학생의 경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시]

- 교육부는 기초학력 보장계획 수립, 재정·인력 운영, 기초학력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 기초학력 실태분석,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 정책 성과 분석·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국가의 기초학력 지원정책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음(2019.3.28. 교육부 보도 자료).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 교재나 교육 방법을 구축하도록 제안해야 함
-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경계선지능전담팀, 서울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바(2019.10.31. 이데일리 기사), 느린학습자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실질적이고 체계적,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두드림학교가 더욱 세밀하게 설계되어 수업시간 중이나 방과후 느린학습자 대상 맞춤형 개별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느린학습자가 많은 일부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 내 대안반 등을 운영해 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권장함
- 느린학습자 대안학교를 설립하되 놀이, 예술, 체육, 직업훈련 등 각 학교별로 특성화가 이루어져 자신의 성향에 맞는 대안학교 선택을 보장해야 하며, 느린학습자의 경우 학력을 갖추는 것이 자립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력이 인정되도록 해야 함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발표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 시행을 위해 올해(56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52억 원을 기초학력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편성된 예산은 △초등학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73억 원) △초2 기초학력보장집중학년제 운영(6억 원) △중학교 기본학력책임지도제 운영(40억 원) △학습상당·난독경계선지능전담팀 운영·서울학습지원센터 운영(31억 원) △중학생 기본학력향상지원 연수·워크숍(3억 원) 등이다.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04895>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9조9730억...고교 무상교육 2546억(2019.10.31. 이데일리)

〈선행연구〉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아동 체크리스트 타당화 연구과정에서 발견된 다소 놀라운 사실은 국내 학습부진아동 가운데 지적 장애의 비율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체크리스트는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추려내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 도구를 통해서 선별된 후, 지능검사를 실시한 전체 94명의 학습부진아동 중에서 지적 장애로 판정된 아동은 57명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은 27명으로 전체의 28.7%였으며, 평균지능은 10명으로 10.6%에 불과했다. 두드러진 행동문제나 학습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지적 장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목받지 못해서 선별되지 못한 채로 일반 학급 내에서 학습과 적응문제로 고전하고 있을 아동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과정에서 나온 우연적이고 부차적인 결과일 수 있지만, 공교육 안에서 기초학력 향상지원정책이 기대치만큼 성공하지 못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학습부진 아동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접근' 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공교육의 노력에서 지적 능력을 고려하는 선별과 지원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하는 바이다.

▶ 출처 : 박현숙(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하정숙(2017) 연구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느린학습자를 선별하여 수와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수학 학습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다각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전-사후 설계로 이루어졌고,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 느린학습자의 선별⇒ 수학 학습적, 정서적, 사회적 프로그램 설계 ⇒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사전검사⇒ 다각적인 중재 실시 및 수학 학업 성취도 검사 ⇒ 학습동기 및 자아존중감 사후검사 ⇒ 연구결과 분석 및 활용의 단계를 거쳐 실시되어 효과가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느린학습자의 수와 연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학 학습적 중재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중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 출처 : 하정숙(2017).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중재

〈전문가 의견〉

“건물 자체는 빌딩에 있고 크지도 않고 그런데 왜 아이들이 빠지지 않고 여기에 오면서 행복해 하나면 이유는 딱 하나, 우선 여기에 왔을 때 경계선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기 왔더니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그램이 저희는 인가형이기 때문에 국, 영, 수, 과학, 사회, 도덕 등 모든 과목을 똑같이 다 이수해요. (...) 단순히 영화 보러 가는 거, 친구들 생일잔치 하는 거 한 번도 못 해본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 적이 없는 친구들도 꽤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순간에 저희 대안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상화되어 버린 거죠. 어딘가 놀러 가고 친구 불러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 (...).”(라)

4. “친구와의 갈등,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가정에서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대상으로 명시하여 인적 물적 자원 통합적 활용

⇒ 희망교실 연계해 교사 멘토링을 진행하며 개별 관심 및 점검 지속

- **[제안이유]** 느린학습자의 경우 학습부진 문제 이상으로 친구관계나 사회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부모나 교사 역시 느린학습자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 부분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초·중·등 교육법 28조는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환으로 교육부, 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기존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는 교육소외계층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층 학생을 주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소외에 해당하는 느린학습자를 주 대상으로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제안내용]** 초·중·등 교육법 28조, 시행령 24조가 느린학습자 지원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조항 내에 느린학습자를 위한 내용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경계선지능 느린학습자를 주 대상에 추가로 명시하여 학습, 정서, 문화, 복지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혹은 방임되고 있는 일부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시]

- 교육복지 중점학교의 경우 학교에 상주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교육복지사)를 중심으로 학교 체계 속에서 관리, 교육복지 일반 학교의 경우는 서울의 각 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교육복지센터에서 사업의 주 대상 학생 관리를 지원함
- 교육복지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느린학습자에게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근거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①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8.2.>.
-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0, 2013.3.23, 2016.8.2.>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가 의견〉

“느린학습자를 누가 담당하느냐에 대한 것을 특수학급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하게 된다면 일반학교 통합학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그 연결고리에 있는 부분들을 세분화하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 본청에서 교육복지사업으로 서울희망교실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 중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과 연결을 해서 함께하는 희망교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확대할 수 있으면 느린학습자들을 거기에 (...) 선생님이 지금처럼 1명당 6~7명이 아니라 느린학습자의 경우 1: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 지금 6천 팀 정도를 운영하는데 그 팀 수를 조금 더 늘려서 제안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테니 현재 그 아이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들을 조금 생각해서 그것들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나)

“이미 부진아 등에 대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정책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의 대상이 명확하게 거기가 이미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학령기 전에 조기진단체계가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 그 외에 학교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세밀하게 보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디에서도 짚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교육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있고 거기에 또 서울만 해도 자치구별 교육복지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점이 (...)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명확한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마)

5.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들과 섬의 시간, 교류의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지”

⇒ 서울시 초등방과후교실 정책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거점형, 융합형 키움센터 모델 중 하나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 신설 제안

- **[제안이유]** 느린학습자의 경우 자신을 표현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며 편안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매우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는 공적인 기관에 그러한 곳이 거의 없어 일부 학부모들이 모여 느린학습자를 위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방과후교실이 요구된다.
- **[제안내용]** 서울시의 경우 맞벌이 부모 자녀를 위한 초등방과후 돌봄교실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대 실시하고(2019년 현재 99개 소, 2020년 220개 소, 2022년 400개 소 신설 계획) 쉼, 여가, 놀이 활동을 위한 아이들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바, 이 중 치료시설까지 함께 갖추게 되는 거점형 키움센터 모델 중 하나로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융합형이나 일반형 키움센터도 느린학습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한다.

⇒ [예시]

-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소규모 일반형 키움센터는 자치구 직영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 위탁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느린학습자 워킹그룹이나 학부모 모임 등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도 방법임
- 서울시는 일반형 외에도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포괄하는 융합형, 치료시설까지 함께 갖추게 되는 거점형 키움센터를 설치할 계획임. 거점형 키움센터 중 하나의 모형으로 느린학습자 전용 공간을 마련한다면 방과후 돌봄과 치료가 함께 해결될 수 있음. 사회적인 인식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중고등학생의 경우 청소년들의 방과후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기관을 느린학습자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함

〈우리동네키움 개소현황 및 확충 계획〉



〈전문가 의견〉

“우리동네키움센터에는 실질적으로 맞벌이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고, 모든 학생이 대상이고, 자치구마다 하나의 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는 좀 특화된 어떤 센터로도 구축이 될 수 있어서 거점형 같은 경우 핀란드의 아난달로처럼 문화예술을 충분히 지원하고 또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해서 사회 기술 훈련이라든가 사회성 훈련 같은 조금 특화된 프로그램을 해주면 좋겠어요. 거점형은 두 세 개의 자치구에 하나 정도로 1,000제곱미터 정도의 굉장히 복합적이고 큰 규모예요. 실제로 노원구에 1호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2호점이 동작구에 (...) 스페이스 살림 대방에 있는 그 쪽인데요. 저는 다 연결이 될 수 있으면, 교육복지센터하고 센터가 중심이 되고, 사례관리 차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율하고 활동 영역을 보완해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지원은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특화된 방법으로 자원연계까지 가능하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 공간도 선진국형으로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

6. “오롯이 모든 어려움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인지”

⇒ 서울시 차원의 법적 근거로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

⇒ 느린학습자지원센터를 마련해 느린학습자 관련 사회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

- [제안이유] 그동안 느린학습자는 홀로 혹은 가정에서 그 모든 아픔과 불이익을 감당하며 지내왔다. 갈수록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느린학습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이들을 대변하며 이들을 위한 대안을 고민하고 관철시키는 기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복지, 혁신교육지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학교나 지역들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이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나 지역과 함께하는 다양한 대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높은데 느린학습자들도 사회에서 이러한 노출과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 [제안내용] 느린학습자지원센터(가칭)를 마련해 느린학습자 관련 생애주기별 연구, 정책 제안, 정책 추진 모니터,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느린학습자 및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센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서울시 차원의 느린학습자 조례를 제정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조항을 시행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느린학습자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이 모색되고 실행되기를 바란다. 추후 지자체마다 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어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느린학습자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 배려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 [예시]

(법적인 근거 마련) 서울시 차원의 느린학습자 조례 제정

(법조항을 실행하는 중심축으로서) 느린학습자통합지원센터 설립

(실행단위) 지자체, 시교육청 담당자 지정

다양한 민관학 사업들과 자원들과 연계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안전망 확보, 장기적으로 지자체
마다 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센터 운영

주의) 조례 제정이 되어도 예산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 될 수 있는 있음. 조례제정 및 센터 설립

역시 충분한 준비와 합의를 거쳐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개선

이 필요함



〈전문가 의견〉

“느린학습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볼 거냐 아니면 일반 학생으로 볼 거냐, 일반 학생으로 본다고 하면 지능검사를 하거나 학부모의 동의 아래 진행할 수 있는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 같은 것을 할 근거가 부족하죠. (...) 법은 만들었는데 예산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법만 만들어져 있어서 유명무실한 법이 돼버리는 (...) 느린학습자를 위한 지원 조례 역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 사실 만들어지면 지킬 수 있게 뭔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진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가)

“느린학습자 중에 특수교육 대상자도 아니고 교육복지 대상자도 아니면 지원이 또 안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교육의 지원과 병행해서 그런 치료나 지원 활동을 시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법 제정이나 조례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하자 복지 서비스를 사회 서비스로 전환하자고 해도 실제로는 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현금 지원이 가능한 그런 사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꼭 좀 마련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라)

7.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가족들

⇒ 낮은 단계부터라도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가족지원제도 마련

- **[제언이유]**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거의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느린학습자에 대한 양육과 성장 등 돌봄의 모든 부담은 전적으로 가족에게 지워진 상황이다. 가족들은 적절한 정보도 없고 지식도 부족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결정과 판단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치료와 교육을 위해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 **[제언내용]** 중장기적으로 느린학습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복지정책의 마련과 돌봄의 부담을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휴가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느린학습자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에 단기적으로는 느린학습자에 대한 정보제공, 부모와 가족으로서 필요한 교육, 더 나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꼭 필요한 지원부터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광역과 기초지자체 느린학습자지원센터에서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기초지자체 내 교육 관련 중간지원조직에서 느린학습자 학부모 대상 정보 및 교육 서비스 제공
- 서울시 및 자치구 차원에서 지역 내 상담기관과 협약하여 상담 서비스 제공
- 느린학습자 가족을 위한 전담 상담 서비스 조직 마련(사회적경제조직 형태 가능)

주의) 느린학습자 관련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적절한 정보 및 교육이 가능할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며, 상담 역시 마찬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잘못된 정보와 상담으로 오히려 느린학습자 가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선행사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발달장애인법)

제31조(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동거하는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심리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휴식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형제·자매로서 발달장애인이 아닌 아동 및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서발달과 심리적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때에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대상 및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성인이 되면 더욱 위험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하는 느린학습자

⇒ 느린학습자 자립지원제도 마련

- **[제안이유]** 현재 느린학습자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은 초중등학교법 개정에 따른 기초학력지원과 이에 파생된 전국 6곳의 학습부진 관련 조례가 전부이다. 이는 느린학습자 문제를 학력에 한정하는 문제와 함께 성인기 느린학습자를 배제한다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가족과 학교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는 성인기 느린학습자는 더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이 없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느린학습자 개인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자립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제안내용]** 크게 두 가지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첫째, 성인기 이전에 반복적인 선행학습을 통해 사회진출에 앞서 사회성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고용과 주거지원정책인데 이는 맞춤형 직업훈련, 잡코칭과 같은 고용 서비스, 적합직종 개발, 자립경험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주거지원 등이다. 초-중-고-대-직업정착까지 생애주기별 자립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향후 구체적인 지원제도에 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예시]

- 느린학습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직업학교 설립
- 느린학습자지원센터와 연계한 잡코칭 프로그램
- 기초지자체 및 지역기관과 연계한 지역사회연계형 주거지원

주의) 느린학습자는 장애인과 비교하여 적은 지원으로 더 많은 자립 가능성을 가짐. 문제는 관련 제도와 정책이 늦게 마련될 경우, 너무 많은 느린학습자를 사회에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임. 정책과 제도의 빠른 속도가 필요한 지점임.

〈선행사례〉

서울시 커리어플러스센터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및 같은 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중증발달장애인등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장애인 직무분석 ⇒ 개인 특성에 적합한 민간 사업체 배치
- 안정적 직업유지 ⇒ 지역사회 밀착형 민간 일자리 발굴
- 사업체와 장애인 소통 ⇒ 직무지도원 양성 및 파견

■ 추진방향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수층(‘중증(54.2%)’) 대상 집중 취업 지원
- 고임금(최저임금 이상)의 다양한 일거리 및 취업 가능한 지역 사업체 발굴
- 장애인과 사업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문 직무지도원 양성

〈전문가 의견〉

“실제로 이 아이들이 가장 목표로 해야 되는 부분은 자립이기 때문에 나중에 적어도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 정도는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세금을 내고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되는 게 목표인데 사실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부족합니다. 이 아이들은 보통 학생들이 한 2~3년이면 배울 수 있는 기술을 같은 기간 안에 배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오래 교육시키고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는 이 아이들한테 맞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배울 수 있는 작업장이나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가)

참고문헌

- 강옥려 (2016). 경계선급 지능 아동의 교육: 과제와 해결 방안. 서울교육대학교. 27(1), 361-378.
- 권정민 (2014). 경계선지능 학생 관련 정책 제언.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정책토론회, 29-36.
- 김고은·김혜리 (2018). 경계선지능 청소년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1, 137-168.
- 김미옥·정민아 (2017). 지원생활모델(Supported Living model)을 적용한 발달장애인의 자립. 한국사회복지학, 69(1), 255-281.
- 김미옥·정민아 (2018).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한국사회복지학, 70(3), 51-79.
- 김성희·황주희·이민경·심석순·김동주·강민희·정희경 (2013).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자경·강혜진·서주영·장성욱 (2018). 느린학습자 조기진단을 위한 CRA 기반 수감각 검사도구 개발. 특수교육학연구, 290.
- 김지선·이민주·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 김주영 (2018). 학령기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의 언어 및 읽기 능력.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2), 139-157.
- 김진아 (2017). 경계선급 지능 아동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방법을 통하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문성호·박지원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2), 257-279.
- 류수린·박현주·정동규·백경선·윤홍욱 (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위한 언어기반 인지강화 기능성 게임 구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19(6), 1051-1060.
- 박미정·박경란 (2019). 일상생활 중심 대화식 저널쓰기가 경계선지능 언어발달지체학생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369-389.
- 박은하 (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0), 299-319.
- 박찬선·장세희 (2018). 경계선지능을 가진 아이들. 이담북스.
- 박현숙 (2018).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선별 체크리스트 : 타당화와 하위특성 연구. 성균관대박사학위논문.
- 박현숙·최현기 (2014). 아동복지시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양육을 위한 가이드북.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변관석·신진숙 (2017). 경계선지능에 관한 국내연구 동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9(1), 79-109.
- 보건복지부(2019). 2019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2017).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자립지원체계연구: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 보고서.
-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2015). 서울시 아동청소년그룹홈 SIB(Social Impact Bond) 도입에 관한 연구.
- 서재욱·홍재은·윤상용·박혜진 (2019). 청주시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모색연구. 청주복지재단.
- 송지환·김중형 (2017). 매트운동프로그램이 경계선지능아의 협응능력 및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2), 99-108.
- 심정민 (2016). 경계선지능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발전을 위한 소고. 영상문화, 29, 197-218.
-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2019).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해외 방문 연구 조사.
- 우정환·김요섭·김윤옥·강옥려·김소희·허승준(2016). 난독증 학생 지원 요구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 비교 분석. 학습장애연구, 13(1), 53-83.
- 월드비전 (2019). 가정 밖 청소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포럼 자료집.
- 이기정 (2016). 마인드맵을 활용한 일기쓰기 활동이 경계선급 지능 학생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13(1), 107-126.
- 이준영 (2018). 평가방법 개선□정교한 사업모델 개발 포함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방안 도출. 서울연구원.
- 이해정 (2014).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통한 학습부진의 이해. 교육비평(33), 144-153.
- 이호근 (2017). 독일의 청년실업과 고용대책. 한국사회정책, 24(3), 85-115.
- 임희진·구자경 (2019).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독서치료연구, 11(1), 63-84.
- 정대영·임성미·하창환 (2018). FIF-B(EM) 프로그램이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정서지능 및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특수교육연구소, 17(2). 63-89.
- 장세희 (2018). 독서치료가 느린학습자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독서치료연구, 10(2), 89-106.
- 정훈영 (2016). Education for All을 대비한 특수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소고.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 215-228.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2014). 장애·경계선급 아동을 위한 개별화 교육프로그램(발달지원계획서) 운영 매뉴얼.
- 조규필·김수진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131-154.

- 주은미·최승숙 (2018). 경계선급 지능 중학생 학교생활 경험 및 교육지원 요구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인식. 학습장애연구, 15(3), 315-344.
- 채성현·강태인·김미영·권영지·박형빈 (2017). 발달장애인 부모가 인지하는 지역사회 자립생활과 주거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61, 103-129.
- 최말옥 (2014). 경계선 지적기능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6(1), 191-219.
- 하정숙 (2017).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중재. 한국연구재단.
- 하정숙 (2018). 경계선지능아동을 위한 읽기 중재의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7). 경계성지능아동 자립지원서비스 효과성보고.
- G. Lokanadha Reddy, R. Ramar, A. Kusum, 박현숙 역 (2018), 느린학습자의 심리와 교육. 학지사.
- Generalitat de Catalunya (2017). Recommendations for caring for people with Borderline Intellectual Functioning

기사 및 사이트

- EBS(2014). 특집방송, 느린 학습자를 아십니까.
- 노컷뉴스 (2019). '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 청소년)를 위한 교육 실험 '별에서 온 그대' 눈길. 2019. 01. 28일자 기사.
- 매일경제 (2019), 급증하는 발달장애인 고용대책 세워야. 2019. 04. 16일자 기사.
- <https://www.speld-sa.org.au/about-us/history.html?task=view&id=80>
- <https://www.wikihow.com/Help-Slow-Learners>
-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60202&PAGE=2&topTitle=지역사회서비스

부록2. 포커스그룹 인터뷰 동의서 및 질문지 예시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학부모 인터뷰 안내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북권npo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더 나은 교육 환경(학교 생활), 자립 환경 등을 조성하여 느린학습자 및 가족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부모님의 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첨부된 질문에 따라 부모님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취를 통해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연구가 끝나는대로 녹음 파일은 삭제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녹취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작성자 _____ (인)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 기초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50 416 922 573">도입 질문</td> <td data-bbox="922 416 1342 573"> •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나이, 학년, 학교,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 부모님 성함, 연령 등) •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td> </tr> <tr> <td data-bbox="850 573 922 880">심층 질문</td> <td data-bbox="922 573 1342 880">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교육(학교생활, 학업 등) 관련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자립(진로, 직업 등) 관련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자녀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어려움(친구관계, 사회성 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가족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td> </tr> <tr> <td data-bbox="850 880 922 969">마무리 질문</td> <td data-bbox="922 880 1342 969"> • 오늘 다루었던 이야기 외에 본 주제와 관련해 다른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td> </tr> </table>	도입 질문	•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나이, 학년, 학교,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 부모님 성함, 연령 등) •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층 질문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교육(학교생활, 학업 등) 관련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자립(진로, 직업 등) 관련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자녀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어려움(친구관계, 사회성 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가족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 오늘 다루었던 이야기 외에 본 주제와 관련해 다른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입 질문	• 자녀와 부모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나이, 학년, 학교, 느린학습자임을 알게 된 시점, 부모님 성함, 연령 등) • 느린학습자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던지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제도나 정책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던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심층 질문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교육(학교생활, 학업 등) 관련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양육에 있어 자립(진로, 직업 등) 관련해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자녀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느끼는 어려움(친구관계, 사회성 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느린학습자 가족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인가요?						
마무리 질문	• 오늘 다루었던 이야기 외에 본 주제와 관련해 다른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교사 인터뷰 안내문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북권npo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더 나은 교육 환경(학교 생활), 자립 환경 등을 조성하여 느린학습자 및 가족들이 보다 질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첨부된 질문에 따라 선생님의 경험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취를 통해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연구가 끝나는대로 녹음 파일은 삭제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녹취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작성자 _____ (인)	‘(경제선지능)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전문가 인터뷰 동의서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인터뷰에 함께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동북권npo지원센터의 위탁을 받아 ‘느린학습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연구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느린학습자 학습권 보호 지원 정책 제안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래 첨부된 질문에 따라 선생님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녹취를 통해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며, 연구가 끝나는대로 녹음 파일은 삭제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 주심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9. 11. 17 임정남(서울여자대학교) 이제경(한신대학교) 문정희(강남다함케어센터) * 인터뷰 녹취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 ☐ 작성자 _____ (인)						

느린학습자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학습권 보호 및 자립을 중심으로 -

발행일_ 2019년 12월 24일

발행처_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주소_ (01414)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69길 21 두승빌딩 201호

전송_ 02-906-2018

메일_ 02-906-2019

홈페이지_ www.dbnpo.kr

기획_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

디자인_ 인그루출판인쇄협동조합(02-954-0507)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강북풀뿌리활동가
포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